

「조선전사」 解題

1994. 12

李 教 憲(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후

후

「조선전사」는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가 1979년부터 4년간에 걸쳐 우리 역사를 총 33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 역사학계가 그동안 이룩한 연구성과가 총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전사」는 우리 민족사를 서술한 북한의 역사서를 대표하며 그 내용은 우리 역사의 해석을 둘러싼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성격을 가진 「조선전사」의 해제를 통해 북한의 민족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했다.

第 I 章 序 論

북한에서의 역사학은 그 역할과 성격, 방법론 등에 있어 우리와 매우 상이하다. 그 결과 역사학 분야에 있어 남북한간에는 연구대상과 주제, 연구업적 자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분단현실이 빚어낸 이런 ‘역사의 분단’은 민족의 숙원이자 이 시대의 最高善인 통일과업을 풀어나감에 있어 통일된 민족사 정립이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된 민족사 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서술 중 어떤 측면을 일방적으로 비판하

거나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보다는 북한의 역사 연구 현황이나 인식체계, 그 특징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역사연구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본 연구는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79년부터 8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우리 역사를 총 33권으로 편찬한 「조선전사」를 해제함으로써 같은 조상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에서는 과연 겨레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고 서술되고 있는가를 조명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특히 민족사를 보는 북한학계의 관점을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정리하면서 「조선전사」에 나타난 역사인식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동시에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북한학계의 기본시각인 주체사관이 각 시대에 관한 「조선전사」의 서술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第 II 章 北韓 歷史學의 發展過程과 「조선전사」

1. 北韓 歷史學의 發展過程

북한에서 역사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세 시기 정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과정 및 정치·사상적 변화에 대한 구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제1기는 해방에서 1952년 무렵까지로서 맑스-레닌주의라는 일반적 이념틀로 개별 연구를 엮어내던 시기였으며 그 연구수준도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다. 제2기는 1952년부터 60년대 후반까지로서 특히 1955년 12월의 주체확립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과 1956년 3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본격화된다. 이 시기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허무주의’와 ‘복고주의’가 격렬한 비판을 받고 역사연구에서 ‘주체’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제3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 주체사상이 체계화, 전면화함에 따라 역사가 주체사관에 의해 다시 정리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역사서가 「조선전사」이다.

2. 「조선전사」의 時代區分과 構成體系

가. 「조선전사」의 時代區分

“역사연구의 모든 노력은 시대구분에 귀착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대구분은 역사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근대 역사학이 성립한 이래 시대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시대를 구분하는 여러 방법론 중 어느 것을 한국사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사의 시대구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남북한 역사학계는 이 문제에서 특히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전사」에 나타난 시대구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시시대; 지금으로부터 60만년 내지 40만년전부터 기원전
10세기

고 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중 세; 기원전 1세기부터 1860년대까지

근 대; 1860년대부터 1926년까지

현 대; 1926년 이후

나. 「조선전사」의 構成體系

「조선전사」는 “인민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와 력사발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서 연표 2권을 포함하면 총 3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권이 원시편, 2권이 고대편, 3권에서 12권이 중세편인데 중세편은 3권이 고구려사, 4권이 백제 및 ‘전기신라사’, 5권이 발해 및 ‘후기신라사’, 6권과 7권이 고려사, 8권부터 12권이 ‘리조사’이다. 13권부터 15권까지가 근대편이고 16권부터 나머지 33권까지가 현대편으로서 현대편이 18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편은 16권에서 22권까지가 日帝下에 김일성이 벌였다고 하는 ‘항일무장투쟁사’, 23·24권이 해방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서술한 ‘민주건설사’, 25·26·27

권이 한국전쟁을 다룬 ‘조국해방전쟁사’, 28권부터 33권까지가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사회를 서술한 ‘사회주의건설사’이다.

第Ⅲ章 原始社會史 및 古代史 認識

1. 原始社會史

북한의 역사학계는 우리나라 원시사회의 역사가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온 역사라고 전제하고 있다.

원시사회사를 다루고 있는 「조선전사 1」은 그 서문을 통해 원시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사람의 기원문제를 들고 있다. 「조선전사 1」이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의 구성과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면 북한 역사학계는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의 역사학계는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를 ‘猿人-古人-新人’의 단계로 계통화하여 우리 민족의 선조를 신인 단계의 ‘승리산 사람’에서 구하고 있다.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시대 전기 및 중기의 유적에서 古人단계에 해당하는 ‘력포사람’ ‘덕천사람’의 뼈를, 구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에서 新人단계인 ‘승리산사람’의 뼈를 발견했다고 한다. 북한은 구석

기시대 후기에 나타난 新人인 이 ‘승리산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몸구조의 진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인간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각 인종 집단의 시초유형들로 분화되는 과정은 구석기시대 후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일정한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적 공통성이 형성되며 족속들의 혈연계통이 뚜렷해진다고 한다.

북한의 역사학계는 현대 한국인의 선조도 바로 이 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단을 ‘조선옛류형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시대 전기의 검은모루 유적 사람이 단절없이 진화·발전하여 신석기시대의 ‘조선옛류형사람’으로 되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즉 구석기시대 전기에 살았던 사람과 현대 한국인이 혈연적·유전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론은 ‘조선사람의 인류학적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조선문화의 유구성’ ‘조선문화의 독자성’이라는 명제와 함께 고고학에서의 주체사상의 관철을 의미한다.

2. 古代史

북한학계가 고대사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고대사가 정상적인 발전단계를 거쳐왔음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 역사의 유구성·독자성을 부각시켜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다. 따라서 북한학계는 국가형성과 사회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에 기초하여 고조선·부여·진국이 우리 역사상 첫 노예소유자국가였으며, 그 건국시기는 고조선이 대체로 기원전 8~7세기 이전, 부여는 기원전 5세기경, 진국은 기원전 4세기 이전이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전사 2」는 1970년대까지 북한의 역사학계가 이룩한 고대사 연구성과를 집성한 것으로서 고대국가들의 주민과 영역, 국가의 성립, 통치제도와 경제제도 등을 나라별로 서술하고 끝에 고대의 문화를 종합 개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역시 고조선에 대한 서술이다. 즉 고조선의 국가형성 시기와 영역, 주민, 사회성격, 신화전설과 문화, 통치제도와 대외항쟁사 등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第Ⅳ章 中世史 認識

1. 三國時代史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는 「조선전사」 3·4권의 서술내용은 삼국시대의 문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봉건국가의 성립과정 및 봉건적 제관계의 발전에 대한 서술과 삼국의 대외관계 또는 '반침략투쟁'에 대한 서술, 그리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한 서술이다.

첫째의 부분은 북한학계가 삼국을 전형적인 봉건사회로 규정함에 따른 자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조선전사」 3·4권 모두 앞부분에서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에 계속되어 온 생산력의 발전과 봉건적 제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국전설을 설명하고, 이어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및 계급신분관계와 봉건통치제도의 발전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은 삼국시대사 서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전사」 3·4권에서 삼국의 반침략투쟁에 대한 서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적 반제투쟁’이라는 현재적 입장과 시각이 과거에 투영된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역사교육을 통한 정치의식의 계발과 교양을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對隋·唐 전쟁과정을 서술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은 북한이 隋·唐을 자신들이 말하는 ‘신식민제국주의세력’과 사실상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며 역사교육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부분은 「조선전사 4」의 ‘백제 및 전기신라사’에서 각기 독립된 章으로 서술되고 있다. ‘봉건착취와 억압의 강화. 그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題下에서 북한학계는 삼국시대의 농민들이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遊離하거나 풍설을 퍼뜨림으로써 지배층에 항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424쪽에 달하는 「조선전사 3」의 고구려사편에서는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주목된다. 이것은 북한학계가 백제사와 신라사에 대해서와는 달리 고구려사를 특별한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 高句麗史

북한학계는 고구려의 성립이 “지난날의 우리 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평가하고 고구려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고구려가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영역내에 있었던 많은 후국세력을 통합하여 漢에 대한 반침략투쟁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국가형성 이후 고구려사는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반침략투쟁의 역사이자 잃어버린 고조선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역사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건국을 전후하여 추진한 주변 소국의 통합도 정복전쟁이 아니라 “반침략투쟁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였고 4세기 전반기의 고구려의 요동진출도 반침략투쟁에서 거둔 커다란 승리이자 옛 고조선 땅의 실제적 회복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사에 대한 북한학계의 이같은 편향된 인식은 삼국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이민족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사가 반침략투쟁과 故土회복의 역사였다면 백제 및 신라와의 관계에서 고구려사는 통일지향의 역사로 표현된다. 예컨대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평양천도’는 삼국통일의 원대한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고구려의 통일 의지를 전하는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북한학계가 고구려의 ‘삼국통일의지’를 굳이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고구려를 삼국관계의 주도자로 인식하고 이를 부각시키려는 데 말미암은 바 크다.

나. 百濟 및 ‘전기신라사’

백제사를 서술하고 있는 「조선전사 4」의 총 7개 章 가운데 4개 章이 백제라는 봉건사회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봉건사회에 대한 북한의 계급적 시각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북한학계가 고구려사를 특별한 시각과 호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백제가 우리 역사상 첫 봉건국가의 하나라는 평범한 인식을 바탕으로 백제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전사 4」는 백제가 봉건화과정을 밟아온 마한내의 다른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봉건적 착취관계를 확립하고 봉건통치제도를 확대,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주변 소국들의 병합이 봉건화의 진전과 반침략투쟁을 위한 역량강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었으나 백제의 경우는 한 측면으로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학계가 백제사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고 강조하는 것은 백제 봉건지배계급의 착취에 대한 ‘인민’의 투쟁이다. 백제의 통치기구 및 제도의 정비는 착취와 억압의 강화과정으

로 이해되고 있으며 신분제도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확립·확대과정에 대한 분석 등은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은 같은 봉건국가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 서술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던 것이다. 이는 삼국사에 대한 북한학계의 인식이 국가별로 상이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북한학계의 ‘전기신라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더욱 소극적이며 비판적이다. 이는 주로 7세기의 삼국통일과정에서 신라가 추진한 隋·唐세력과의 연합을 신라의 민족적인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시각을 신라사 전체에 투영시킨 때문이다. 신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신라발전과정의 이해방식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조선전사 4」에 따르면 신라의 발전도 삼국관계에서 신라가 신의없는 군사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신라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기신라’라는 용어이다.

북한학계는 70년대에 들어와 고구려사와 함께 점차 발해사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역사계승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졌다고 인식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다. 즉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 아니라 국토남부의 통합에 불과하며 국토 북부의 역사는 발해의 건국에 의해 그 주체가 고구려에서 발해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평가하게 된 것

이다. 따라서 발해와 신라라는 두나라가 남북으로 병립하던 시대의 신라는 ‘후기신라’이며, 그 이전 삼국정립 시기의 신라는 ‘전기신라’로 불려야 된다는 것이 북한학계의 입장이다.

2. 渤海 및 ‘후기신라사’

북한의 역사학계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북한학계의 이런 입장은 통일신라, 발해사 서술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사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신라보다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발해사 중심의 역사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조선전사 5」는 신라가 국토남부를 통합하여 ‘후기신라’로 전환된 반면 고구려 유민에 의해 발해국이 창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1970년대는 소위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한국사 해석의 모든 부분에 걸쳐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사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주체적 입장에서 볼 때,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어 같은 겨레의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은 반민족적 행위의 전형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전사 5」는 “발해 및 후기신라사”라는 제목하에 종래의 서술방법과는 달리 발해를 신라보다 먼저 서술하고 있다. 세 차례나 개정된 「조선통사」에서는 그대로 신라를 먼저 서술하였으나 「조선전사 5」는 신라의 국토남부 통합이 지

니는 의미조차 평가절하하고 대신에 발해의 창건이 갖는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술순서를 바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학계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계승이 역사의 정통이고, 고려가 최초의 통일왕조라는 인식논리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 북한정권과도 무관하지 않은 역사인식이다. 즉 발해건국의 독자성과 현 북한정권 수립의 ‘주체성’은 시간을 뛰어넘어 맞물려 있음으로써 발해사는 물론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정통으로 인식시키는 역사교육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3. 高麗史

고려사를 다루고 있는 「조선전사」 6·7권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두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북한학계가 역사해석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기본논리가 대외적인 민족문제와 대내적인 계급관계라는 데 기인한다.

「조선전사」의 고려사에 대한 서술에서도 ‘인민’의 반침략투쟁사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는 고려 때가 여타 시기보다도 주변국가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異民族과의 충돌이 빈번했던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북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사 발전과정에서의 ‘인민대중’의 역할과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및 애국심이 이 부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조선전사」 6·7권이 고려시기를 “우리 나라 봉건 시대 전기간을 놓고 볼 때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창조적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한 시기”로 규정하고 고려사를 “나라를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하고 고려사회를 전진시킨---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밝히는데 기본을 두고 서술한다”고 밝힌 데서 잘 알 수 있다.

「조선전사」의 고려사 서술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수취의 강화와 그에 수반된 농민·천민의 항쟁이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전사」가 매 시기마다 이 문제를 다룬 章節을 설정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전사」가 생산력의 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역사관에 비추어 필연적인 현상이고 또 ‘인민’의 반봉건투쟁을 서술하기 위한 整地작업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에 대한 서술 뒤에는 예외없이 ‘봉건적 수탈의 강화’와 그로 인한 ‘인민대중의 비참한 처지’가 길게 설명되며 이어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등장한다. 말하자면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모순은 한층 격화되어 계급투쟁이 전개되었다는 논리의 표현이며 서술도 그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4. '리조사'

북한에서의 우리 역사 서술은 주체사상이 정립된 7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 주체사관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의 어느 時代史이든 그 서술에서는 항상 “통치배들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과 “외래침략세력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는 ‘리조사’도 그 예외가 아니다.

「조선전사」에서 조선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8, 9, 10, 11, 12권으로 그 서술대상 시기를 각각 15, 16, 17, 18, 19세기의 초·중엽으로 하고 있다. 이 다섯 권은 대체로 각 시기의 생산력 발전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 및 봉건적 착취의 강화, 이에 대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 외침이 있을 때의 반외세투쟁, 그리고 각 시기의 문화를 다루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反侵略鬭爭

사회역사적 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의하면 반침략투쟁은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리조사’ 서술에서 민족은 항상 반침략투쟁의 주체로 설정된다. 그 결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擧族的인 투쟁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계급적 모순과 대립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즉 외침에 맞서 싸우는 문제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로 여겨져 내재되어 있는 계급적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는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반침략투쟁에 대한 서술에서 국내의 계급모순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나. ‘인민들’의 反封建鬪爭

「조선전사」는 조선사회에서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은---지주와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봉건국가로부터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것을 착취당하였으며 봉건국가의 악법에 짓눌려 자그마한 권리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조선전사」에서는 농민전쟁, 농민폭동, 농민무장단의 투쟁, 遊離, 도망, 시위, 성토투쟁 등 반봉건투쟁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서술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는 의의도 모두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빈민·어민·유민들의 투쟁도 봉건사회의 기본계급인 소작농민들의 투쟁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주체사관에서 생산수단과 더불어 국가권력 소유의 여부를 중시하여 “국가권력을 틀어진 봉건통치배”들과 봉건사회에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그들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피지배인민’의 대립을 기본모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외의 각 계급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반봉건투쟁에 대한 「조선전사」의 서술은 모든 투쟁의 의의를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찾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쟁들이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어 역사발전의 추진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의 투쟁은 항상 미화되고 있다. 즉 봉건사회의 계급대립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단순화한 뒤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억압과 착취, 외침에서 보여주는 동요와 비겁성을 강조하는 반면 피지배층은 늘 선하고 옳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第 V 章 近世史 認識

개항 이후 일본과 서구 등의 외세와 더불어 근대가 찾아온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舊來의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하고 외세 침략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는 반침략투쟁이 민족운동의 핵심이자 시대적 과제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북한 역사학계는 1860년대 이후부터 1925년까지를 근세로 잡고 대체로 이 시기를 이같은 내용을 가진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단계로 보고 있다.

북한학계는 이 ‘부르조아민족운동’이 애국적인 투쟁이었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이 운동은 운동을 주도한 상층의 계급적·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해 통일적인 강령과 전략전술에 의해 지도되지 못하고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띠고 진행된 본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고도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학계는 이 시대의 과제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본질적약점들을 시급히 극복하고 조선민족 자체의 힘을 옹기 조직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조선국민회’ 조직으로 해결의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북한학계는 1920년대에 들어와 ‘민족해방운동’의 계급적 성격과 내용이 크게 바뀐 것으로 파악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19세기 중엽 ‘부르조아민족운동’이 발생한 시초부터 3·1운동 이전까지는 ‘민족해방운동’이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영향하에 진행되었으나 3·1운동 이후는 ‘민족해방운동’이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초기의 공산주의운동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령도자가 없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의 출현, 바로 이것이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 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였으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이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학계의 논리는 20년대의 전반적인 반일투쟁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의 폭력투쟁이 급격히 양양되어 무장투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논리의 귀착점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이론에 의거하여 김일성이 지도하는 ‘항일무장투쟁’이 당시의 정세로 보나 ‘인민’의 반일투쟁 경험에 비추어 보나 필연적인 요구였다는 것이다.

第Ⅵ章 現代史 認識

1. ‘항일무장투쟁사’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역사학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민족해방운동사’, 특히 ‘항일무장투쟁사’ 연구이다. 「조선전사」는 총 33권 가운데 7권을 소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서술에 할애하면서 김일성의 활동을 영웅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조선전사」에 수록된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해 북한학계는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지도사상과 조선혁명의 진로를 제시하시기 위하여 벌리신 비범한 사상이론 활동과 실천투쟁 내용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창시가 자주시대의 개척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있게 밝혔다”고 自評하고 있다.

2. '민주건설사'

「조선전사」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해방 5년사를 '민주건설사'라는 편명하에 서술하고 있다. 해방 5년사를 '민주건설사'라는 제목하에 서술하고 있는 「조선전사」 23, 24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선전사 23」은 해방후 47년 2월까지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적인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에 따라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일제에 의해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정비하고 민족간부 양성의 토대를 닦으며 민주수도건설을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는 “제반 민주개혁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강력한 혁명적기지가 창설되었으며 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전사 24」는 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된 때로부터 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에서 혁명이 “1947년초부터 새로운 발전단계,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과도기 첫 시기의 혁명과업” 즉 정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뒤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인민경제의 부흥발전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조선인민군'의 창군,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민족문화의 건설'

등을 언급하고 있다.

3. '조국해방전쟁사'

「조선전사」 33권 가운데 3권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전사」는 한국전쟁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총 3권 1,248쪽 분량의 '조국해방전쟁사'는 그 1권인 「조선전사 25」가 336쪽으로서 북한이 소위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시기'로 보는 한국전쟁의 발발부터 50년 9월15까지를 다루고 있다. 2권인 「조선전사 26」은 368쪽으로서 소위 '조국해방전쟁 제2, 3계단시기' 즉 50년 9월부터 51년 5월까지의 戰況을 개괄하고 있다. 3권인 「조선전사 27」은 544쪽으로 '전쟁 제4계단의 력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쟁 후반의 2년 3개월의 기간을 취급하고 있는 이 책은 결국 "미제침략자들이---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여지없이 분쇄되었으며 결국 정전협정에 조인하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인민으로 되었으며 세계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한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4. '사회주의건설사'

북한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후 戰後復舊計劃을 수립·시행하

면서 동시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중심으로 1947년 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주의혁명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지난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10년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금후의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그 총체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건설사’는 혁명단계상 1947년 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조선전사」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를 ‘민주건설사’로, 1950년부터 53년까지를 ‘조국해방전쟁사’로, 53년 이후 현재까지를 ‘사회주의건설사’로 명명하고 있다.

일단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한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주의건설은 단순한 경제건설 이상의 많은 과제들을 포함한다. 혁명 초기에 당과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외에 정치지도력의 구축, 경제건설, 계급해소,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사상과 문화·교육정책의 시행 등이 그 과제이고 군사·외교 등도 사회주의건설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사’를 다루고 있는 「조선전사」의 권 28·29·30·31·32·33은 각각 내용의 대부분을 內治에 할애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에 대한 서술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재일조선인운동 및 해외동포들의 투쟁”에도 각기 1개의 章을 할애

해 설명하고 있다.

第Ⅶ章 結 論

원시사 및 고대사에 관한 「조선전사」의 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 독자성, 단일성에 대한 강조와 고조선 중심의 역사인식이다. 유구성에 대한 강조는 연대의 상향조정으로 나타나고 독자성은 민족의 본토기원설과 우리 문화에 대한 외부 영향의 부정으로 나타나며 단일성은 민족의 單血性起源論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고조선 중심의 역사서술은 그 서술분량의 평면적 대비에서나 전반적인 논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국시대사 서술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고구려에 편향된 인식과 연구이다. 이 때문에 「전사」의 삼국사 서술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사」속의 고구려사는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주체적이며 사대주의가 없었던 역사로 서술된 반면, 백제·신라사는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서술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신라사는 반민족의 역사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은 발해 및 ‘후기신라사’의 서술에서 발해 중심의 서술으로 이어진다. 북한의 이러한 서술태도는 은연중 역사의 정통이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북한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분단사학의 지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조선전사」속의 모든 시대사 서술에서 똑같이 보이는 경향이지만 특히 고려사와 '리조사' 서술의 중점은 인민들의 반봉건투쟁과 반침략투쟁에 있다. 이는 「조선전사」의 서술방향이 그 발간사에서도 밝혔듯이 “인류발생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근세사로 취급하고 있는 기간은 불과 60여 년 밖에 되지 않음에도 「조선전사」가 이 기간을 3권에 걸쳐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북한이 근세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근세사를 '민족해방'을 위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역사로 보고 있다. 북한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운동의 필연적인 실패와 그것을 대체할 공산주의 운동의 역할이다. 즉 '부르조아민족운동'은 그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운동이 '민족해방'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민족해방'에서 김일성의 영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조선전사」의 18권 가운데 '항일무장투쟁사'가 무려 7권에 달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대사는 김일성 중심의 역사이다. 이 점은 「조선전사」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등장하는 回數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즉 「조선전사」의 각 권에는 김일성의 교시가 인용되어 있는데, 현대 以前을 서술한 15권의 경우 김일성의 교시가 평균 약

20회 나타나나 ‘항일무장투쟁사’의 경우는 그 인용 회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며 23권부터 33권까지로 한정하더라도 그 회수는 평균 약 122회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역사의 연구방법론에서나 시대구분에서나 한국사 전체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남북한간에는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분단 50년간 남북한 사이에 역사자료 및 전문학자간의 교류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한의 역사연구가 이질성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의 극복은 남북한 사학계 공통의 과제이다. 이 과제의 해결은 남북 어느 한 쪽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양자간의 진지한 만남과 공동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민족통합은 서로를 수렴하려는 노력 속에서 더 가까운 실체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민족통합은 사실 이데올로기의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이데올로기의 조정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가장 적은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역사학의 교류만큼 적절한 것은 달리 없다. 남북간에 흩어진 역사자료들을 서로 교환하고 남북의 연구성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사의 생생한 현장을 답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의 目的과 必要性	1
2. 解題方法	9
第 II 章 北韓 歷史學의 發展過程과 「조선전사」	14
1. 北韓 歷史學의 發展過程	14
가. 第1期	15
나. 第2期	19
다. 第3期	31
2. 主體史觀	35
3. 「조선전사」의 時代區分과 構成體系	40
가. 「조선전사」의 時代區分	40
나. 「조선전사」의 構成體系	42
第 III 章 原始社會史 및 古代史 認識	45
1. 原始社會史	45
2. 古代史	55
第 IV 章 中世史 認識	64
1. 三國時代史	64
가. 高句麗史	67
나. 百濟 및 ‘전기신라사’	72
2. 渤海 및 ‘후기신라사’	77

3. 高麗史	84
4. ‘리조사’	89
가. 反侵略鬪爭	90
나. ‘인민들’의 反封建鬪爭	95
第 V 章 近世史 認識	105
1. ‘1884년 부르조아혁명’—甲申政變	105
2. ‘갑오농민전쟁’	110
3. 甲午改革	117
4. 獨立協會運動	120
5. ‘반일의병투쟁’	123
6. ‘애국문화운동’	126
7. ‘3·1인민봉기’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몰락’	131
8. 1920年代 初期의 共產主義運動	137
第 VI 章 現代史 認識	140
1. ‘항일무장투쟁사’	140
2. ‘민주건설사’	147
3. ‘조국해방전쟁사’	155
4. ‘사회주의건설사’	164
第 VII 章 結 論	169
參考文獻	175
<부 록> 「조선전사」의 目次	179

第 I 章 序 論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북한의 역사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처음에는 당혹감을 경험하게 된다. 북한은 우리 역사에 있어 中世의 출발을 고구려의 성립에서 찾고 있을 뿐 아니라 최초의 통일국가를 고려로 파악하며 ‘홍길동’이 농민의 무장투쟁을 주도한 실존인물이라 말한다. 분명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나임에도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카아(E.H.Carr)의 지적대로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수백만 명이 루비콘강을 건넜지만 역사가들은 시이저의 渡江만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의 해석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제시된다. 따라서 사실은 결코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며 반드시 사가에 의한 재구성과정을 거친다.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이 역사가의 재구성과정이며 이는 사실의 선택 및 해석의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대의 규범이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끊임없는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¹⁾

이처럼 역사 자체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1) 박복희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1990), p. 38.

달라질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단위에서 역사연구가 체제내적 필요성에 근거해 추진되는 경우 역사 인식상의 괴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학문이 국가가 규정하는 특정의 목적에 기여해야만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그 예외가 아니다. 이는 1967년 11월15일에 김일성이 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서 확연히 증명된다.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과학이 요구되며 우리의 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는 과학이 요구됩니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할것없이 모든 과학이 다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조선혁명에 이바지하고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지 않고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그런 과학은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²⁾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역사학도 ‘과학’인 이상에는 혁명사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를 보충설명하듯 김일성은 북한에서 역사연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2) 김일성, “학생들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는 과학지식을 배워야 한다,”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428. 본 연구에서는 북한문헌의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 그 철자법을 그대로 따랐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것이나, 중국혁명의 역사를 연구하는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것이나 다 우리 혁명을 옹기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을 그들의 구미에 맞도록 교양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를 연구하여 근로자들속에서 그것을 널리 선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와 그 전통으로 인민들을 교양하여야만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북돋아줄 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혁명투쟁으로 고무할 수 있습니다.³⁾

다른 모든 지식의 추구도 마찬가지로지만 북한에서 역사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여 그들로 하여금 혁명투쟁에 헌신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기관지인 「역사과학」이 1965년 1월의 창간 10주년 기념사에서 근로자들의 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및 문화혁명위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잡지의 빛나는 사명으로 여긴다고 천명한 것⁴⁾에서도 뒷받침된다.

역사학의 목적이 ‘인민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불어넣는 데 있고 김일성의 定義에 따라 “애국심은 그 어떠

3)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8~469.

4) 「역사과학」, 1965년 1호, p. 3.

한 추상적인 개념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⁵⁾이라면 북한에서의 역사연구는 ‘인민들’이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민족문화유산과 민족적전통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가지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것을 다 부인하고 말살하는 허무주의적경향에 빠져도 안되며 반대로 과거의것을 덮어놓고 답습하는 복고주의적경향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하는데서나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큰 지장을 줍니다.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의 새 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할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기 민족의 현재와 함께 과거를 잘 알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유산을 사랑하게 되는 때에만 그들의 애국적감정이 더욱 깊어질수 있는 것입니다.⁶⁾

따라서 북한의 역사연구는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역사연구가 아니라 당이 규정한 목표에 따른 연구가 되어야 하며 역

5) 김일성, “우리 문학예술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p. 8.

6)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p. 445~446.

사가의 과업도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가 되어야만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⁷⁾

게다가 북한은 역사학이 “인류사회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발전의 복잡한 역사적과정을 합법칙적인 통일적과정으로 보고 연구하는 과학”으로서 “오직 맑스-레닌주의를 방법론으로 삼게 됨으로써만 비로소 진정한 과학으로 된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을 채용하지 않은 역사학, 즉 ‘비맑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은 ‘진정한 과학’이 아닌 ‘비과학적 역사학’인 셈이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역사학’이 출발하게 된 것은 1930년대의 김일성에 의해서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역사학의 시초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함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이 때로부터 역사학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 나라 역사학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비로소 가장 과학적인 주체적방법론에 의거한 인민의 역사학, 로동계급의 역사학으로 질적변혁을 가져왔다.⁸⁾

그렇다면 ‘비과학적인 역사학’과 ‘진정한 과학’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역사학은 어떤 점에서 대조적인가? 이에 대한 「력

7) Yong-ho Choe, "History in North Korea; Its Role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5, no. 1 (April 1976), p. 7.

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력사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622.

사사전」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명쾌하다.

종전의 모든 편사학들은 노예소유자나 봉건량반 또는 지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역사적과정을 사회의 물질적부의 생산의 역사와 분리시켜 고찰하였으며 사물 발전의 객관적법칙을 부인하고 역사를 우연적사실로 엮어진것으로 보았으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역사적사실을 외곡하였다. 이리하여 그것은 과학으로 될수 없었다.⁹⁾

맑스-레닌주의 편사학-역사학은 사회발전의 일반적법칙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역사적유물론을 방법론으로 삼는다. 맑스-레닌주의적력사학은 인류 역사를 무엇보다 먼저 사회적생산의 발전에 의한 사회제도의 합법칙적교체과정으로 보며 인민대중을 역사의 창조자로 규정하고 계급사회이후의 사회력사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을 계급투쟁이라고 본다.¹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이 도입되기 이전의 모든 역사학은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정권이 수립된 직후 북한의 역사가에게 주어진 사명은 김일성이 이룩한 맑스-레닌주의적 역사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반동적인 봉건지배계급과 외국침략자들이 저질른 외곡과 날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며 과학적법칙에 따라 우리 인민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것”¹¹⁾이었다.

9) 위의 책.

10) 위의 책.

11) 박인근, “론평: ‘갑오경장의 역사적 전제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역사과학」, 1964년 3호, p. 52.

이처럼 북한에서의 역사학은 그 역할과 성격, 방법론 등에 있어 우리와 매우 상이하다. 그 결과 역사학 분야에 있어 남북한간에는 연구대상과 주제, 연구업적 자체에 상당한 갭이 존재한다.

분단현실이 빚어낸 이런 ‘역사의 분단’은 민족의 숙원이자 이 시대의 最高善인 통일과업을 풀어나감에 있어 통일된 민족사 정립이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일된 민족사 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역사서술 중 어떤 측면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그 보다는 북한의 역사 연구 현황이나 인식체계, 그 특징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역사연구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뜻과 취지는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를 무조건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상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에서는 과연 겨레의 역사가 어떻게 이해되고 서술되고 있는가를 조명해 보는 데 있다.

우리 역사를 서술한 북한의 역사서 역시 우리 민족사에 대한 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뿐더러 민족구성원의 상당 수를 차지하는 북한주민에게 지금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북한의 역사서들이 우리 일반대중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는 실정이다.¹²⁾ 북한의 역사서에 대한 해제

12) 본 연구의 해제대상인 「조선전사」도 1988년에 청년사에 의해 영인되어 출간

작업은 전자의 이유 때문에 당위성을 가지며 후자의 이유에 비추어 일반대중의 객관적 이해를 돕는 실용성이 있다.

그렇다면 많은 북한의 역사서 가운데 어떤 책에 대한 해제 작업이 북한의 민족사 인식을 조명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전사」¹³⁾는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79년부터 1982년까지 4년간에 걸쳐 우리 역사를 총 33권으로 편찬한 것으로 여기에는 북한 역사 학계가 그 동안 이룩한 연구성과가 총정리되어 있다. 「전사」는 그 ‘발간사’에 따르면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회발전의 모든 단계를 거쳐오면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온 선조들의 슬기로운 역사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체계화하여 서술”¹⁴⁾한 책이다. 따라서 「전사」 자체는 우리 민족사를 서술한 북한의 역사서를 대표하며 「전사」의 내용은 우리 역사의 해석을 둘러싼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한다.¹⁵⁾ 본 연구는 이같은 성격을 가진 「전사」의 해제를 통해 북한의 민족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의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했다.

된 바 있다.

13)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사」로 약칭한다.

1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pp. 3~4.

15) 이 때문에 「전사」의 각 권에는 필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解題方法

‘해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책의 저자, 저작의 유래, 내용의 대개, 卷數, 출판 연월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¹⁶⁾인데, 책을 해제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독자들에게 그 책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식의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한다면 어떤 형식의 해제가 독자들에게 가장 유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으로 된다.

해제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책의 내용을 章節別로 요약하여 소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章節에 흩어져 있지만 연계되는 내용을 취합하여 주제별로 묶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을 「전사」에 적용하는 경우 총 14,38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전사」가 담고 있는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으나 해제 자체가 지나치게 평면적이라서 「전사」 전체의 특징이나 각 권의 내용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후자의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전사」 전체에 관통해 있는 특징의 주제나 표현되어 있는 총체적 성격의 역사인식에 대한 이해를 용이케 하는 것이지만 각 시대사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방

16)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9), p. 3674.

법이 가진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時系列的으로 분류된 「전사」의 중심내용을 요약·소개하면서도 특정의 주제가 通卷的으로 어떻게 관철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나는 민족사를 보는 북한학계의 관점을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정리하면서 「전사」에 나타난 역사인식상의 특징을 규명하는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북한 역사학의 변화과정은 북한사회의 정치투쟁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그 변화과정은 유일사상체제로서 주체사상이 전면화되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양 시기의 역사연구들을 연구사적 관점에서 일별할 때 주목되는 점은 앞 시기에 발표된 연구들은 「전사」를 비롯한 후기의 연구들과는 다른 원칙하에 서술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부분이 북한학계에 의해서 스스로 폐기되거나 수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 역사학의 변화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양 시기 연구들의 차별성을 추출하기 위해 상호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전사」 이전에 발간된 여러 역사서의 내용도 참고하였다. 설명의 편의상 먼저 「전사」 이전에 출간된 북한의 역사서 중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각 시대에 대한 시기별 연구경향을 간략히 훑어보고 이어 「전사」 가운데 해당 부분의 서술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각 시대사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북한학계의 기본시각이 각 시대에 관한 「전사」의 서술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

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시각이란 주체사관을 의미한다. 「전사」는 북한의 가장 공식적인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의 역사서술은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주체사관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사관의 일반적 원리를 구체적 역사서술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전사」는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우리 역사를 서술한 북한 역사서의 결정판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전사」의 해제이긴 하지만 「전사」의 내용 전체에 관한 검토는 필자의 능력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전사」의 각 권 내용 가운데 철학, 사상, 언어학, 문학 등의 변천사를 다룬 문화편은 특히 그러했다. 북한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평가는 북한 역사연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지적된다. 북한에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연구도 당 사상사업의 일환이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 복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주로 유산의 예술성 평가에 치중하는 남한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해제대상에서 「전사」의 문화편을 제외한 것은 이같은 필자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위의 두 가지 점과 문화편이 별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7) 안병우, “민족문화유산 평가의 기준과 내용,”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I」(서울: 한길사, 1990), p. 43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시대별로 「전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하되 주제별 구분에 따른 서술분량에도 유의하는 量的 분석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사에만 적용하였다. 예컨대 「전사」에서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삼국시대사나 고려사, ‘리조사’의 서술에서 그에 대한 서술분량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항일무장투쟁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항일무장투쟁사’의 서술은 거의 전부가 반침략투쟁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1982년에 완간된 「전사」는 그 후에 이루어진 유물·유적발굴에 따라 1991년부터 그 개정판이 나오기 시작하여 현재 ‘발해 및 후기신라사’까지 다룬 5권이 출간되어 있다. 아직 完刊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의 해제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前版에 비해 개정판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거나 前版에 대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판의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끝으로 어떤 책의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압축하고 있는 것은 그 책의 목차이다. 북한 역사서의 목차는 우리 쪽의 그릇과 형식은 같지만 특이한 면도 없지 않다. 우리 쪽의 경우에는 책의 목차가 그 章節의 내용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로 붙여지기 때문에 다소 간결한 편이나 북한의 경우는 章節의 제목이 설명형식이어서 우리보다 목차 자체가 긴 편인데, 이것의 장점은 그 목차만 보더라도 책의 내용을 개략

적으로 알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본 연구는 「전사」 33권의 목차 가운데 節단위 이상만을 취합하여 부록으로 묶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시기구분은 북한의 구분을 그대로 따랐고 編名도 북한의 것을 사용하였다.

第 II 章 北韓 歷史學의 發展過程과 「조선전사」

1. 北韓 歷史學의 發展過程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학문이 정치적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 전쟁 후 본격화된 북한의 역사연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정치·사상적 과제를 직접 반영하면서 전개되었다.

북한에서 역사연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발전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세 시기 정도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과정 및 정치·사상적 변화에 대한 구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제1기는 해방에서 1952년 무렵까지로서 맑스-레닌주의라는 일반적 이념틀로 개별 연구를 엮어내던 시기였으며 그 연구수준도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시기였다. 제2기는 1952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로서 특히 1955년 12월의 주체확립에 대한 김일성의 연설과 1956년 3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본격화된다. 이 시기는 ‘교조주의’와 ‘수정주의’, ‘허무주의’와 ‘복고주의’가 격렬한 비판을 받고 역사연구에서 ‘주체’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제3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는 시기로 주체사상이 체계화, 전면화함에 따라 역사가 주체사관에 의해 다시 정리되는 시기이다.

가. 第1期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한국사 연구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0월2일의 '내각결정 11호'에 의해 '조선력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될 정도로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해방 당시 북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역사가자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해방 직후 북한 역사학계가 당면한 과제는 하루속히 연구기지를 마련하고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조선력사편찬위원회는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¹⁾

북한에서 역사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편찬에 대한 북한정권의 관심이 컸다는 점, 특히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²⁾ 이는 내각결정 11호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가 이 위원회의 기본과제로 "정치적 현실의 요청에 따라 최근세사를 1949년 3월말까지, 개괄적인 간이통사를 동년 12월말까지 공간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1949년 1월14일자 '내각지시 제8호'는 력사편찬위원회

1) 초기의 북한 역사학계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한 인물들은 대개 남한에서 월북한 역사가자들이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광린, "북한의 역사학," 「동아연구」, 제16집(1988), pp. 37~64; 북한연구소 편, 「조선사 비판」(서울: 북한연구소, 1978), 제1장 제2절; "좌담: 북한에서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1988년 겨울호 참조.

2) 이윤상, "근현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서울: 한길사, 1990), p. 13.

의 기본과제로 식민사관의 극복, 유물사관의 역사법칙에 따른 서술, 사회적 생산기구의 성격과 생성발전 및 轉變관계를 과학적으로 구명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³⁾ 이에 따라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 역사학계는 각종 역사교재의 편찬 및 맑스-레닌주의의 고전학습을 중요한 임무로 삼고 소련학계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정권수립 초기에 북한이 사회주의 중주국으로서의 소련을 모범으로 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학계에서는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구호가 제창되었고, 「쏘련공산당 력사」 「레닌주의 제문제」 「블쉐위크」 「력사 제문제」 등 소련의 과학이론잡지들과 교과서, 단행본들이 대거 번역되어 소개되었다.⁴⁾ 대체로 이 점은 당시의 북한 역사학계가 사적 유물론을 역사연구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진적인 연구를 수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역사 연구분야 가운데서는 소위 ‘민족해방투쟁사’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는 북한정권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왔은 나라인가, 이 나라를 되찾기

3) 북한 역사학계가 간행하고 있는 학술잡지 「력사제문제」 5집(1949)에는 내각 결정 제11호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와 내각수상이 편찬위원회에 하달한 ‘조선력사편찬 위원회의 조직 및 기본과업에 관하여’라는 문건이 수록되어 있다.

4) 김석형, “8·15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6호. 이 글은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에도 실려 있다.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피흘려 싸워 왔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⁵⁾ 그리하여 역사편찬위원회가 그 사업에 들어간 이래 최초로 1949년에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출간된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김일성대학 개교이래 이 학교의 교재로 쓰이게 된다.⁶⁾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기 직전인 19세기 후반부터 해방 직후까지를 서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을 쓴 필자들은 백남운, 박시형, 유문화, 김승화, 김광진, 김경인, 김두용, 최창익, F.샤브시나 등으로 특히 해방 이후를 蘇聯人 샤브시나가 집필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총 438쪽에 달하는 이 책에서 필자들은 “유일한 과학적력사관인 맑스-레닌주의의 방법론에 입각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술과 운동, 사건의 평가에 있어서는 필자들의 독립적인 견해가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어 통일적인 관점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이 책이 통일된 관점, 노선에 입각하여 과거의 투쟁사를 평가하고 있지 않는 것은 당시의 북한 정치정세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당시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계열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국내파·연안파·소련파 등 다양한 그룹을 포괄하고 있었는데, 이들간에는 운동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상·노선 차

5) “좌담: 북한에서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p. 10.

6) 정용욱,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비교강의(근현대편)」(서울: 일송정, 1989), p. 25.

이가 적지 않았으나 그것이 적대적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고 있었다. 이 시기의 북한 역사학계는 사적 유물론을 역사 연구의 일반적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것에 입각한 우리나라 역사서술체계는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김일성세력이 건국·건당·건군 사업을 주도하였던 데 비해 역사학계를 주도하던 사람은 최창익·리청원·백남운 등 김일성계열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좌익인텔리들이었다.⁷⁾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당시 북한 역사학계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서는 사상단체에 대한 평가, 항일무장투쟁과 독립동맹에 대한 평가, 조선공산당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평가, 분과주의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당이 정치사업에 힘쓰는 동안 당내에 발호한 종파분자들의 사상적 해독이 끼친 영향의 결과”라 하여 이후에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⁸⁾

이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간행을 제외하면 이 시기 북한 역사학계에 주어진 기본과업 중의 하나인 ‘최근세사’와 ‘통사’의 출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록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한다 해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았고 또 연구축적이 적었으므로 뜻대로 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⁹⁾ 그

7) 도진순,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추이와 쟁점,”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I」, pp. 210~211.

8) 정용욱,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 p. 26.

9) 이광린, “북한의 역사학,” p. 40.

러나 이와는 달리 기본과업 중의 하나로서 “조선력사에 관한 개별적문제의 연구발표토론을 위하여 기관지 「력사제문제」를 출판한다”는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총 18집을 간행하게 된다.¹⁰⁾

나. 第2期

소련으로부터 배우자는 학계의 기본노선은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정되기 시작했다. 1952년 12월15일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라는 長文의 보고를 통해 “맑스-레닌주의교양을 강화하지는것은---당원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적 사상관점과 방법을 체득하여 그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할줄 알게 하며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정세를 분석하고 그 현재를 옳게 파악할뿐아니라 장래까지도 예견할줄 알게 하자는 것”임에도 “우리의 사상사업은 아직까지도 형식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남의것은 다 좋고 자기것은 다 시원치 않다고 보는 폐단까지 있다”고 질타하면서 사대주의·교조주의를 비판하였다.¹¹⁾ 이 제5차 전원회의는 이후 역사학계에서 “당의 조직 및 사상사업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특수적으로는 우리

10) 1948년에 4집, 49년에 10집, 50년 5월까지 4집이 간행되었다.

11) 김일성, “당의 조직적사상적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27.

나라 편사학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 이 보고의 내용은 당성 강화와 당의 통일단결, 종파주의의 극복, 교조주의 및 형식주의 사업작풍의 퇴치, 우리 역사 특히 ‘민족해방투쟁’과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연구의 강조 등으로 요약된다. 이로부터 맑스-레닌주의 원리와 소련의 모범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실에 적합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이 강조된다.

한편 해방 직후 북한의 역사연구는 정부차원의 지원 속에 이루어졌지만 연구진의 부족과 연구체제의 미비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은 연구조직을 개편하였다. 즉 전쟁 중이던 1952년에 력사편찬위원회를 해체하고 ‘조선력사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개편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여러 연구소간의, 그리고 행정기관과 연구소간의 협력체제없이 진행된 결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1952년 10월에 백남운을 원장으로 한 ‘과학원’을 창설하고 그 산하에 기존의 력사연구소를 흡수시키는 한편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경제법학연구소’ 등을 새로 설립하였다. 또한 력사연구소 내에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근대 및 현대사 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이 두 차례의 조직개편으로 북한에서는 역

12) 김석형, “8·15해방 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6호.

사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때부터 력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자들간에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토론내용이 실린 「력사과학」이란 학술지가 1955년부터 1967년까지 꾸준히 간행된다.¹³⁾ 북한학계의 학문적 업적이 크게 이루어지는 기간은 바로 이 제2시기이다. 력사연구소는 1965년 1월 「력사과학」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자체 내에서 이룩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자찬하고 있다.

〈력사과학〉은 당이 제시한 정확한 과학정책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 력사과학과 력사학계의 발전을 위하여 적지않은 공헌을 하였다. 〈력사과학〉은 자기의 지상을 통하여 조선력사를 맑스-레닌주의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체계화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 력사학에서 공백으로 되어있었거나 거의 연구되지 못하였던 원시사회, 고대국가형성에 대한 문제, 삼국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문제, 우리 나라 봉건사회에서의 토지소유제도의 성격에 관한 문제, 봉건사회 태내에서 자본주의발생에 대한 문제 등 우리 나라 고대, 중세력사의 체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가일층 심화되었다.¹⁴⁾

이 시기에 「력사과학」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면¹⁵⁾ 고조선의

13) 「력사과학」은 간행 첫 해에는 월간이었으나 56년부터 67년까지는 격월간이었다. 68년부터 76년까지는 부정기적으로 6호밖에 간행되지 못하였고 77년에 중단되었지만 계간으로 바뀌었다.

14) 「력사과학」, 1965년 1호.

15) 「력사과학」의 자세한 목차는 「역사비평」 1989년 봄호와 진단학회 편, 「북한의 고대사연구」(서울: 일조각, 1991)에 실려 있다.

위치와 그 문화, 삼국시기 사회·경제구성의 성격, 노예소유자 사회 시기, 봉건시대의 토지소유관계, ‘부르조아민족운동’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권수립 직후 내각수상이 력사편찬위원회에 하달한 기본과업 중의 하나인 ‘통사’의 간행이 이루어진 것도 이 시기이다. 「조선통사」의 상권이 1956년에, 그 하권이 1958년에 간행된 것이다. 이 「조선통사(상)」은 북한에서 공식 출간된 최초의 통사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당시까지 대립되는 학설이 분분함에 따라 定說을 내세우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예소유자사회의 존재여부 문제를 유보상태로 두는가 하면 봉건사회로의 이행과정 서술도 과학적 논거가 빈약해 이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많은 결함이 있었다. 따라서 1962년에 그 상권의 개정판이 간행되었다.¹⁶⁾

16) 개정판의 서술대상 시기는 원시사회에서 1860년대까지로 전체분량이 1956년판의 2배가 되는 850쪽에 달한다. 개정판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를 기원전 2천년 말기부터 1천년기 중엽으로 보고 있고, 철기시대가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대종족들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발생·발전한 것이며, 철기의 사용이 원시공동체 사회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고대국가의 형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5~4세기에 노예소유자적 국가로 존재했다고 하는 한편, 발해를 한국사에 편입시켜 신라와 대등한 지위에까지 올려놓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 수립을 고려에서 찾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사회를 1956년판에서는 ‘농업의 황폐와 공업·상업의 침체’라는 제목하에 서술하여 소극적·부정적으로 다루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자본주의맹아의 발생’이라 하여 적극적·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까지 광업 및 일부 수공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맹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과학원 산하에 있던 력사연구소는 1964년에 다시 한번 개편되었다. 북한은 사회과학 관계 연구기관들의 협조강화와 사회과학부문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목적으로 ‘사회과학원’을 창설하고 그 산하에 력사연구소를 포함한 9개의 연구소를 설치했다. 사회과학원 산하 각 연구소에서는 기관지를 발행하였는데, 역사학 관계 연구지로서 「력사과학」을 비롯해 「고고민속」 「조선고고연구」 「경제연구」 「철학연구」 등이 간행되었다.¹⁷⁾

북한에서의 1950년대는 한국전쟁의 수행과 戰後 사회주의 건설을 두고 심각한 사상투쟁과 숙청이 진행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역사학계도 당내 종파투쟁의 일환으로 극심한 사상투쟁을 겪게 되며 또 이 과정을 통해 김일성 중심의 혁명전통이 수립된다. 특히 ‘반종파투쟁’이 본격화되는 1950년대 중반은 전후북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그 지도노선을 둘러싸고 노동당 내에서 치열한 노선투쟁이 벌어지는 때이다.

이 시기 당내 지도노선의 확립문제는 무엇보다 반종파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 사상사업 특히 주체의 확립문제와 불가피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1955년 12월28일 당 선전 선동원들 앞에서 한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

17) 박태균,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한길사 간, 「한국사 23」 (서울: 한길사, 1994), pp. 299~300.

를 확립할데 대하여”에서 以前의 당 사상사업분야에서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 부분에서 주체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¹⁸⁾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1952년의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주체의 확립문제가 당 사상사업분야의 중심적인 과업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당내의 의견대립이 본격화되는 1955년과 1956년이다. 1956년의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이 현실적으로 확립되고, 8월의 ‘종파사건’¹⁹⁾을 거치면서 박창옥, 최창익 등의 소련파, 연안파가 교조주의, 수정주의로 그리고 그 뿌리인 종파주의로 전면적인 비판을 받고 숙청된다.

이러한 반종파투쟁과 주체확립을 위한 사상투쟁의 과정에서 나온 결의들과 그 정신은 역사학계의 연구동향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이 시기 「력사과학」의 권두언에서 “종파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의 불순한 사상요소들과의 견결한 투쟁과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의 고수”가 무수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사학계는 제3차 당대회에서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사’, 특히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사업 및 자료수집 사업

18)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467~495.

19) ‘8월종파사건’은 1950년대 초부터 사회주의건설 방향을 놓고 북한내부에서 벌어졌던 노선투쟁에서 패배한 최창익, 박창옥 등이 소련내의 수정주의적 경향의 영향을 받아 김일성의 노선에 반기를 든 사건을 말한다.

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적 여독을 극복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과업으로 제시됨에 따라 ‘민족해방투쟁사’ 정리를 과제로 하게 된다.²⁰⁾

‘민족해방투쟁사’와 당의 혁명전통을 보다 깊이있게 연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담할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북한은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당 력사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리고 1957년 4월 노동당은 ‘당 력사연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당 력사연구소에 집중시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당 역사연구와 자료수집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1959년에는 52년에 이어 2차로 당내에서 직접 조사단을 조직하여 북한에서 이른바 ‘혁명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항일무장투쟁 지역’에 대한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1964년에는 최초의 당사인 「조

20)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가운데 당 사상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 남아있는 교조주의의 엄중한 표현의 하나는 조선문제, 특히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는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일군들과 당원들은 다른 나라의 혁명력사는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혁명력사는 잘 모르고있습니다.---지난 날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로동운동의 력사, 민족해방투쟁의 력사에 대한 연구사업이 잘되지 않고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와 편찬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의 로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경험을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조선혁명을 옹기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진 로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의 력사를 깊이 연구하여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고귀한 경험과 교훈으로 당원들을 교양하여야 합니다.---우리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우리 혁명운동의 력사를 연구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90~291.

선로동당력사교재」가 간행되었다.²¹⁾

사상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투쟁은 역사학계의 경우 당의 혁명전통을 수립함과 아울러 역사연구의 방법론적 원칙인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58년 5월과 59년 12월에 북한의 사회과학부문 학자들이 소집되어 일련의 역사문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교조주의와 허무주의적 편향이 지적되면서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킬 것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당성’이란 노동계급과 인민의 이익에 봉사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에 헌신하는 것을 이른다. 그리고 이는 곧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뜻한다. 김일성은 조선혁명에 대한 충실성, 즉 조선혁명의 이익을 고수하며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주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역사적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는 것을 말하며 노동계급의 ‘당성’, 혁명의 이익을 구현하는 정확한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확립을 통해 당성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 맑스-레닌주의의 진수이며 그것을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창조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21) 박태균,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p. 300.

북한의 역사가들은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역사주의 원칙’이란 사회 역사 현상들을 그 발생, 발전의 구체적 조건들과의 연관에서 고찰하는 것을 이른다.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도식화를 반대하는 것이며 역사서술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변증법적인 태도와 사료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성의 원칙’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속에서 ‘역사주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 사건들과 현상들을 노동계급적 입장과 관점에 서서 연구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당성’, 계급성을 떠나면 자아를 가려보지 못하고 역사발전의 한 측면을 일면적으로 과장하고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이 원칙을 관철하는 데에서 ‘주체성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강조한다.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설 때만 자기 나라의 것을 덮어놓고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경향과 큰 나라의 것을 무조건 본따며 환상적으로 대하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 그리고 옛날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되살리려는 복고주의적 경향을 다같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당성의 원칙’과 ‘역사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서 중심문제가 된 것은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주체확립의 문제였다.²²⁾

22) 정용욱,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 pp. 30~31.

1958년에 나온 리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이다. 이 책은 그 서문에 의하면 “해방전 노동운동에 미친 분파의 해독을 숨기고, 김일성을 선두로 하는 건설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형성된 진정한 혁명전통을 외곡, 과소평가, 말살”한 최창익 등 반당종파분자들의 역사왜곡과 해독을 비판하기 위해 쓰여졌다. 즉 이 저서는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 나타난 최창익의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다.

한편 1958년에 간행된 「조선통사(하)」는 “과학적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서술한 최초의 근대 및 현대의 통사”이다. 이 책은 원래 상권에 이어 1956년에 출간될 예정이었으나 반종파투쟁의 여파로 1958년에야 출간되었다. 이 책은 발간 직후 “맑스-레닌주의 편사학의 발전력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었으나 “근대 이후 민족해방운동에 관련된 일련의 사변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저런 편향을 범하는 부분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50년대 후반을 경과하면서 북한에서의 사상투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에 따라 북한사회의 새로운 운영원리가 자리잡아 나가기 시작한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 이르러 ‘로동당’은 김일성계열에 의해 확고하게 장악되고, 맑스-레닌주의라는 일반적 원리는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이라는 구체적

기준과 결합하여 북한사회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된다.²³⁾ 따라서 북한의 역사학계에서도 “조선력사의 맑스-레닌주의적 체계화에서 제기되는 방향적인 문제들”과 방법론적 원칙들, 중요한 이론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리의 방향이 대체적으로 합의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방향적인 문제들’과 방법론적 원칙이 확고해진 위에서 역사연구의 구체적인 방향과 임무가 제시된다. 그것은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근로자들을 적극 교양하는 것이었다. 1961년 조선노동당 4차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이후 역사연구의 구체적인 과업이 되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의 혁명적개조와 경제, 문화 건설에서 이미 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이론적으로 개괄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선전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전통과 민족문화의 유산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때에 해명하여 인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²⁴⁾

이렇게 해서 이 시기 이후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연구가

23) 박태균,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pp. 297~298.

2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32.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전근대 인민들의 애국적 전통에 대한 연구’와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진행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역사연구의 구체적 과업으로 이러한 애국주의와 혁명전통이 강조되는 것은 사회주의건설이 고조되면서 ‘인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교양사업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애국주의 교양과 계급교양, 인민의 민족성을 높일 것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과학원 력사연구소는 1958년의 당 대표자회의가 제시한 과업에 의거하여 1959년초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연구’,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및 애국전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에 관한 연구’라는 4가지 방침을 확정하였다.

1950년대 말에 이르러 북한내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역사학계는 이 4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혁명전통’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리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조선근대혁명운동사」, 김일성과 함께 항일 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회상기」 등이 출간되었다.

‘민족문화’와 관련해서는 고전서들의 번역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서는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구분 및 사회구성체에 대한 연구와 조선후기의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²⁵⁾

다. 第3期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사상, 선전사업과 문화사업 분야 전반에서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이른바 미국의 '대한반도 공세전략'에 대응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여야 했다. 북한은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병행하는 '병진노선'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당의 조직 및 사상적 강화를 내세웠다. 이러한 사상사업은 1966년 10월의 당 대표자회에서도 표방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기된 것은 1967년 5월의 당 중앙위 4기 15차 전원회의였다.²⁶⁾ 전원회의는 '미국의 사상·문화적 공세'에 따라 당내에 '수정주의적인 사상조류'가 침습해 들어오고 있다고 규정하고, 그 해결책으로 '혁명적 조치'를 단행했다. '혁명적 조치'란 '부르조아 분자' 및 '수정주의 분자'의 숙청을 의미했는데, 이 숙청작업으로 김창만, 박금철, 이효순 등이 실각했다. 특히 김창만은 오랫동안 사상·선전분야의 당무를 관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이 분야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²⁷⁾ 이

25) 박태균,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pp. 303~304.

26) 도진순, "근현대사 시기구분 논의,"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p. 57.

27) 세칭 '갑산파의 숙청'이라 불리는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3), pp. 297~298 참조.

후에 북한에서는 이 과정이 “부르조아 및 수정주의 분자들이 뿌려놓은 반당반혁명적사상여독을 청산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정리되고 있다.²⁸⁾

이 무렵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력사과학」, 「고고민속」, 「경제연구」 등의 학술지들의 발간이 뜸해지거나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북한학계가 사상사업의 변화와 관련해 일련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사상사업의 목적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주된 방향은 김일성의 유일사상과 혁명역사 교양에 있었다. 특히 종래의 김일성 중심의 혁명활동에 대한 연구가 덕성교양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그의 혁명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되었으며 그 유일성이 크게 강조된다.²⁹⁾

북한에서는 1970년의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의 승리’가 선언되고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1974년에는 김정일의 주도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과업이 제시되기에 이른다. 그 결과 역사학계에서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역사원리 즉 ‘주체사관’에 의해 한국사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재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정지작업으로서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특히

28) 전영률·김창호·강석희, 「조선통사(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649.

29) 정용욱, “남북한 역사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의 특징,” p. 37.

「김일성동지락전」류의 傳記들과 주체사상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자료들이 수집되어 체계화된다. 이에 따라 제일 먼저 ‘항일무장투쟁사’의 내용과 의의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새롭게 평가되어 그 연구성과들이 1979년에 총 10권의 「항일무장투쟁」으로 집약된다. 그리고 1979년부터 1982년에 걸쳐 북한 역사학계가 총동원되어 우리 역사 전체를 서술한 「조선전사」 33권이 편찬되기에 이른다.

「조선전사」는 “역사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주체사상에 의거하여 우리 역사를 서술한 것으로서 계급투쟁, 반침략투쟁, 자연개조투쟁, 인간개조투쟁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성격에 대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조선전사〉에서는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회발전의 모든 단계를 거쳐오면서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온 선조들의 슬기로운 역사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체계화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로부터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온 현 시대, 주체시대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다.³⁰⁾

특히 이 책의 현대편은 “우리 식의 새로운 서술원칙과 방

30) “조선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총서 〈조선전사〉-〈조선전사〉 1~15권 출판에 즈음하여-,” 「역사과학」, 1981년 1호;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과 창조역사총서 〈조선전사〉-〈조선전사〉 16~33권 출판에 즈음하여-,” 「역사과학」, 1982년 4호.

법에 의하여 집필편찬되었으며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현대력사를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체계화한 역사총서”로서 그것의 출판은 당사상사업과 역사과학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自評하고 있다.

「조선전사」의 출간을 전후하여 이것에 기초한 단행본의 역사서들도 출간된다. 「조선노동당력사」(1979), 「현대조선력사」(1983), 「근대조선력사」(1984), 「조선통사(하)」(1987)가 그것이다. 이 책들은 어느 것이나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역사원리를 역사적 사실들의 평가를 위한 확고한 지침, 기준으로 삼고---근로인민대중이 주체가 되고 동력이 되어 창조되고 발전되어온 근로인민대중 중심의 역사로 서술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자주성에 대한 요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매개 사건들을 평가하고 긍정과 부정, 진보성과 반동성을 규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³¹⁾ 따라서 이 책들에 나타난 역사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물사관의 발전적 계승이라 할 수 있는³²⁾ 소위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31) 인용된 부분은 김한길, 「현대조선력사」(평양: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3)의 〈머릿말〉에서 따 온 것이다. 이 책을 1988년 서울의 일송정 출판사가 원문을 전재하여 같은 제목하에 출간하였는데, 인용된 부분은 일송정 출판사가 간행한 책의 13쪽이다.

32) 김남식, “주체사관은 유물사관의 발전적 계승이다,” 「역사비평」, 1991년 가을호, pp. 35~47 참조.

2. 主體史觀

북한은 주체사상이 물질이나 정신이 아닌 “사람을 철학적이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고 그 기초인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³⁾ 따라서 주체사상 속의 인간은 사회의 물질적 토대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인 유물론 속의 인간과는 달리 모든 것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따르면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자주성이란 인간이 다른 생명물질과는 달리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회적 속성이며, 창조성이란 것은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이며, 의식성이란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속성으로 설명된다. 주체사상은 이런 인간관에 입각하여 자연과 사회를 사람에 의한 개조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런 개조과정을 통해서 사람 자체의 지위와 역할도 높아진다고 주장한다.³⁴⁾

33)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58~141.

34) 위의 책, pp. 171~246.

이와 같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는 북한의 역사관인 ‘사회역사원리’의 기본 토대를 이룬다. 북한의 역사관도 유물사관처럼 역사는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사회역사원리가 도출된다.³⁵⁾

여기서 말하는 인민대중이란 “사람집단 일반이 아니라 사회의 존립과 진보를 보장하는 특정한 사회집단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계급적 구성은 사회역사 발전과정에 따라 변화된다. 즉 노예소유자사회에서는 노예와 평민이, 봉건사회에서는 농노와 농민·수공업자들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계급과 농민이 인민대중의 기본을 이룬다. 이런 논리로부터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각이한 모든 시기에 사회적 연속과 연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며 자기의 로동활동이나 실천투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집단”으로 정의된다.³⁶⁾

35)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28~344.

36) 위의 책, p. 117.

결국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이런 인민대중이 자연의 구속과 모든 사회적 예측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다. 단 이러한 투쟁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신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현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수령의 령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대중은 그 자체로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운명개척의 길을 알지 못하며 자기의 생활적요구를 실현하려는 욕망과 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현실로 전변시킬 방도를 알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수령의 존재는 당과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을 이끌어내는 專一體로 규정된다. 다음의 글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왜 ‘수령의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라는것은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나 스스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은 개별적성원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은 조직되고 단결된 집단이다. 인민대중은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 때에만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37) 위의 책, p. 203.

현실적으로 개별적성원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처지와 리해관계, 지향과 요구를 달리하는 여러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렇기때문에 그에 속하는 계급과 계층들, 개별적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에 묶어세우는 올바른 지도를 떠나서 인민대중은 집단으로서의 전일성과 조직성을 가질수 없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을 때에만 그 개별적성원들과 계층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 통일적으로 활동하는 공고한 집단으로 될수 있으며 조직되고 단결된 전일적인 대오로 될수 있다. 올바른 지도는 결국 인민대중에게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조직성과 전일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력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게 한다.³⁸⁾

이처럼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현실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대중이 아니라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대중으로서 주동적 작용과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지도와 대중이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거에서 현대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은 노동당과 수령의 영도와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른바 ‘수령·당·인민의 삼위일체 원칙’이 도출된다. 이 삼위일체의 원칙에 따라 주체사관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시점을 “노동계급을 비롯한 대중”이 ‘수령의 지도’와 결합되는 시기로 설정한다. 즉 주체사관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인간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이 가장 고양되어 있는 사회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속성을 발현하기에는 아

38) 위의 책, p. 200, 202.

직 많은 질곡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질곡을 없애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전개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런 투쟁과정은 ‘수령의 지도’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령이라는 존재가 현대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북한의 역사학계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을 지도하여 소위 ‘타도제국주의동맹’³⁹⁾을 결성하고 혁명활동을 개시했다는 1926년을 현대사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은 다음의 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현대력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밑에 참다운 투쟁강령과 조직을 가지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창조되게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출현과 혁명활동의 개시는 현대사의 서막을 올리는 시초로 되게된다. 우리 인민의 현대력사는 현시대, 주체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개척되었으며 빛나게 되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의 개시와 ‘ㄷ, ㄷ’의 결성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의 새 시원을 열어놓은 일대 사변이었으며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개척한 출발점이었다. 이로부터 <조선전사>에서는 1926년 ‘ㄷ, ㄷ’의 결성을 기점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사로부터 현대사를 서술하였다.⁴⁰⁾

39) 북한에서는 이것을 약자로 ‘ㄷ, ㄷ’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40)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투쟁과 창조의 력사총서 -〈조선전사〉 16~33권의 출판에 즈음하여-,” 『력사과학』, 1982년 4호.

한편 주체사관에서는 역사적 현상과 사물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주체성의 원칙’을 먼저 들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의 고수는 1950년대 이후 북한 역사학계의 일관된 주장이었으나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당성’과 ‘역사주의 원칙’보다 ‘주체성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주체성의 원칙’이란 “력사연구에서 자기 나라의 혁명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으로 이는 개개 나라에서 혁명의 주체는 그 나라의 인민대중이며 자기 나라의 혁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로부터 생성된 원칙이다. 그리고 역사발전은 자주성의 고양과정, 승리와 진보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성의 원칙’이 ‘역사주의 원칙’과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역사연구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외세의 침략에 대응해 민족을 지키려는 ‘반침략투쟁’과 계급적 착취 및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대중의 ‘반봉건투쟁’이다. 즉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의 고대, 중세의 투쟁력사는 반침략, 조국방위의 력사이며, 근대 이후의 투쟁력사는 주로 반제민족해방의 력사”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역사서들이 이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3. 「조선전사」의 時代區分과 構成體系

가. 「조선전사」의 時代區分

“역사연구의 모든 노력은 시대구분에 귀착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대구분은 역사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따라서 근대 역사학이 성립한 이래 시대를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대·중세·근대의 3시기 구분법,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의 경제발전 단계설, 문명사관의 순환론적 시대구분,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사적 유물론에 의거한 세계사 발전단계론 등이다.⁴¹⁾ 이러한 여러 연구방법론 중 어느 것을 한국사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사의 시대구분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남북한 역사학계는 이 문제에서 특히 큰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대구분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견해차이는 학문적으로 시대구분이라는 문제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단으로 인한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왜냐하면 시대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나 방법론, 곧 史觀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⁴²⁾ 「전사」에 나타난 시대구분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시시대; 지금으로부터 60만년 내지 40만년전부터 기원전

10세기

고 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41) 송호정, “전근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p. 14.

42) 배항섭, “왜 남북한 근현대 시기구분, 큰 차이있나,” 「역사비평」, 1991년 봄호, p. 244.

- 중 세; 기원전 1세기부터 1860년대까지
 근 대; 1860년대부터 1926년까지
 현 대; 1926년 이후

나. 「조선전사」의 構成體系

「전사」는 “인민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을 사회와 력사발전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쓰여진 것⁴³⁾으로서 연표 2권을 포함하면 총 3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1권이 원시편, 2권이 고대편, 3권에서 12권이 중세편인데 중세편은 3권이 고구려사, 4권이 백제 및 ‘전기신라사’, 5권이 발해 및 ‘후기신라사’, 6권과 7권이 고려사, 8권부터 12권이 ‘리조사’이다. 13권부터 15권까지가 근대편이고 16권부터 나머지 33권까지가 현대편으로서 현대편이 18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편은 16권에서 22권까지가 日帝下에 김일성이 벌였다고 하는 ‘항일무장투쟁사’, 23·24권이 해방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서술한 ‘민주건설사’, 25·26·27권이 한국전쟁을 다룬 ‘조국해방전쟁사’, 28권부터 33권까지가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사회를 서술한 ‘사회주의건설사’이다.

각 권의 분류, 출판년도, 쪽수, 편명, 서술대상 시기 등을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43) 「전사 1」, p. 4.

79년판 「조선전사」의 구성체계

권수	분 류	출판년도	쪽수	편 명	서 술 대 상 시 기
1	원시편	1979	360	원 시 편	구석기시대 전기~철기시대 초기(60만 내지 40만년전~기원전 6세기)
2	고대편	"	256	고 대 편	고조선, 부여, 진국(기원전 10세기~기원전 3세기)
3	중세편	"	424	고 구 려 사	기원전 3세기~7세기 중엽
4	"	"	327	백제 및 전기 신라사	기원전 1세기~7세기 중엽
5	"	"	408	발해 및 후기 신라사	7세기 중엽~10세기 초엽
6	"	"	496	고 려 사 1	고려건국~몽골침략 직전(10세기초~13세기초)
7	"	"	455	고 려 사 2	몽골침략~고려멸망(13세기초~14세기말)
8	중세편	1979	392	리 조 사 1	조선건국(14세기말)~15세기 후반
9	"	1980	441	리 조 사 2	16세기
10	"	"	360	리 조 사 3	17세기
11	"	"	407	리 조 사 4	18세기
12	"	"	435	리 조 사 5	19세기초~19세기 중엽

권수	분 류	출판년도	쪽수	편 명	서 술 대 상 시 기
13	근대편	"	425	근 대 편 1	1860년대~19세기말 (동학란까지)
14	"	"	359	근 대 편 2	19세기말~1910년(한 일합방)
15	"	"	322	근 대 편 3	20세기초~1926년
16	현대편	1981	360	항일무장투쟁사1	1926년~1931.12.
17	"	"	503	항일무장투쟁사2	1931.12.~1933년 봄
18	"	"	432	항일무장투쟁사3	1933년 봄~1936.2.
19	"	"	471	항일무장투쟁사4	1936.2.~1937.7.
20	"	"	440	항일무장투쟁사5	1937.8.~1940.8.
21	"	"	271	항일무장투쟁사6	1940.8.~1943.9.
22	"	"	527	항일무장투쟁사7	1943.9.~1945.8.
23	"	"	503	민주건설사 1	1945.8.~1947.2.
24	"	"	583	민주건설사 2	1947.2.~1950.6.
25	"	"	336	조국해방전쟁사1	1950.6.~1950.9.
26	"	"	368	조국해방전쟁사2	1950.9.~1951.5.
27	"	"	544	조국해방전쟁사3	1951.5.~1953.7.
28	"	"	479	사회주의건설사1	1953~1956
29	"	"	544	사회주의건설사2	1957~1961
30	"	1982	455	사회주의건설사3	1961~1966
31	"	"	535	사회주의건설사4	1966~1970
32	"	"	600	사회주의건설사5	1970~1977
33	"	"	568	사회주의건설사6	1978~1980

第Ⅲ章 原始社會史 및 古代史 認識

1. 原始社會史

북한의 역사학계는 우리나라 원시사회의 역사가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온 역사라고 전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정력적으로 유적 조사·발굴작업을 벌여나갔다. 그리하여 1963년 함북 옹기 굴포리의 구석기유적 발굴을 시작으로 10여 곳의 구석기시대 유적들과 수백 곳에 달하는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북한은 우리 역사가 구석기시대부터 중단없이 발전하여 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시편인 「전사 1」은 우리나라 원시사회의 역사를 원시무리 시기(구석기시대 전기 및 중기, 60만 내지 40만 년전~10만년전)와 씨족공동체사회 시기로 크게 양분한 뒤, 다시 씨족공동체사회를 초기 모계씨족사회(구석기시대 후기 및 중석기시대, 기원전 4만년~기원전 6,000년), 발전된 모계씨족사회(신석기시대, 기원전 5,000년~기원전 1,000년), 부계씨족사회(청동기시대·철기시대 초기, 기원전 2,000년~기원전 6세기)로 단계구분 하고, 이 각 단계가 합법칙성에 따라 교체하는 과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전사 1」의 원시

사회사는 원시적인 사회관계의 발생시기라고 할 수 있는 원시무리 시기로부터 씨족공동체사회가 발생하고 발전한 끝에 붕괴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은 북한의 역사관으로 볼 때 원시인들이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조적인 활동을 벌여나가는 과정, 즉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생산력이 비록 완만하게나마 발전하여 사회관계의 제변화들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계급사회로 넘어가는 조건들이 성숙되어 나갔다는 것이다.

「전사 1」의 개략적인 서술내용을 보면, 원시무리 시기의 서술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 및 중기의 유적들과 이 시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猿人 및 古人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모계씨족사회의 서술에서는 新人の 출현과 모계씨족공동체의 형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석기시대 후기 및 중석기시대에 대하여 개괄하고 있으며, 발전된 모계씨족사회의 서술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들에서 발견된 자료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생산활동과 생활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부계씨족사회의 서술에서는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 초기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관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원시공동체의 붕괴과정을 밝히고 있다.

「전사 1」의 발간에 2년 앞서 출간된 「조선고고학개요」는 1960~70년대의 유적발굴성과를 기초로 북한의 고고학을 총정리한 개설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제1편을 원시사

회, 제2편을 노예사회, 제3편을 봉건사회로 구분하고, 원시사회를 다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나누어 그때마다의 사회특성과 발전과정, 문화를 설명하고 있다.¹⁾ 그러나 「전사 1」은 유물의 재질에 따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로 구분하는 시기구분 방법을 받아들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회의 시기별 발전과정의 틀 속에서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 등의 문화성격을 논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고고학을 역사학의 하부단위로 생각하는 만큼, 「전사」의 발간을 주도한 력사연구소가 사회구성체를 시기구분의 큰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²⁾

한편, 「전사」의 간행사에서 북한의 역사학계는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한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학계가 해결하고자 노력한 과제가 인종문제, 고조선문제, 노예사회문제, 고구려사 연구와 관련된 문제, 자본주의 발생·발전과 부르조아혁명 및 부르조아개혁에 관한 문제 등임을 시사하고 있다.³⁾ 따라서 「전사 1」은 그 서문을 통해 원시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사람의 기원문제를 들고 있으며 실제 그 내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시기별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개괄하는 한

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2) 신숙정, “북한의 신석기 문화 연구 40년,” 김정배 엮음,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p. 66.

3) 「전사 1」, pp. 2~3.

편 이 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따로 부록으로 묶어두고 있다. 「전사 1」이 이처럼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과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⁴⁾ 사실 이 문제는 김일성이 역사학계에 시달한 과제의 하나이기도 했다.

역사학에서는 자본주의발생발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조선문제, 노예사회문제, 인종문제들도 해명하여야 하며 또한 실학자들도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합니다.⁵⁾

이 과제는 1963년에 시달된 것이지만 인종문제, 즉 민족의 기원과 계통을 밝히는 작업은 구석기유적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1970년대 이후에야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는 평양시 력포구역 유적, 덕천군 승리산동굴 유적, 만달리 유적, 룡곡리 유적 등지에서 인골이 발견되면서 형질인류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가능하게 된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면 북한 역사학계는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의 역사학계는 우리 민족의 기원문제를 ‘猿人-古人-新人’의 단계로 계통화하여 우리 민족의 선조를 신인 단계의 ‘승리산사람’에서 구하고 있다. 「전사 1」에 따르면

4) 「전사 1」의 서문은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으로 끝맺고 있다. “우리 나라 원시사를 서술한 <조선전사> 1(원시편)은 조선력사의 유구성과 우리 민족의 단일성을 깊이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사 1」, p. 11.

5) 김일성, “현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7」(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551.

한반도 최초의 구석기유적이라고 주장되는 상원 검은모루 유적에서는 인골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29종의 포유동물 화석이 발견되었다. 북한학계는 상원 검은모루 유적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지금으로부터 60~40만년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을 자연상태에서 갓 벗어난 猿人단계로 간주한다. 또한 이 검은모루 유적 시기의 사람들은 합법칙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古人단계, 新人단계로 진화했고, 이 사이에 문화적·혈연적 단절은 없었다고 한다.⁶⁾

북한의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시대 전기 및 중기의 유적에서 古人단계에 해당하는 ‘력포사람’ ‘덕천사람’의 뼈를, 구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에서 新人단계인 ‘승리산사람’의 뼈를 발견했다고 한다. 북한은 구석기시대 후기에 나타난 新人인 이 ‘승리산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몸구조의 진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인간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각 인종집단의 시초유형들로 분화되는 과정은 구석기시대 후기로부터 시작하지만,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일정한 지역을 포괄하는 문화적 공통성이 형성되며 족속들의 혈연계통이 뚜렷해진다고 한다.⁷⁾

6) 승리산동굴유적에서는 古人인 덕천사람의 이빨과 화석층위를 달리하여 그것보다 늦은 시기의 사람뼈 화석(아래턱 뼈)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북한학계는 덕천사람의 이빨이 발굴되기 1년전인 1972년에 출토된 후자가 그 생김새로 보아 古人보다 발전된 新人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新人을 ‘승리산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덕천사람은 약 10만년전, 승리산사람은 약 4~3만년전으로 추정되었다.

7) 「전사 1」, p. 61.

북한의 역사학계는 현대 한국인의 선조도 바로 이 때 형성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집단을 ‘조선옛류형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시대 전기의 검은모루 유적 사람이 단절없이 진화·발전하여 신석기시대의 ‘조선옛류형사람’으로 되었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즉 구석기시대 전기에 살았던 사람과 현대 한국인이 혈연적·유전적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론은 ‘조선사람의 인류학적 단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조선문화의 유구성’ ‘조선문화의 독자성’이라는 명제와 함께 고고학에서의 주체사상의 관철을 의미한다.⁸⁾ 이를 뒷받침하듯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조선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⁹⁾

우리민족의 기원에 대한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방법론은 남한의 그것과 약간 다르다. 남한의 경우 직접적인 인골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형질인류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외면적으로

8) 권오영, “원시시대의 인식체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59. 대체로 북한은 7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사람의 기원문제에 관하여 큰 관심을 보이는데, 관심을 갖던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선조를 ‘조선고 인류학적류형’으로 명명했으나 뒤에 ‘조선옛류형’으로 수정하였다. 한창균, “북한의 구석기 문화 연구 30년,” 김정배 엮음,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pp. 27~28.

9) 김일성,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83.

강조하기는 하지만, 우선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적인 연구도 뒷받침되지 못한 채 문헌적 연구, 비교언어학적 접근과 고고학적 유적·유물의 계통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형질인류학적 연구가 대중을 이룬다. 즉 古人骨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현대 한국인의 다양한 형질적 특성, 예를 들면 피부빛깔, 머리카락의 형태, 턱수염이나 눈썹 같은 외형적 특질과 얼굴, 코, 입술, 입천장, 이마, 치아, 두개골의 계측치와 혈액형, 지문 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현대 우리 민족에게는 구석기시대 사람의 형질적 특성이 면면이 계승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종족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유전집단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에도 지역적으로 거의 동일한 유전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유구성, 독자성, 단일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¹⁰⁾

그러나 신석기시대의 한반도 주민집단에 대해 남한학계는 상당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남한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구석기시대의 주민들은 빙하에 의해 멸종되었거나 빙하를 피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의 주민이 구석기시대의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즉 신석기시대의 주민은 그 계통을 분명히 알 수는 없

10) 권오영, “원시시대의 인식체계,” p. 59.

지만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빗살무늬토기가 시베리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당시 시베리아지역에 분포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古아시아(시베리아)족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조상은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곧 신석기시대의 古아시아족에 이어 등장한 청동기시대의 알타이족 계통 또는 통구스족을 겨레형성의 큰 줄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¹¹⁾

이에 대해 북한의 역사학계는 “조선사람의 선조와 그 발상지를 외곡하기 위한 제국주의 어용학자와 부르조아 반동학자들의 망설”로 몰아붙이고 있다.¹²⁾ 그리고 자신들의 연구성과에 의해 일제 어용학자들을 비롯한 ‘부르조아반동학자들’이 조작한 ‘조선민족의 혼혈기원설’은 여지없이 분쇄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의 유구성과 독자성’은 선명히 밝혀지게 되었다고 자신있게 천명하고 있다.¹³⁾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북한에서의 연구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조선사람의 독자성·유구성·단일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 남한에서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전파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연구결과는 전파론적 관점이 아닌 독자적 발생설에 의거하여 원시사회를 이해한

11) 한창균, “선사시대의 존재양태와 겨레의 기원문제,” 「역사비평」, 1991년 봄호, p. 220. 이런 外地起源說 또는 民族移動說을 대표하는 저서로는 김원룡, 「한국 고고학개설」, 제3판 (서울: 일조각, 1986) 참조.

12) 「전사 1」, p. 63.

13) 위의 책, pp. 356~360.

데서 비롯된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주체사상의 전일화와 함께 민족문화유산과 애국전통이 더욱 강조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주장은 남한학계의 연구방법론이 문화이동론을 중심으로 비교언어학적 자료와 신화전설, 원시민속 잔재 등을 그 논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로 구석기 고고학과 형질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나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한민족 기원에 대한 연구는 남한에서의 연구에 비해 연구목적이나 방법론이 뚜렷하다는 데 주의해야 한다. 뚜렷한 연구목적 때문에 우리 민족의 유구성·독자성·단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주변 종족과의 관계와 외부적 영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일종의 인종적 편견이나 인종적 우월감,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도 지리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지 않은 이상에는 순수한 단일혈통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혼혈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민족이 주위의 다른 민족에 비해 혈연적으로 복잡한 융화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질적 특성을 유지함은 사실이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과학적이라 할 수 없다.¹⁴⁾

한편 원시사회사에 관한 서술 가운데 「전사 1」의 개정판은

14) 권오영, “원시시대의 인식체계,” p. 60. 북한의 民族 單血性起源論에 대한 남한학계의 비판적 입장은 이선복, “민족 단혈성기원론의 검토,” 진단학회 편, 「북한의 고대사연구」(서울: 일조각, 1992), pp. 1~24 참조

以前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 60~40만년전으로 보았던 검은모루 유적의 연대를 약 100만년전으로 올려잡고 있다. 검은모루동굴 유적의 연대를 100만년전으로 올리면서 북한학계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견된 일련의 자료들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일대에서 검은모루유적시기이후 계속 원인이 살고있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¹⁵⁾

이전부터 북한은 검은모루 유적을 통하여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이 땅에 先史人들이 뿌리를 내리며 발전해 왔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와 같은 연대의 상향조정으로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자주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만달리동굴의 가운데 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만달사람)의 뼈를 중석기시대의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애초에는 만달리동굴 유적의 가운데층을 후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인 약 2만년전으로 잡았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중석기시대의 것이라고 그 시기를 수정한 것이다. 만달사람을 中石器人으로 설정함으로써 이제 북한학계는 중기 구석기시대 사람(덕천사람·력포사람), 후기 구석기시대 사람(승리산사람·룡곡사람·금천사람), 중석기시대 사람(만달사람)을 거쳐 신석기

1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1」, 개정판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 24.

시대의 ‘조선옛류형사람’이 형성되었다는 논리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기·중기·후기 구석기시대와 중석기시대를 잇는 선사문화의 틀을 좀 더 분명하게 체계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¹⁶⁾

셋째, 신석기시대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7,000~6,000년전으로 올렸을 뿐 아니라, 신석기 후기가 끝나는 시기도 종래보다 1,000년 가량 올려잡아 기원전 3,000년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석기 편년이 올라가 버리면 청동기시대의 상한도 자연히 소급될 것이다. 이 역시 우리 역사의 유구성과 우리 문화의 선진성을 강조하고자 한 산물로 보인다.¹⁷⁾

2. 古代史

북한학계가 고대사 연구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역사의

16) 한창균, “북한의 구석기 문화 연구 30년,” pp. 36~38.

17) 최근 북한 사회과학원에서는 소위 ‘단군릉’을 발굴하여 단군의 유골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자상자성 공명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5,011년 전의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단군이 고조선을 창건하고 도읍한 평양은 산수수려한 곳으로 검은모루유적의 주인공과 력포사람(고인), 만달사람(신인), ‘조선옛류형사람’으로 이어지는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발상지이고 첫 국가의 발생지였다는 사실이 힘있게 증명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뉘뉘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은 보고서의 말처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단군조선 이래 단일한 민족으로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살아온 것을 증명함으로써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높이고자 한 데도 뜻이 있어 보이지만, 평양이 단군조선 이래 우리 역사의 정통한 계승지임을 선언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는 듯하다. 북한의 보고서와 이에 관한 관련자료는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발굴관련자료」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83) 참조.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국 고대사가 정상적인 발전단계를 거쳐왔음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 역사의 유구성·독자성을 부각시켜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다.¹⁸⁾ 따라서 북한학계는 국가형성과 사회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에 기초하여 고조선·부여·진국이 우리 역사상 첫 노예소유자국가였으며, 그 건국시기는 고조선이 대체로 기원전 8~7세기 이전, 부여는 기원전 5세기경, 진국은 기원전 4세기 이전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역사학계가 삼국시대의 사회성격을 '봉건사회'로 규정함에 따른 자연적인 귀결인데,¹⁹⁾ 이와는 달리 남한 역사학계는 대체로 고대사회의 출발점을 삼국이 성립한 때로 보고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따르면 인류사회는 자기의 고유한 발전법칙에 의해 발전하므로 원시공동체사회가 붕괴되면서 계급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인류사회 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이다. 북한학계는 우리 역사에서 원시공동체사회는 기원전 2천년기에 시작되는 청동기시대에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는

18) 송호정, "전근대사의 시대구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p. 38.

19) 북한학계에서 우리 역사의 시대구분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시작된 것은 50년대 중반이고, 그 논쟁이 완결된 것은 대체로 60년대 초반이다. 이 기간에 최대의 논쟁점이 된 것은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노예제사회의 존재유무와 그 시기 설정문제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삼국시대의 사회성격에 대한 토론으로 나타났다. 이 논쟁의 결과 삼국시대의 사회가 봉건사회로 규정되면서 삼국 이전의 고조선·부여·진국은 자연히 '고대 노예제사회'이고,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사회는 '중세 봉건사회'라는 도식이 완성되었다.

데, 이 붕괴과정은 청동기의 보급에 따른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에 기인하며 부계씨족사회의 성립과정과 일치한다고 한다. 북한 역사학계의 견해를 빌려 원시공동체가 해체되고 고대 노예제사회가 성립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시공동체사회이자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모계씨족사회는 사회생산의 주축인 원시농경에서 여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됨으로써 완성되었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말기에 썩이 농사가 보습농사로 바뀌면서 농업생산에서 남자가 하는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고 종전의 사회관계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기원전 2천년부터 청동기가 점차 보급되면서 농업생산이 더욱 확대되고 가축사육이 늘어나며 수공업 분야가 개척되는 등 사회적 생산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층 가속화된다. 한편 생산과 사회적 재부의 축적과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커지면서 여자들은 농업 또는 목축과 같은 중요 생산노동에서부터 점차 가내노동에 치중하게 되어 남자에게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여 가고 남자는 가부장으로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남성들이 가부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진 이후에는 무장충돌, 약탈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의 증대는 재산에 대한 공동체적 소유에서 벗어나 가부장적 가족을 단위로 잉여생산물을 사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적 소유의 발생,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의 공고화와 재부를 둘러싼 무력대결의 격화는 궁극적으로 소유에서

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어 계급분화를 촉진시킨다. 그리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발전은 부자와 빈자, 착취하고 지배하는 자와 착취당하고 지배받는 자와의 관계를 낳으며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된 씨족·종족의 우두머리들과 그 측근들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 즉 국가를 만들게 된다. 이로써 평등한 관계를 기초로 맺어진 원시공동체는 종말을 고하고 최초의 계급국가가 등장한다.²⁰⁾

북한의 역사학계는 고조선·부여·진국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생한 우리나라 역사상 첫 국가들이자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점한 노예소유자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한 노예소유자국가라는 것이다.²¹⁾

「전사 2」는 1970년대까지 북한의 역사학계가 이룩한 고대사 연구성과를 집성한 것으로서 고대국가들의 주민과 영역, 국가의 성립, 통치제도와 경제제도 등을 나라별로 서술하고 끝에 고대의 문화를 종합 개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역시 고조선에 대한 서술이다.²²⁾ 즉 고조선의 국가형성 시기와 영역, 주민, 사회성격, 신화전설과 문화, 통치체제와 대외항쟁사 등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학계는 「管子」 등 중국 史書에 보이는 ‘조선’이라는 이

20) 「전사 1」, pp. 297~306; 권오영, “원시시대의 인식체계,” pp. 73~74.

21) 「전사 2」, p. 5.

22) 고대의 문화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사 2」의 전체분량은 약 220쪽이다. 그 중 부여사와 진국사에 대한 서술이 각각 약 40쪽, 60쪽인데 비해 고조선사는 110여 쪽에 달한다.

름에서 고조선이 기원전 7세기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조선이 노예제사회라는 근거로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그 사람의 노비로 삼는다”는 ‘8條禁法’의 존재와 고조선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하는 요동반도의 강상무덤과 누상무덤에서 발굴된 다량의 人骨을 들고 있다. 특히 북한학계는 후자를 노예소유주인 무덤의 주인공을 위해 殉葬된 노예의 유골로 보고, 노예순장이야말로 당시 사회가 주인에 의해 함부로 죽임을 당하는 처지의 노예들과 이들을 소나 말처럼 착취하는 노예주로 이루어진 노예소유자사회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이에 대해 대체로 남한학계는 순장제는 엄격히 말하면 아직 노예노동이 사회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생산구조의 반영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학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려면 노예가 직접생산자층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 더 입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학계에서는 고조선이나 부여, 진국 등의 성격을 이른바 ‘부족연맹체’ 또는 ‘성읍국가’ ‘읍락국가’ 등으로 보면서 고대국가 형성 이전단계로 규정해 온 것이 주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노예제 문제와는 상관없이 국가시대로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²⁴⁾

이 밖에 고조선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 남북학계가 큰 견해

23) 「전사 2」, pp. 34~50.

24) 송호정, “전근대사의 시대구분,” p. 40.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고조선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고조선의 영역 또는 그 중심지에 관해서는 북한학계에서도 1960년대 초까지는 3가지 說이 대립하고 있었다. 그 3가지 說이란 고조선의 중심지가 시종일관 평양에 있었다는 在平壤說과 그 중심지가 遼河유역에 있었다는 在遼寧省說, 요하유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하였다는 移動說이다. 이러한 說들은 이미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고 그 이후 줄곧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북한학계에서는 토론을 거쳐 1960년대 중반부터는 두번째의 說을 定說로 하고 있다. 「전사 2」도 이 說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전사 2」는 고조선의 중심지가 요하 하류지역이며 말기의 수도인 왕검성의 위치도 평양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서쪽 경계는 기원전 4세기 이전에는 北京 북방의 '난하'유역에 이르렀으며 고조선의 영역이 축소된 기원전 2세기 초의 고조선과 漢과의 경계였던 '溟水'도 '大凌河'로 보고 있다.²⁵⁾ 또한 기원전 108년 漢의 침공에 의해 왕검성이 함락되어 설치된 낙랑군의 위치도 평양일대가 아니라 요하유역이기 때문에²⁶⁾ 한반도의 서북부에 있었던 고조선의 侯國은 기원후 3세기까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입론에 대해 남한학계는 문헌상으로 볼 때 요

25) 「전사 2」, pp. 91~101.

26) 위의 책, p. 112.

동지역이 고조선의 영토에 포괄되어 있었음은 분명하나 고조선의 중심부는 시종일관 평양에 있었다는 說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낙랑군의 소재지도 평양일대에서 중국계 유물, 유적이 발견되는 것에 비추어 평양부근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定說로 되어있다.²⁷⁾

한편 부여와 진국에 대한 「전사 2」의 서술내용을 보면, 우선 부여국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길림성 부여현이며 기원전 5세기경에 부여에 선행한 貊族계통의 나라인 ‘탁리국’의 한 세력이 송화강 일대로 이동해 그 곳 원주민을 정복하여 세운 나라라고 보고 있다.²⁸⁾ 그리고 진국에 대해서는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의 韓族간에 청동기 문화의 보급에 따라 상호각축을 벌이다가 처음 마한국이 생겨났고 그 후 진한·변한 지역이 마한에 통합되어 진국이 성립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⁹⁾ 이 진국의 중심지는 초기에는 지금의 직산일대였으나 나중에 수도를 익산부근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비정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진국 사회는 新나라 포로 1,500명을 몽땅 노예로 만들었을 정도로 노예소유자적 경리가 발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³¹⁾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

27) 노태돈, “고조선과 삼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 동향,”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70~71.

28) 「전사 2」, pp. 115~119.

29) 위의 책, p. 158.

30) 위의 책, pp. 166~168.

31) 위의 책, p. 201.

침되지 않은 소박한 가설적인 구도라고 평가되고 있다.³²⁾

그런데 「전사 2」의 서술내용은 1991년에 출간된 그 개정판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변화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점만을 보면 우선 북한학계가 고대국가로서 주장해 온 고조선, 부여, 진국 이외에 고구려에 선행한 국가로서 구려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약 15쪽에 걸쳐 구려사를 취급하고 있다. 또한 부여의 역사도 고대부여와 봉건부여(후부여)로 나누어 봉건국가 후부여의 존재를 새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대국가의 건국연대도 종래보다 더 이른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1979년 판에서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기원전 7~8세기였으나 개정판에서는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보고 있다. 부여도 대체로 기원전 7세기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진국도 기원전 6세기에, 구려국의 건국시기도 기원전 5세기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이런 주장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수차 언급한 바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따르면 노예제사회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이 원시적인 상태를 갖 벗어난 조건에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야만적인 노예적 예속의 방법으로 규정했던 최초의 적대적 계급사회였다. 이 시기는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능력이 원시적 상태를

32) 노태돈, “고조선과 삼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 동향,” p. 76.

3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 개정판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 14, 134, 169, 191.

갓 벗어난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잉여생산물은 얼마되지 못하였고 노예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 수준도 낮았다. 그러나 노예를 비롯한 인민대중들은 그 자체의 예속적 처지로부터 사회적 예속을 반대하는 자주적인 의식과 혁명적 능력을 가지게 되고, 반면 노예소유자들은 사회적 부를 창조하는 인민대중의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을 人身的으로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서도 보다 많은 것을 착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을 반영하여 일부 노예소유자계급 속에서 봉건지주계급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들은 노예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새로운 예속의 형태인 봉건제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³⁴⁾ 이로써 고대 노예제사회가 마감되고 중세 봉건제사회가 성립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34)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pp. 190~192.

第Ⅳ章 中世史 認識

1. 三國時代史

삼국시대에 대한 북한학계의 인식은 1950년대 이래 상당한 폭의 변화를 보여왔다. 삼국시대사를 서술하고 있는 「전사」 3·4권의 발간은 그 변화가 최종 정리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그 서술내용은 삼국시대에 대해 현재 북한학계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사」 3·4권의 서술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삼국시대에 대한 북한학계의 기본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사」 3·4권의 서술내용은 삼국시대의 문화를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봉건국가의 성립과정 및 봉건적 제관계의 발전에 대한 서술과 삼국의 대외관계 또는 ‘반침략투쟁’에 대한 서술, 그리고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에 대한 서술이다.

첫째의 부분은 북한학계가 삼국을 전형적인 봉건사회로 규정함에 따른 자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전사」 3·4권 모두 앞부분에서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에 계속되어 온 생산력의 발전과 봉건적 제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국전설을 설명하고, 이어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및 계급신분관계와 봉건통치제도의 발전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서술방식은 77년판 「조선통사(상)」에서 이미 보였으나 「전사」에서는 보다 상세

히 그 과정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통치기구 및 제반제도에 관한 것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처리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고구려사나 백제사, 신라사 서술에서 모두 章 속의 하나의 節로만 설정되어 있고 기구 및 제도상의 변화과정에 대한 서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북한학계가 통치기구 및 제도란 “근로인민을 압박·착취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그 변화의 상세한 과정을 추적하거나 논하는 것이 다른 항목에 비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본 때문인 듯하다. 이는 기구 및 제도를 기존 사회운영의 주요 장치로 이해하여 그것의 미묘한 변화·변천과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남한학계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¹⁾

두번째 부분은 삼국시대사 서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고구려사의 경우 독립된 3개의 章²⁾에 걸쳐 중국의 침략에 항쟁하는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백제사 및 ‘전기신라사’에서도 반침략투쟁에 각기 하나의 章을 할애하고 있다.³⁾ 특히 「전사 3」인 고구려사편에서는 앞의 3개 章외에도 각 章의 곳곳에서 당시 고구려의 대외관계와 外侵에 대비한 국방력 강화를 서술하고 있고 또 그 서술

1) 전호태,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p. 115.

2) 「전사 3」, 제4, 7, 8장.

3) 「전사 4」 가운데 백제사의 제7장과 전기신라사의 제6장.

내용에서도 고구려인의 애국투쟁정신과 진취적이고 상무적 기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⁴⁾

이와 같이 「전사」 3·4권에서 삼국의 반침략투쟁에 대한 서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적 반제 투쟁’이라는 현재적 입장과 시각이 과거에 투영된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역사교육을 통한 정치의식의 계발과 교양을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의 對隋·唐 전쟁과정을 서술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⁵⁾은 북한이 隋·唐을 자신들이 말하는 ‘신식민제국주의세력’과 사실상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며 역사교육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⁶⁾

셋째 부분은 「전사 4」의 ‘백제 및 전기신라사’에서 각기 독

4) 예컨대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무술을 배웠으며 용감성으로 단련되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씩씩한 기상을 지닌 고구려사람들은---침략자를 물리치고 나라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훌륭히 지켜냈다”고 서술하고 있다. 「전사 3」, p. 231.

5)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장 악명높은 폭군의 하나이며 동방침략에 피눈이 되어 날뛰던 수양제는 제 애비를 죽이고 그 자리에 들어앉아 기어코 고구려에 대한 침략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수나라침략군의 우두머리놈들은 양제의 명령을 받고 제가끔 룡동성을 기어이 함락시켜 보겠다고 미쳐 날뛰었다.” “악이 오를대로 오른 양제놈은 기어코 룡동성을 점령해보려고 발악하였다. 이놈은 자신이 직접 룡동성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면서---” “안시성사람들의 완강한 방어에 질겁한 당태종놈이 성밀에 나타나자 방어자들은---북을 두드리고 고함을 치면서 침략자들을 단죄하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당태종놈은 노발대발하면서 성의 공격을 재촉하였다. 당태종놈의 당황망조한 꼴을 지켜보던 적장 리세적은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태종에게---모조리 죽여버리자고 제기하였다.”

6) 전호태,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p. 114.

립된 章⁷⁾으로 서술되고 있다. ‘봉건착취와 억압의 강화. 그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題下에서 북한학계는 삼국시대의 ‘농민반란’이나 ‘피착취계급의 집단적 대응’을 전하는 사료가 거의 없음⁸⁾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遊離하거나 풍설을 퍼뜨림으로써 지배층에 항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424쪽에 달하는 「전사 3」의 고구려사편에서는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주목된다. 이것은 북한학계가 백제사와 신라사에 대해서와는 달리 고구려사를 특별한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구려사에 대한 북한학계의 특별한 시각은 「전사」 3·4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때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가. 高句麗史

1950년대 중반 이후 1960년대 초에 걸쳐 북한학계는 삼국의 사회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잠정적으로나마 삼국은 봉건사회로 규정되었다. 이후 북한학계가 관심을 기울인 문제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관계 설정이었다.

고조선과 고구려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남만주 혼강 일대 및 압록강 중류지대의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고구려가 선행사회이

7) 백제사의 제4장과 ‘전기신라사’의 제5장.

8) 전호태,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p. 115.

자 노예소유자국가인 고조선과 별 관계없는 국가라면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사는 적극적 위치를 부여받기 곤란하며 동시에 고구려사 역시 원시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곧바로 봉건사회로 진입한 특수성을 경험한 역사로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된다.⁹⁾ 이는 우리 역사가 원시사회로부터 노예사회, 노예사회로부터 봉건사회로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음을 전제하는 북한의 역사관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조선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북한학계의 정리된 입장은 1962년판 「조선통사(상)」의 서술에서 보인다. 여기에서 고구려는 고조선사회 내부의 반노예소유자투쟁과 봉건적 소유관계의 진전에 따른 생산력 발전에 의해 성립한 국가로서 고조선의 생산력과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이것은 이후의 「전사」 발간에 이를 때까지 고구려사 서술의 기본 틀이 되었다.

「전사 3」의 서술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이미 고조선에 속한 하나의 소국으로 존재하였으며 졸본부여를 병합한 기원전 2세기쯤에는 그 생산력이 봉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고구려는 漢나라에 의해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많은 고조선 유민을 규합하여 漢에 대한 반침략투쟁을 전개해 나갔고, 마침내 기원전 1세기 초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봉건국가'로 등장했다는 것

9) 위의 논문, p. 116.

이다.¹⁰⁾

북한학계는 고구려 봉건국가의 성립이 “지난날의 우리 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다”고 평가한다. 북한학계가 이처럼 고구려의 등장에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을 계기로 한나라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점되었던 고조선유민들과 주변 소국들이 급속히 고구려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강점자들을 자기 강토에서 내쫓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었다. 반침략투쟁의 선두에는 처음부터 고구려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가 봉건국가로 성립되기 이전의 반침략투쟁은 산발적이었으며 분산적이였다. 고구려국가의 성립이 여러곳에 흩어져 제각기 벌리던 이 투쟁을 하나의 대오에 묶어세움으로써 강력한 역량으로 침략자와 맞서 싸워나갈수 있게 하였으며 마침내 그 과정에 외래침략자들을 내몰고 하나의 강력한 봉건국가로 발전할수 있었던 결정적계기를 열어놓았던것이다. 고구려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단합된 역량으로 외래침략자와 맞서 강점자들을 자기 강토에서 내쫓은 여기에 고구려국가성립의 거대한 역사적의의가 있는 것이다.¹¹⁾

10) 「전사 3」, pp. 24~26. 북한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인 고조선멸망 前後 시기에 고구려가 급속히 성장하고 ‘봉건국가’어로 이행한 이유는 고조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시킨 제철기술을 고구려인들이 이어받아 보다 높은 단계의 기술인 ‘단조법’을 개발하여 생산력을 발전시킨 결과로 보고, 이를 증명하는 유적으로 자강도 시중군과 중강군 일대의 철기유적을 들고 있다. 「전사 3」, pp. 11~16.

11) 「전사 3」, pp. 33~34.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고구려성립의 역사적 의의를 고구려가 고조선 멸망후 고조선 영역내에 있었던 많은 후국세력을 통합하여 漢에 대한 반침략투쟁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국가형성 이후 고구려사는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반침략투쟁의 역사이자 잃어버린 고조선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역사로 보여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건국을 전후하여 추진한 주변 소국의 통합도 정복전쟁이 아니라 “반침략투쟁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였고 4세기 전반기의 고구려의 요동진출도 반침략투쟁에서 거둔 커다란 승리이자 옛 고조선 땅의 실제적 회복이라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고조선의 한개 후국으로 발족한 고구려가 건국 이래 고조선의 옛 땅을 강점한 침략세력을 내쫓는 것을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으로 간주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한 결과로 보여진다.

고구려사에 대한 북한학계의 이같은 편향된 인식은 삼국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이민족과의 관계에서 고구려사가 반침략투쟁과 故土회복의 역사였다면 백제 및 신라와의 관계에서 고구려사는 통일지향의 역사로 표현된다. 예컨대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평양천도’는 삼국통일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곧 “수백년동안 튼튼한 기초가 닦아진 국내성을 떠나 1,000여리 남쪽의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대담한 조치는 세 나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고구려통치자들의 굳은 결심을 잘 보여주었다”¹²⁾는 것이다. 고구려의 통일의지를 전하는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북한학계가 고구려의 ‘삼국통일의지’를 굳이 이처럼 강조하는 것은 고구려를 삼국관계의 주도자로 인식하고 이를 부각시키려는 데 말미암은 바 크다.¹³⁾

고구려의 통일의지에 대한 강조는 1991년에 출간된 「전사 3」의 개정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1979년판이 비교적 적은 양의 지면을 할애해 ‘평양으로의 수도옮김과 수도건설’이라는 항목에서 ‘평양천도’를 삼국통일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개정판은 제5장의 제목을 아예 “겨레와 강토를 통일하기 위한 고구려인들의 투쟁”으로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서술분량도 1979년판의 거의 2배에 이른다.

또한 개정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원전 5~3세기 고구려의 前身國家로서 고조선, 부여와 병존하던 ‘구려국’의 존재를 상정하고 이 고대국가가 기원전 4~3세기경에 봉건화과정을 경과하면서 ‘주몽’을 중심으로 기원전 277년에 건국한 봉건국가가 고구려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건국년대가 1979년판보다 약 200년 소급되고 고구려의 존속기간이 약 1,000년에 가깝다는 의미여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학계의 고구려 건국년대 인상 노력은 우리 역사에서의 고구려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이제까지의 북한

12) 위의 책, p. 151.

13) 전호태,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p. 124.

학계의 연구경향과 그 맥을 같이한다.

나. 百濟 및 ‘전기신라사’

백제사를 서술하고 있는 「전사 4」의 총 7개 章 가운데 4개 章이 백제라는 봉건사회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봉건사회에 대한 북한의 계급적 시각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북한학계가 고구려사를 특별한 시각과 호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백제가 우리 역사상 첫 봉건국가의 하나라는 평범한 인식을 바탕으로 백제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사 4」에 따르면 백제는 기원전 1세기 후반기부터 노예 소유자국가인 마한내의 백제소국에서 싹트기 시작한 봉건적 요소들에 기초하여 1세기 중엽에 형성된 봉건국가이다. 백제를 성립케 한 요인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지적된다. 그것은 기원전 1세기경에 이루어진 철의 생산 및 보급에 의한 생산력 발전과 노예제사회 말기에 벌어진 ‘피압박인민들’의 반노예투쟁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백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요인의 하나로 선진적인 문화를 가진 고구려 이주민의 남하도 언급되고 있다. 이것 역시 고구려사를 북한학계가 특별한 시각으로 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점이다.

또한 「전사 4」는 백제가 봉건화과정을 밟아온 마한내의 다른 소국들을 병합하여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봉건적 착취관계를 확립하고 봉건통치제도를 확대, 강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주변 소국들의 병합이 봉건화의 진전과 반침략투쟁을 위한 역량강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었으나 백제의 경우는 한 측면으로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학계가 백제사에서 특히 관심을 보이고 강조하는 것은 백제 봉건지배계급의 착취에 대한 ‘인민’의 투쟁이다. 백제의 통치기구 및 제도의 정비는 착취와 억압의 강화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신분제도와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의 확립·확대과정에 대한 분석 등은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봉건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백제인민’의 반봉건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또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서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압제자들이 있는곳에서 그를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는것은 필연적이다. 착취와 억압이 날로 강화되고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도탄에 빠져들어가자 백제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힘차게 일떠섰다.---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백제봉건국가가 존재한 전기간 여러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인민들의 즐기찬 투쟁은 압제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¹⁴⁾

이와 같이 백제사 서술은 봉건지배층의 억압과 착취, 이에 대한 ‘인민’의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 점은 같은 봉건국가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사 서술에서는 거

14) 「전사 4」, pp. 54~55, p. 59.

의 보이지 않던 것이다. 이는 전술했듯이 삼국사에 대한 북한 학계의 인식이 국가별로 상이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북한학계의 '전기신라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더욱 소극적이며 비판적이다. 이는 주로 7세기의 삼국통일과정에서 신라가 추진한 隋·唐세력과의 연합을 신라의 민족적인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시각을 신라사 전체에 투영시킨 때문이다. 「전사 4」의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북한학계의 이같은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령토팽창을 위해서는 동족간의 의리도 집어던지고 외세까지 끌어들임으로써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고 같은 겨레의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호상 불신임을 조장하였다.---배신적인 신라통치배들의 교활한 책동과 사대망국적인 외래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은 세 나라의 우호적관계를 유지할수 없게 하였으며 나라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였다.¹⁵⁾

이처럼 북한학계는 신라사 전반, 특히 신라통치계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라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신라발전과정의 이해방식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전사 4」에 따르면 신라의 발전도 삼국관계에서 신라가 신의없는 군사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15) 위의 책, p. 194.

간악한 신라통치배들은---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그 땅을 빼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백제가 차지한 남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류류역까지 빼앗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신라는 드디어 553년에 백제가 차지하고있던 한강하류류역을 배신적으로 불의에 들이쳐서 점령하였다.---이와 같이 신라통치배들은 배신행위를 거듭하면서 령토를 확대해나갔다.---령토팽창을 위하여서는 배신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여 처음에는 고구려와의 우호관계를 끊었으며 그후 백제를 속여넘기고 한강하류류역지대를 가로챈 교활한 신라봉건통치배들은 7세기 10년대이후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¹⁶⁾

신라지배층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사」에 나타나는 ‘전기신라’라는 용어이다. 이 ‘전기신라’라는 용어는 「전사」가 발간되기 불과 2년전에 나온 1977년 판 「조선통사(상)」에서도 보이지 않던 표현으로,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에 대한 북한학계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학계는 1970년대에 들어와 고구려사와 함께 점차 발해사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우리의 역사계승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졌다고 인식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다. 즉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 아니라 국토남부

16) 위의 책, pp. 191~192.

의 통합에 불과하며 국토 북부의 역사는 발해의 건국에 의해 그 주체가 고구려에서 발해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평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발해와 신라라는 두나라가 남북으로 병립하던 시대의 신라는 ‘후기신라’이며, 그 이전 삼국정립 시기의 신라는 ‘전기신라’로 불려야 된다는 것이 북한학계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전기신라’는 신라의 국가성립 시기인 2세기 초·중엽부터 7세기 중엽 삼국정립이 종결될 때까지의 신라를 말한다.

그러나 신라사에 대한 북한학계의 비판적인 시각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상은 신라통치배들이다. 달리 말하면 북한학계의 신라사 인식에서 특이한 점은 신라사에서 신라지배층과 ‘신라인민’이 한 역할을 가능한 한 분리·대비시키려는 태도이다.¹⁷⁾ 신라지배층은 삼국간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벌여 동족을 더 많이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신라사회의 발전과 문화·예술상의 제반 업적은 ‘신라인민’의 창조적 투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신라인민들은 투쟁과 창조로 사회를 발전시켜나갔으나 봉건 통치배들은 더 많은 영토와 인민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고구려, 백제와의 각축전을 계속하였다.---신라인민들은 자기의 창조적으로동으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였다. 봉

17) 전호태, “삼국시대에 대한 인식,” p. 138.

건적 억압과 착취가 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산의 담당자인 근로인민대중은 자연조건을 잘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여러모로 생각해냈고 농업을 발전시키고 아름답고 질 좋은 수공업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힘썼으며 교통운수를 발전시켰다.¹⁸⁾

통치자와 피치자를 분리시킨 이러한 시각은 신라사 서술 전반에 걸쳐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북한학계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면서 그 주요한 논거의 하나를 신라지배층의 비주체적·반민족적 자세에서 찾는 것 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2. 발해 및 '후기신라'

북한의 역사학계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있다. 북한학계의 이런 입장은 통일신라, 발해사 서술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사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신라보다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되고, 결과적으로 발해사 중심의 역사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전사 5」는 신라가 국토남부를 통합하여 '후기신라'로 전환된 반면 고구려 유민에 의해 발해국이 창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북한학계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물론 아니다. 비록 함의하는 바의 전제와 내용은 다르더라도 이런 인식경향은 이미 조선시대 후기에 싹트고 있었다. 결국

18) 「전사 4」, p. 151, 202.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정복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일련의 연대기적 사건만큼은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해석의 줄기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긍정론과 그 반대로서의 회의론 또는 부정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회의적 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식경향은 발해사를 우리 민족사의 일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발해는 「삼국사기」에 ‘北國’으로 표현되어 신라가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조선전기까지의 그 어느 역사서에도 그 이상은 언급되지 않았다.¹⁹⁾ 따라서 발해는 우리 역사해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서 일정한 변화를 맞게 된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실학자인 安鼎福은 「東史綱目」에서 발해의 역사를 신라사와 더불어 최초로 서술했다. 柳得恭도 「渤海考」의 서문에서 「삼국사기」는 신라중심의 삼국사만을 서술하고 발해의 역사를 배제했다고 비판함으로써 신라의 삼국통일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로써 한국사의 서술공간에 신라와 함께 발해의 자리도 인정하는 ‘남북국시대론’의 단서가 열렸으며,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의 출발은 한국사의 인식지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19) 김영하, “후기신라와 발해의 성립,”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186.

다. 그리고 19세기의 金正浩는 「大東地志」에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아예 언급하지도 않고 고려 태조에 의한 남북국통일론을 제기함으로써 고려를 최초의 통일왕조로 파악하였다. 이런 경향은 근대의 申采浩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 신채호는 삼국시대가 백제를 병합한 신라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양국시대로 전환되었다고 그 상황변화만을 인정함으로써 역사인식의 전환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관한 북한학계 최초의 공식적인 견해는 1956년판 「조선통사(상)」에 표명되어 있다. 그 제3장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라는 표제에서, 그리고 그 제1절의 제목이 “7세기 신라의 조선통일정책”으로 되어있는 데서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신라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이는 데에 대한 비난은 아직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서술의 중심이 고구려 멸망후 三國民이 벌이는 對唐투쟁에 있었다.

이와 같이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북한 역사학계는 1962년판 「조선통사(상)」에서 변하기 시작했다. 그 제6장이 삼국통일이 아니라 “신라에 의한 국토남부의 통합과 고구려 고지에서의 발해국의 성립”으로 바뀌었다. 삼국전체의 통일 대신에 국토남부의 통합으로 규정하여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발해국의 성립을 종래 節의 단위에서 章의 단위로 격상시켰다. 이는 발해의 역사를 민족사의 일부로 취급해야 할 당위성을

인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록 신라가 唐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對高구려·백제와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언제나 신라군이었다고 평가하고, 신라가 唐을 끌어들이는 착오로 인하여 처음에 추구한 삼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신라와 발해에 대한 이런 병렬적 서술구조는 1977년판 「조선통사(상)」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하지만 1977년판에서 주목할 점은 이같은 형식이 아니라 다음의 서술에서 엿볼 수 있는 인식내용의 차이와 그에 따른 역사해석이다.

7세기 중엽에 신라봉건통치배들은 당나라침략자까지 끌어들이 국내에서 오래동안 전쟁을 벌임으로써 나라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남에게 의존하여 남의 힘을 빌어 자기 나라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그 덕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라의 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계급적이익을 위하여 외적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힘을 합쳐 국내전쟁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나라는 막대한 전쟁피해를 입게 되고 국토의 적지 않은 부분을 침략자들에게 빼앗김으로써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저질렀다.²⁰⁾

북한에서 1970년대는 소위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한

2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 151.

국사 해석의 모든 부분에 걸쳐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사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주체적 입장에서 볼 때, 신라의 봉건통치배가 당나라를 끌어들이어 같은 겨레의 나라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실은 반민족적 행위의 전형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신라의 역사를 재해석한 북한 역사학계에서의 인식변화는 「전사 4」에 종합된 형태로 다시 나타나게 되었다.

신라봉건통치배들의 그릇된 외세의존정책은 고구려, 백제지역 인민들을 침략군의 발굽밑에서 신음하게 하였을뿐아니라 마침내는 신라까지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게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당나라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수십년간의 간고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²¹⁾

669~676년의 반침략전쟁에서 신라의 통치배들은 인민대중의 드높은 투쟁기세에 편승함으로써만 당나라와 맞서 싸울 결심을 가질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통치배들은 저들의 협소한 계급적리해로부터 출발하여 반침략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다. 바로 신라통치배들의 나약성과 비굴한 사대굴종사상의 후과로 말미암아 압록강이북의 고구려인민들은 7세기말 발해국을 세울 때까지 다시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간고한 반침략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었다. 신라의 통치배들은 민족의 내부문제에 외세를 끌어들이어 전쟁을 확대함으로써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가

21) 「전사 4」, p. 231.

저다주었으며 고구려, 백제 왕조가 망한 후에는 반침략투쟁을 중도에서 포기함으로써 국토완정을 위한 당시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으며 그후 나라의 역사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죄악을 저질렀다.²²⁾

위 두 인용문을 통하여 북한학계가 이 시기의 역사이해를 위한 중심축을 ‘인민들’의 반외세투쟁에 둔 사실과 신라가 인민대중의 반침략투쟁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이해에 얽매인 봉건통치배의 나약성과 사대굴종사상으로 말미암아 국토의 남부를 통합하는 데 그침으로써 ‘후기신라’로 전환한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인용문에서 발해의 성립이 신라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고구려 유민들의 반침략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기신라’에서 ‘후기신라’로의 전환과 고구려 유민에 의한 발해의 창건을 별개의 사실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발해가 고구려 유민이 당나라 침략자에 대해 벌인 자주적인 투쟁의 결과로 창건된 주체정권인 데 반하여 ‘후기신라’는 신라 봉건통치배가 당나라 침략자에 대해 벌인 사대적 외교의 결과로 성립된 반동정권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 데서 비롯된 듯하다.

고구려가 멸망한후 30년만에 그 유민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옛령토안에 고구려국가를 계승한 발해국이 창건된것은

22) 위의 책, p. 249.

우리 나라 봉건시대의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변으로 되었다. 발해국이 창건됨으로써 고구려사람들은 다시 옛땅에서 자기 주권을 가지고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당나라는 더는 이웃 고구려유민들과 신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할수 없게 되었다. 발해국이 출현한후 조선민족의 창조의 역사에는 고구려문화를 계승한 발해문화가 빛을 뿌리게 되었다.²³⁾

따라서 「전사 5」는 “발해 및 후기신라사”라는 제목하에 종래의 서술방법과는 달리 발해를 신라보다 먼저 서술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세 차례나 개정된 「조선통사」에서는 그대로 신라를 먼저 서술하였으나 「전사 5」는 신라의 국토남부 통합이 지니는 의미조차 평가절하하고 대신에 발해의 창건이 갖는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술순서의 전도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 또한 북한 역사학계가 발해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학계가 고조선-고구려-발해의 계승이 역사의 정통이고, 고려가 최초의 통일왕조라는 인식논리의 필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 북한정권과도 무관하지 않은 역사인식이다. 즉 발해건국의 독자성과 현 북한정권 수립의 ‘주체성’은 시간을 뛰어넘어 맞물려 있음으로써 발해사는 물론 북한정권을 민족사의 정통으로 인식시키는 역사교육적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²⁴⁾

23) 「전사 5」, pp. 22~23.

24) 김영하, “후기신라와 발해의 성립,” p. 192, 198.

3. 高麗史

고려사를 다루고 있는 「전사」 6·7권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반봉건투쟁의 두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북한학계가 역사해석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기본논리가 대외적인 민족문제와 대내적인 계급관계라는 데²⁵⁾ 기인한다.

「전사」의 고려사에 대한 서술에서도 ‘인민’의 반침략투쟁사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이는 고려 때가 여타 시기보다도 주변국가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異民族과의 충돌이 빈번했던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보다는 북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역사 발전과정에서의 ‘인민대중’의 역할과 그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및 애국심이 이 부문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⁶⁾

이 점은 「전사」 6·7권이 고려시기를 “우리 나라 봉건시대 전기간을 놓고볼 때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창조적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한 시기”로 규정하고²⁷⁾ 고려사를 “나라를 외래침략자들로부터 수호하고 고려사회를 전진시킨---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밝히는데 기본을 두고 서술한다”²⁸⁾고 밝힌 데서 잘 알 수 있다.

25) 위의 논문, p. 190.

26) 박용운, “북한의 고려시대사 서술,”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pp. 124~125.

27) 「전사 6」, p. 7.

28) 「전사 7」, p. 8.

따라서 「전사」 6·7권의 章節의 대부분이 이 부문으로 채워져 있고 자연스럽게 그 서술분량도 타 부문을 압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사 6」의 제4장 “거란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 전체가 거란과의 3차에 걸친 전쟁을 다룬 것인데, 여기에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고려의 준비 상황 및 하나하나의 전투과정이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제6장에서도 “11세기 대외관계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거란과 여진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한 대외활동 등이 기술되고 있으며, 제8장 역시 “12세기초 나라의 동북지방과 압록강요새를 되찾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이라는 제목하에 여진을 대상으로 한 9성의 설치 및 철폐와 對金전쟁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양적으로 보더라도 「전사 6」의 전체 496쪽 가운데 108쪽이나 되어 어느 분야보다 비중이 크다. 게다가 「전사 7」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1장 “13세기 봉건몽골침략자를 반대한 고려인민의 투쟁”에 무려 약 100쪽이나 할애하고 있으며, 이어 제5장에서 “13세기후반기~14세기전반기 고려-원 관계. 원나라 침략세력의 구축”을, 그리고 제6장 “14세기후반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며 국토완정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홍건적과의 싸움, 이성계 등에 의한 요동원정, 왜구의 격퇴 등을 60쪽 정도의 양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전사 7」 전체분량 가운데 1/3을 넘는 양이다.

북한학계가 이처럼 역사의 주류를 國難克服史에 두고 그를 통해 ‘인민’의 애국심과 자주성을 고취하며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입장은 서술내용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거란과의 전쟁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그것이다.

거란침략자들은 1012년 6월 고려에 6개 성을 떼여넘기라는 터무니없는 강도적요구를 내놓은 이후 그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1017년까지 무려 일곱번이나 침입하여왔다. 그러나 애국적인 고려인민과 군대들은 적들의 횡포한 외교적강요나 집요한 군사적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움으로써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나라를 영예롭게 지켰다.²⁹⁾

반거란전쟁에서 고려인민이 승리할수 있는 요인은 무엇보다 먼저 인민대중이 열렬한 애국주의정신과 불굴의 기개를 발휘하여 용감하게 싸운데 있었다.³⁰⁾

이와 같은 내용의 서술은 몽골과의 전쟁을 기술한 곳에서도 눈에 띈다.

몽골침략자를 반대하여 오래동안 진행된 고려인민의 투쟁은 가장 포악한 몽골침략군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정의의 조국방위전쟁이었다. 애국적인 고려인민은 그 이전 세기들과는 달리 국력이 약화된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도 흉악한 봉건몽골군의 계속되는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불굴의 투쟁정신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³¹⁾

29) 「전사 6」, p. 142.

30) 위의 책, p. 151.

31) 「전사 7」, p. 9.

「전사」의 고려사 서술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수취의 강화와 그에 수반된 농민·천민의 항쟁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사」가 매 시기마다 이 문제를 다른 章節을 설정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생산력의 발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전사 6」의 제2장 제3절 “후삼국통일후 생산의 장성”과 對거란전쟁후의 과제를 취급한 제5장 “전후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한 생산의 장성. 천리장성의 축조”이다. 특히 이 제5장에서는 농업과 수공업 및 상업의 발전을 다른 節을 따로 설정하고 이들에 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후기를 취급하고 있는 「전사 7」의 제2장 제1절에서도 “13세기말엽~14세기의 경제발전”이라는 제목하에 농업, 수공업, 상업과 무역, 화폐유통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전사」가 생산력의 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역사관에 비추어 필연적인 현상이고 또 ‘인민’의 반봉건투쟁을 서술하기 위한 整地작업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발전에 대한 서술 뒤에는 예외없이 ‘봉건적 수탈의 강화’와 그로 인한 ‘인민대중의 비참한 처지’가 길게 설명되며 이어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등장한다. 말하자면 생산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모순은 한층 격화되어 계급투쟁이 전개되었다는 논리의 표현이며 서술도 그에 따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민들의 반봉건투쟁’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전사 6」의 제7장 제6절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과 제10장 “12세기후반기~13세기초의 전국적인 대농민전쟁” 및 「전사 7」의 제4장 제1절 “13세기후반기~14세기 봉건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인데, 「전사」 6·7권은 그 서술에 도합 약 80쪽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학계의 입장은 문화재에 대한 서술에서도 제작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³²⁾ 예를 들면 고려청자를 설명하는 경우 “이 시기 푸른사기가 발전하고, 성행할수 있는것은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아름답고 우아한 푸른색을 인공적으로 얻기 위한 고려 도자공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탐구,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한 것³³⁾과, “이러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기만 하던 사기생산자들의 창발적열의는 남김없이 발휘될수 없었다. 그러나 사기수공업자들은 것처럼 불리한 조건에서도 여러가지 그릇들의 새로운 형태를 고안하기도 하고 무늬도 다양하게 놓았다”고 한 데³⁴⁾서 그 같은 사실을 잘 볼 수 있다. 북한학계는 고려청자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도자공의 기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팔만대장경에 대하여, “이 대장경은 봉건통치배들이 이른바 <부처>의

32) 이하는 박용운, “북한의 고려시대사 서술,” pp. 133~134 참조.

33) 「전사 6」, p. 468.

34) 「전사 7」, p. 313.

도움으로 원침략자를 물리쳐보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 목적의 허황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많은 인쇄수공업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인민대중의 헤아릴수 없이 많은 피땀이 스며있으며 그 인쇄기술이 우수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³⁵⁾고 한 서술 역시 마찬가지로 예이다. 이들 이외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도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제작의 직접 당사자인 ‘인민대중’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4. ‘리조사’

북한에서의 우리 역사 서술은 주체사상이 정립된 197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관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 주체사관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의 어느 時代史이든 그 서술에서는 항상 “통치배들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과 “외래침략세력에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는 ‘리조사’도 그 예외가 아니다.

「전사」에서 조선시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8, 9, 10, 11, 12 권으로 그 서술대상 시기를 각각 15, 16, 17, 18, 19세기의 초·중엽으로 하고 있다. 이 다섯 권은 대체로 각 시기의 생산력 발전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 및 봉건적 착취의 강

35) 위의 책, p. 309.

화, 이에 대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 외침이 있을 때의 반외세투쟁, 그리고 각 시기의 문화를 다루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분에 따른 전체 서술분량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분야로 약 40%에 이른다. 삼국시대사나 고려사의 경우 이 분야가 약 30%임에 비해 10% 늘어난 이유는 실학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의 서술분량을 점하고 있는 것이 생산력의 발전에 의한 경제관계의 변화로 약 17%에 달한다. 이것 역시 조선후기로 갈수록 상품화폐경제의 출현을 비롯해 경제관계가 크게 달라짐에 따라 그만큼 서술분량이 늘어난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계급간 대립과 봉건적 착취의 강화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약 13%이고, 이에 따른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약 12%이다. 봉건적 수탈의 강화와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전자는 후자의 설명을 위한 도입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합친다면 약 25%가 된다. 그리고 반침략투쟁에 대한 서술은 어느 시대사이든 外侵의 빈도수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리조사’의 경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탓에 서술분량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가. 反侵略鬪爭

사회역사적 운동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으로 규

정하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의하면 반침략투쟁은 민족의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민족은 항상 반침략투쟁의 주체로 설정된다. 그 결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擧族的인 투쟁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계급적 모순과 대립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즉 외침에 맞서 싸우는 문제는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로 여겨져 내재되어 있는 계급적 모순과 갈등을 뛰어넘는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반침략투쟁에 대한 북한 역사서의 서술에서 국내의 계급모순에 대한 분석이나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전사」에서 조선시대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권 8의 제2장 “4군 6진의 설치와 1419년 쓰시마원정”, 권 9의 제5장 “왜적과 녀진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제7장 “1592~1598년 일본침략자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임진조국전쟁”, 병자호란을 기술하고 있는 권 10의 제2장 “외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권 11의 제6장 제5절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한 투쟁”이다.

전체 약 240쪽에 달하는 여기에서도 북한학계는 통치계급을 위주로 하거나 개인을 영웅시하는 역사서술을 지양하면서 외세의 침략에 대한 피지배층의 애국적 투쟁을 강조한다. 통치계급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내부싸움을 되풀이하면서 사치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져 국고를 탕진하고 국방력을 약화시켜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비난된다. 조선

시대의 반침략투쟁을 대표하는 임진왜란에 대해 「전사 9」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리조봉건국가의 중앙집권과 국방력이 약화된 기회에 간악한 왜놈사무라이들이 1592년 대군을 일으켜 불의에 침입하였다. 이 때 일상적인 방비를 갖추지 않고 태평성세만 부르고 있던 봉건통치배들은 왜적의 침공을 막아낼수 없게 되자 왕을 데리고 도망쳐 나라와 인민을 원수들의 유린밑에 내맡기였다. 그러나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들은 나라의 운명을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용감히 떨쳐나섰다. ---조선인민은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일본침략자들과의 7년간에 걸치는 임진조국전쟁에서 마침내 원수들을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영예와 존엄을 빛내였다.³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북한학계는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보다 먼저 전쟁의 기본담당자인 애국적인 인민들과 군인들이 민족적독립과 영예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용감하게 싸운데 있었다”³⁷⁾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순신과 같은 영웅들의 군사적 승리도 전적으로 애국적 ‘인민’과 군인들의 투쟁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리순신, 광재우 등 애국명장들은 인민들의 높은 애국적열의와 반침략기세에 고무되면서 전투대오를 강화하고 전투준비를 튼튼히 갖추도록 하였으며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적국

36) 「전사 9」, pp. 6~7.

37) 위의 책, p. 275.

적인 전투활동을 벌리었다. 그들은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대중의 지혜에 의거하여 적아간의 역량관계와 지형조건 등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우에서 여러가지 전투형식들을 능숙히 적용하여 침략군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³⁸⁾

이와 같은 맥락에서 前近代의 애국명장들에 대한 시대적·계급적 한계성이 강조된다. 즉 애국명장들은 봉건왕조나 봉건 지배층을 위해 싸웠을 뿐이며 피지배계층을 위해 싸우지는 않았다고 비판된다. 예를 들면 「전사」는 이순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순신장군은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지원밑에 거북선을 만들고 수군을 강화하였으며 뛰어난 전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바다싸움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은 당시 우리 수군의 승리와 함께 우리 나라 력사에뿐아니라 세계해전력사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력사적조건에서는 높이 평가할만한 큰 공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 명장들의 애국심은 계급적 및 시대적인 제한성을 면할수 없었다.³⁹⁾

사실 이런 평가는 북한에서 주체사관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은 이순신을 영웅적

38) 위의 책, p. 278.

39) 위의 책, p. 278.

으로 찬양했었다. 예컨대 김일성종합대학 역사연구소가 편찬한 「조선의 명인(하)」에서는 이순신이 다음과 같이 찬양되고 있다.

7년간이나 끌던 임진조국전쟁은 장군이 최후를 마치면서까지 지휘한 로랑해전의 대승리로써 그 막을 닫았다. 그 때로부터 350여년의 세월이 지났건만 목숨바쳐 기울어지는 나라의 운명을 떠맡든 리순신장군의 숭고한 애국심과 그 높은 업적은 인민들 속에 길이길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국과 인민의 력사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⁴⁰⁾

그러나 「전사」에 오면 위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순신에 대한 영웅주의적 찬양은 자취를 감추고 그의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이 언급된다. 1977년에 출간된 「조선통사(상)」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하고 있다.

리순신이 그때 나라를 지켜 잘 싸웠지만 그는 량반지주계급이었고 무관이었으므로 어디까지나 봉건왕권에 충성하며 량반지주계급을 위하여 싸웠다. 리순신이 그때에 지키려고 한 나라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가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였다. 그렇기때문에 리순신은 비롯한 당시 이름있는 명장들의 애국심은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에서 벗어날수 없었다.⁴¹⁾

이같은 평가의 변화는 개인의 위대성보다는 민족의 자주성

40) 김일성종합대학 역사연구소 편, 「조선의 명인(하)」(평양: 조선청년사, 1963), p. 19.

41) 「조선통사(상)」, 1977, p. 465.

수호를 위해 용감히 싸운 애국인민들의 투쟁에 더 비중을 둔 때문이다. 또한 이런 변화는 주체사관의 확립과 더불어 항일 투쟁시기와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령을 제외한 다른 영웅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탓이기도 하다.

임진왜란외의 여타 반침략투쟁에서도 「전사」는 ‘인민들’의 의병투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런 ‘인민’의 존재 때문에 반외세투쟁에서 한결같이 승리하여 민족의 자주성, 국가의 독립이 지켜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현실적으로 심화된 崇明사대주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前近代 東아시아 세계질서의 표현인 ‘책봉-조공’관계도 단지 대등한 외교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있을 뿐이다.⁴²⁾

나. ‘인민들’의 反封建鬭爭

북한학계는 우리의 중세사에서 봉건제도가 가장 발전한 시기로 15세기를 꼽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15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봉건제도가 완숙해져 가는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동안에 일어난 반봉건투쟁은 그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봉건제도를 더 한층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라고 이해된다. 즉 9세기의 농민들은 그 때까지도 남아 있던 가부장적 노예제의 해체를, 12세기의 농민들은 봉건적 예속농민으로부터의 해방을 각각 투쟁을 통하여 급속히 진전시킴으

42) 김순자, “전근대의 반외세투쟁,”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327.

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했으나 그 결과는 농민을 착취·억압하는 장치인 봉건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반봉건투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반면에 봉건제도가 완숙한 뒤에 일어난 반봉건투쟁은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된다. 바로 이것이 고려시대의 반봉건투쟁과 조선시대의 반봉건투쟁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⁴³⁾

「전사」는 조선사회에서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은--- 지주와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봉건국가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것을 착취당하였으며 봉건국가의 악법에 짓눌려 자그마한 권리마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⁴⁴⁾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투쟁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사」에서 조선시대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권 8의 제4장 “봉건적억압착취를 반대한 각지 농민들의 투쟁”, 권 9의 제4장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권 10의 제4장 “17세기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권 11의 제6장 “봉건통치배들의 학정과 외래 침략세력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권 12의 제1장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및 제6장 “1862년 전국 농민들의

43) 오중록, “봉건사회의 농민항쟁 (1),”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251.

44) 「전사 8」, p. 152.

대중적폭동”이다.

더 자세한 목차를 보면⁴⁵⁾ 「전사」에서는 농민전쟁, 농민폭동, 농민무장단의 투쟁, 遊離, 도망, 시위, 성토투쟁 등 반봉건투쟁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서술되고 있으며 이들이 가지는 의의도 모두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빈민·어민·유민들의 투쟁도 봉건사회의 기본계급인 소작농민들의 투쟁과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는 주체사관에서 생산수단과 더불어 국가권력 소유의 여부를 중시하여 “국가권력을 틀어쥔 봉건통치배”들과 봉건사회에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그들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피지배인민’의 대립을 기본모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외의 각 계급 사이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⁶⁾

「전사 8」에서는 15세기의 중요한 반봉건투쟁으로 서울방화폭동, 신백정폭동, 대성산농민폭동, 함경도 농민전쟁, 전라도와 황해도의 농민폭동, 재령 농민폭동, 전라도 어민폭동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 「전사 8」은 15세기의 반봉건투쟁이 농민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층을 포함해 서울의 도시빈민, 어민들에 의해서도 전개되었다고 파악하고

45) 본 글의 부록 참조.

46) 고동환, “봉건사회의 농민항쟁 (2),”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285.

있다. 실제로도 「전사 8」은 15세기 반봉건투쟁의 의의와 특징은 봉건사회의 여러 하층 ‘인민들’이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운 점에 있는데, 이는 봉건적 착취가 피착취계급의 어느 한 계층에 대해서가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계층에 대하여 한결같이 가혹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⁴⁷⁾

그리고 15세기는 우리나라 봉건시대 역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가 가장 정비·강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인민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고 따라서 그 투쟁 또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⁸⁾

「전사 9」에서는 16세기를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중앙집권체제의 약화에 따라 대토지소유가 성장한 시기이며, 이에 따라 계급·신분적 대립이 한층 격화된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기의 반봉건투쟁을 대표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었던 것이 농민무장대의 투쟁이라고 한다. 즉 홍길동부대, 전라도 영광무장대, 1520년부터 1540년 사이에 전라도·충정도·경기도 등지에서 활약한 순석부대, 1539년의 전라도 중들의 무장대, 1550년에서 1560년에 걸쳐 활동한 임꺽정부대의 투쟁을 16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반봉건투쟁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민무장대의 기본 성원은 농촌에서 遊離한 농민들이었으나

47) 「전사 8」, p. 211.

48) 위의 책, p. 212.

여기에 천민·하급승려 등도 대거 참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6세기의 반봉건투쟁이 지닌 특징은 그 前時期에 비해 봉건적 억압과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던 노비, 백정 등 최하층 신분에 속해 있던 인민들이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과 농민들이 무장대를 구성해 용감한 투쟁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무장대의 투쟁은 통일된 역량으로 묶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의 봉기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적이고 전국적인 농민폭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⁵⁰⁾

「전사 10」에서는 17세기를 봉건지주적 토지소유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봉건착취형태가 변화하여 봉건사회의 분해가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로 파악하고 있다. 봉건국가의 국가기관들인 각 아문과 왕실귀족들인 궁가들, 그리고 양반관료지주들이 중앙집권제의 약화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고리대착취 등의 경제적 방법에 의해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함으로써 지주적 토지소유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봉건지주와 농민사이의 신분적인 지배예속관계를 경제적 예속관계로 전화시켜 봉건적 토지소유관계를 완만하게나마 분해시키고, 농촌사회의 계급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봉건적 사회관계

49) 「전사 9」, p. 88.

50) 위의 책, pp. 100~105.

의 분화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⁵¹⁾

이 시기 인민들의 투쟁의 특징을 「전사 10」은 농민무장대 투쟁의 고양과 더불어 개별적인 농민·노비들의 폭력적인 투쟁이 적극화된 점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이 적극화된 투쟁에 의해 ‘인민들’은 봉건통치배들로부터 대동법의 실시라든지 ‘무상부역노동제’가 보수를 일정하게 받는 ‘雇役制’로 전환되는 등의 양보정책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전개된 투쟁은 인민들의 계급의식이 아직 미약하고 투쟁이 분산성과 산만성을 띠고 전개되었으므로 중세 농민투쟁의 일반적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²⁾

「전사 11」에서는 18세기를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하고 봉건적 제관계가 붕괴되어 가는 시기로 파악한다. 즉 18세기는 그 以前 시기보다 금속화폐의 주조와 그 유통량이 비할 바 없이 증대되었는데, 이런 화폐경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봉건적 신분제도가 분해되고 그 반작용으로서 한층 강화된 착취가 절대다수 농민의 빈궁화를 급격히 촉진하고 농촌에서의 계급분화 과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기의 노동력 밖에 팔 것이 없는 無產者를 量產해 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화폐경제의 발전은 극소수의 부유한 자들과 상인들

51) 「전사 10」, p. 107.

52) 위의 책, p. 175.

가운데 광업이나 금속가공업을 비롯한 수공업 등 일부 생산부문에 자기의 자본을 대고 고용노동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적 경영을 진행하는 자들을 등장케 했고, 그 결과 봉건사회의 태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오면 봉건적 토지소유의 확대에서나 토지경영 및 지대착취에서 경제외적 강제보다도 경제적 방법으로 토지를 집중시키고 ‘인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⁵³⁾

이런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 맞서 「전사 11」은 18세기에 도 ‘인민들’이 遊離와 시위 및 성토투쟁을 벌이고, 정감록·도선비 기 등의 예언을 퍼뜨리는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전개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투쟁의 가장 큰 원인은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착취에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전사 11」은 18세기 ‘인민들’의 투쟁이 그 以前 세기에 있었던 투쟁과 성격에서 본질적으로 같았으나 봉건사회 분해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한다.⁵⁵⁾ 즉 18세기 ‘인민들’의 투쟁이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을 것을 지향한 목적의식화된 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규모 농민폭동, 농민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산발적인 투쟁에 그쳤으나⁵⁶⁾ 도시빈민들인 수공업자, 하층군인 등이

53) 「전사 11」, p. 6.

54) 위의 책, p. 197.

55) 위의 책, p. 175.

56) 위의 책, p. 188, pp. 204~209.

투쟁에 참가한 것은 봉건적인 제관계가 무너져가던 시기에 새로운 계층들이 투쟁무대에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 주었으며, 특히 노비농민들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봉건사회가 분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사 12」에 따르면 19세기 초·중엽은 “평안도농민전쟁⁵⁷⁾으로부터 시작하여 1862년의 전국적농민폭동으로 막을 닫게 되는 우리 인민의 투쟁으로 가득찬 시기로서” “인민들의 반봉건투쟁이 가장 치렬하게, 자주 벌어진 폭동의 시기”였다.⁵⁸⁾ 이 시기에 이처럼 반봉건투쟁이 극심했던 이유는 봉건통치제도가 세도정치로 출현으로 더욱 문란해졌고 봉건통치배들이 극도로 타락부패하여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봉건통치배들은 부패타락하여 갈수록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였고 이는 필연적으로 ‘인민대중’의 격렬한 투쟁을 야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사 12」는 19세기의 주요 반봉건투쟁으로 1811년~1812년의 ‘평안도농민전쟁’, 1833년의 서울 빈민들의 쌀폭동, 1862년의 진주 농민폭동을 포함해 三南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폭동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들은 “그 규모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을뿐아니라 투쟁력량의 포괄범위와 투쟁형태, 투쟁구호와 성격에서도 이전시기와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57) ‘홍경래의 난’을 말한다.

58) 「전사 12」, p. 7, 9.

있으며, 이 특징들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평안도농민전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⁹⁾

‘평안도농민전쟁’의 특징으로 「전사 12」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3가지이다. 첫째,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면밀한 계획과 장기간의 준비에 기초하여 목적지향성있게 조직, 전개된 무장폭동이라는 점, 둘째, 광범한 계급과 계층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봉건제도의 분해기,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기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광산노동자, 기업가, 대상인 집단의 신흥계층이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셋째, 농민들이 봉건제도의 일부 변경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현존 봉건정권의 타도와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지향한 점이다.⁶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사」에서는 반봉건투쟁의 발전을 대체로 투쟁형태의 발전, 즉 폭력성의 고양, 조직성과 대중성의 강화, 투쟁의 지속성, 투쟁전술의 발전에 기준을 두고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반봉건투쟁의 전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폭력성의 개재 정도에 따라 소극적 투쟁과 적극적 투쟁으로 분류하여 소극적인 투쟁은 봉건시대 前期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그다지 큰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반봉건투쟁에 대한 「전사」의 서술은 모든 투쟁의 의의를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찾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쟁들이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어 역사발전의 추진

59) 위의 책, p. 10.

60) 위의 책, pp. 53~56.

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들’의 투쟁은 항상 미화되고 있다. 즉 봉건사회의 계급대립을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단순화한 뒤 지배층의 부패와 타락, 억압과 착취, 외침에서 보여주는 동요와 비겁성을 강조하는 반면 피지배층은 늘 선하고 옳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⁶¹⁾

61) 고동환, “봉건사회의 농민항쟁 (2),” p. 287.

第 V 章 近世史 認識

개항 이후 일본과 서구 등의 외세와 더불어 근대가 찾아온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舊來의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하고 외세 침략에 맞서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는 반침략투쟁이 민족운동의 핵심이자 시대적 과제가 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북한 역사학계는 1860년대 이후부터 1925년까지를 근세로 잡고 대체로 이 시기를 이같은 내용을 가진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단계로 보고 있다.

반봉건·반외세투쟁이 이 시기의 시대적 임무라는 관점은 남한 역사학계도 공유하고 있다. 시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한 남북한의 연구가 서로 일치하는 점도 있으나 실제의 역사서술에서는 상호간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많다. 물론 이런 차이는 남북한 학계의 정치적·학문적 입장의 상이함에 따른 것이다.

1. ‘1884년 부르조아혁명’ – 甲申政變

개화파나 갑신정변에 대한 북한학계의 평가는 초창기의 경우 비판적이었다. 1949년에 출간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개화파의 의도가 일본을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들이 일본에 이용당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갑신정변에

관한 평가도 봉건국가를 개조하여 근대적 새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조선에서의 최초의 개혁운동이었다는 데 의의가있지만 외국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몇몇 귀족계급 가운데 몇 사람의 선진분자가 근대적인 주권확립을 기도하여 실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근대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50년대 후반 이후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갔다. 변화의 기점은 1956년 4월 23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강조된 것이 근대혁명사 연구의 중요성과 주체적인 관점의 역사서술이었다. 1958년 리나영이 저술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갑신정변에 대한 이 책의 평가는 종전에 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위로부터의 미숙한 부르조아개혁운동이었는데 이 개혁운동은 당시의 뒤떨어진 사회경제상태 가운데에서 조선사회발전의 객관적인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봉건조선을 비록 불철저하기는 하나 근대국가로 개변시키려 했던 것에 일정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갑신정변은 조선에 있어서의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서막으로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 개혁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의가 있다. 또 1880년대의 개화사상과 개화파의 이러한 개혁운동은 조선인민을 각성시켜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민족정신과 근대적인 신문화계몽운동을 북돋우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1880년대 초기에 개화파의 정치활동은 결국 조선

사회의 역사적발전을 어느정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¹⁾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리나영은 갑신정변을 '부르조아민족 운동'의 서막으로 규정했다. 1958년판 「조선통사(하)」도 리나영의 이 견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갑신정변과 개화파에 대한 평가는 1958년 3월 김일성이 행한 교시에 의해 사실 그 테두리가 정해졌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일찌기 부르조아혁명을 하고 자본주의발전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데 대하여 나는 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장유위, 량계초 같은 사람들이 부르조아개혁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옥균이 그러한 운동을 하였다고 볼수 있겠는데 일부 학자들은 깊은 연구도 없이 김옥균을 친일파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다아는바와 같이 일본은 동양에서 제일 먼저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김옥균은 자본주의일본을 리용하여 우리나라를 개명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우리 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니 그는 결국 친일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김옥균이 친일파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²⁾

김일성의 이같은 교시를 계기로 갑신정변에 대한 연구는

-
- 1) 오미일, "갑신정변, 갑오개혁,"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p. 354에서 재인용.
 - 2)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과업,"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70~171.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데, 그 연구결과가 반영된 것이 1961년에 발간된 「조선근대혁명운동사」이다. 갑신정변에 대한 이 책의 서술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³⁾

첫째는 갑신정변의 반외세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종래 갑신정변의 의의는 반봉건적인 점에서만 강조되었었다. 이는 “갑신정변은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이용당하고 침략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으며 개화파는 친일파에 가까웠다”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화파가 준비도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정변을 서둘렀던 것은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선이 외래자본주의의 침략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함을 절실히 인식”했기 때문이며, “옛 봉건제도를 자본주의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개혁하려던 바는 무엇보다도 외래침략자로부터 나라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려함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새로이 평가하여 갑신정변의 반침략적·자주적 성격을 부각시킨 것이다.⁴⁾

둘째는 갑신정변의 지도사상이었던 개화사상이 개항 이후 서양이나 일본의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를 수입함으로써 형성되었다는 종래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그 사상적 연원을 실학사상에서 구함으로써 내재적 발전의 소산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개화사상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근대조선의 사회

3) 오미일, “갑신정변, 갑오개혁,” pp. 86~87.

4) 「조선근대혁명운동사」는 1988년 서울의 한마당 출판사에 의해 영인되어 출간되었다. 인용된 부분은 영인본의 pp. 64~65 참조.

경제적 발전과 민족적 위기를 반영한 합법칙적인 산물이었다”라든가, “실학사상의 현실주의적이며 애국주의적인 요소는 일련의 선각자들을 각성시켜, 그들에 의해 개화사상으로 발전·계승되었다”⁵⁾라고 서술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조선근대혁명운동사」의 연구방향 및 분석시각은 그 대로 골격을 유지하면서 갑신정변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옥균」⁶⁾에서 내용적으로 더욱 풍부해지고 이는 「전사」에 계승된다.

「전사 13」에서도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가 나라의 봉건적락후성을 없애고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행한 우리 나라에서의 첫 부르조아혁명”인 동시에 “나라의 반식민지화과정을 저지시킬것을 지향한 애국적인 정변”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전사 13」이 지적하는 갑신정변의 실패원인은 네 가지이다.⁸⁾

첫째는 개화파의 계급적 제한성이다. 즉 개화파는 봉건관료 출신의 혁신층이었기 때문에 봉건세력과 타협하여 위로부터의 상층개혁을 통해 ‘부르조아혁명’을 수행하려고 했을 뿐, 반침략·반봉건운동의 기본동력인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유도

5) 위의 책, pp. 52~53.

6) 12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가 1964년에 발간한 이 책은 11편의 논문과 연표, 김옥균의私信 및 논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70여 쪽에 이른다. 이 책은 서울의 역사비평사에 의해 1990년에 영인되어 출간되었다.

7) 「전사 13」, p. 7, 254.

8) 위의 책, pp. 254~257.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화파의 전술적 착오이다. 개화파가 정권을 세운 다음 반혁명세력의 무장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지 못한 것과 수구파 반동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 일본의 배신 가능성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것 등이 그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는 일본,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침략세력의 배신행위이다. 자본주의 침략자들은 개화파의 노력에 일관되게 적대적 태도를 취하였고 이따금 허울좋은 ‘원조자’로 행동한 것은 개화파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 침략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는 봉건중국 반동지배층의 침략적 무력간섭이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횡포한 내정간섭을 감행하여 온 봉건중국 간섭자들은 갑신정변의 승리를 가로막고 보수세력을 되살리는 반혁명세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사 13」은 이런 이유로 갑신정변이 실패하였지만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선구로서 그 이후의 운동들에 계승·발전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⁹⁾

2. ‘갑오농민전쟁’

흔히 ‘동학란’으로 지칭되는 역사적 사건을 북한에서는 ‘갑오농민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의 성

9) 위의 책, pp. 257~258.

격에 대한 해석은 북한학계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¹⁰⁾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은 크게 4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그것은 ‘갑오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계, ‘갑오농민전쟁’의 주도세력, ‘갑오농민전쟁’의 목표, ‘갑오농민전쟁’의 실패요인이다.

우선 ‘갑오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948년 리청원이 엥겔스의 「독일농민전쟁」의 이론을 빌어 동학이 ‘갑오농민전쟁’에 영향을 주었다는 ‘종교적 외피론’을 주장한¹¹⁾ 이후 이 說이 定說로 채택되었다.

1949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도 ‘갑오농민전쟁’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제약된 조건하에서 동학이라는 종교적 의상을 걸친 농민의 봉기라고 평가했다. ‘종교적 외피론’을 수용한 점에서는 1958년판 「조선통사(하)」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여기서는 “당시 동학의 수령이던 최해월 일파들은 도리어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봉건통치배들에게 청원과 타협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려 하였고 혁명적 확대발전을 시종 저애하였다”고 하여 동학, 특히 동학상층부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종교적 외피론’은 반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1959년 8월에 개최된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과학토론회’는 이 문제를 놓고 참여한 대립을 보였다. 여기서는 동학사상이 농민봉기의 사상

10)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북한학계의 평가동향에 대해서는 조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혁명 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서울: 집문당, 1994), pp. 199~224 참조.

11) 리청원,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의미,” 「력사제문제」, 1948년 3호.

적 기치가 되었고, 동학조직이 '갑오농민전쟁'을 확대함에 있어 핵심적인 조직체가 되었다는 '종교적 외피론'과 '갑오농민전쟁'은 고부농민의 자연발생적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봉준을 비롯한 양심적, 선진적 사상을 지닌 유생양반, 지식인들의 지도하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여기에는 오히려 농민군의 활동과 격문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반론이 맞서 팽팽한 논전이 전개되었다. 결국 토론은 '종교적 외피론'을 부정하는 한편, '갑오농민전쟁' 발발과정에서 동학도들과 동학의 조직망이 담당할 역할을 도외시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갑오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계에 대한 북한학계의 공식적인 견해로 굳어져 1960년 이후의 '갑오농민전쟁' 서술에 반영되었다.

「전사 13」도 “동학은 비록 민족적인 종교로서 1860년대 이후 농민들의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해왔으나 그것은 중세기적인 종교적형태를 띠고있는 자체의 본질적인 제약성으로 하여 근대적부르조아계몽사상이 대중속에 전반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농민운동을 추동하는데서 더는 긍정적 역할을 할수 없었다”¹²⁾고 하여 동학사상을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사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농민출신의 동학 하층교도들은 상층교도들과는 달리 동학자체의 신앙보다도 기아와 빈궁의 운명에서 벗어나

12) 「전사 13」, p. 285.

려는 염원이 더욱 강력했고 또 많은 농민들이 동학의 지방조직에 망라되어 있었으므로, 그 조직을 이용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농민들을 반봉건투쟁에 동원할 수 있었음을 들어 동학의 하부조직이 ‘갑오농민전쟁’에 어느 정도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다.¹³⁾ 이는 앞서 ‘갑오농민전쟁’ 발발과정에서 동학도들과 동학의 조직망이 담당한 역할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토론회의 결론이 반영된 것이다.

‘갑오농민전쟁’의 주도세력, 특히 전봉준에 대한 북한학계의 견해는 ‘종교적 외피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동학의 ‘종교적 외피론’을 지지하던 論者들은 전봉준이 동학의 하층간부였음을 강조한 반면, ‘종교적 외피론’을 부정하던 論者들은 전봉준과 동학과의 관계도 부정하였다.

일찌기 동학의 ‘종교적 외피론’을 주장한 리청원은 전봉준 이하 동학의 하급간부들이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리청원의 견해에 대해 오길보는 동학사상 및 동학조직과 ‘갑오농민전쟁’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전봉준을 동학의 접주로 보는 것이 기왕의 견해였으나 그를 동학의 접주로 불만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까닭에 동학도가 아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¹⁴⁾

결국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의 결론은 전봉준의 동학도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가 누구를 위하여 투쟁했

13) 위의 책, p. 293.

14) 오길보,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역사과학』, 1959년 5호.

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결론은 이후 북한학계의 공식견해로 자리잡게 되었다.

「전사 13」도 ‘갑오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을 논하는 경우 단순히 ‘농민대중’이라고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경우에도 “피압박계급의 기본대중이었던 농민을 비롯한 천민, 상인, 수공업자, 하급관리등 각 계층의 인민들이 참가하였고 투쟁이 침략자를 반대하는 반침략적 성격을 띤 전쟁으로 발전하였을 때 거기에는 군인들과 관리, 유생 등 지배계급에 속하는 일부 사람들까지도 합세하였다”¹⁵⁾고 할 따름이다. 이는 북한학계가 개항 이후 진행된 사회·경제적 충격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전개되고 있던 농민층 내부의 계급구성의 변화를 포착하여 그 속에서 어떤 계층이 주도적으로 ‘갑오농민전쟁’을 이끌어갔는가를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의미한다.¹⁶⁾

한편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시 농민들이 어떠한 내용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지향하였고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꿈꾸고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의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 1949년판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갑오농민전쟁’이 반봉건적 성격을 지닌 계급적 전쟁이었고 외국의

15) 「전사 13」, p. 353.

16) 양상현, “1894년 농민전쟁과 항일의병전쟁,”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p. 135.

략에 대해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투쟁이었다고 하여 반봉건·반침략적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했다. 1958년판 「조선통사(하)」도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분석하여 ‘갑오농민전쟁’이 “국내 봉건통치계급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한” 반봉건·반침략적 성격의 것이었음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갑오농민전쟁’이 봉건군주제도 자체의 근본적 폐기까지는 제기하지 못한 한계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1961년판 「조선근대혁명운동사」나 「전사」의 서술도 ‘갑오농민전쟁’이 반봉건·반침략투쟁이었지만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전사 13」은 ‘갑오농민전쟁’이 “일본군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구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으로 참여화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에 의하여 일어난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대중투쟁이었다”¹⁷⁾고 하여 앞서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전사」는 이와 아울러 ‘갑오농민전쟁’의 한계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봉건제도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사회를 근대화할데 대한 근본적인 정치적요구를 제기하지 못하였고 또한 봉건제도의 개혁에서 근본문제로 되는 토지문제 해결에서 균등경작을 제기하였을뿐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철폐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⁸⁾

17) 「전사 13」, p. 348.

18) 위의 책, pp. 320~321.

마지막으로 ‘갑오농민전쟁’의 실패원인에 대한 북한 역사서들의 서술을 보면, 우선 1949년판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첫째,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당의 지도가 없었고 투쟁원칙에서 일정한 혁명적 강령도 없었을 뿐 아니라 계획성과 무장준비, 훈련이 부족하여 인민을 조직화하지 못한 점, 둘째, 전주점령 후 곧바로 주력군을 동원하여 서울로 진격하지 못한 농민군 지도부의 전략전술상의 오류, 셋째, 유격전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陣地戰을 사용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조선통사(하)」도 ‘갑오농민전쟁’의 영도계급에 대해서 ‘새로운 선진적 계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대체로 이와 같은 원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리나영이 저술한 1958년판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도 ‘갑오농민전쟁’이 실패한 원인으로서는 새로운 선진적 계급의 영도가 없었다는 점, 농민군에 혁명적인 강령이 없었다는 점, 일본군의 막강한 무력에 비해 농민군의 행동이 비조직적이었던 점, 농민군 지휘부가 정치·군사상 및 전략·전술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1961년에 출판된 「조선근대혁명운동사」는 실패원인으로 농민군의 계급적·정치사상적 한계와 전략·전술상의 오류를 지적할 뿐, 선진적 계급의 지도가 없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책은 “1894년 농민전쟁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부르조아민족운동이 선진적계급의 지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적대중에 의해 힘차게 심화·발전되어 온 역사적 과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이 시각은 1971년판 「력사사

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 13」에서는 김일성이 노동계급 영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설을 인용하면서¹⁹⁾ 다시 선진계급의 지도부재를 실패의 중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²⁰⁾

이같은 관점의 변화는 1950년대말에서 1960년대에 걸쳐 적용된 “민족문화 유산의 전면적 계승·발전”이라는 역사연구의 시각이 1970년대 이후에는 ‘비판적 계승’으로 바뀌면서 “그 시대에서 행한 긍정적 역할을 평가함과 함께 그 역사적·계급적 제약을 엄격히 추급하고, 현재의 로동자계급의 립장에서, 올바르게 계승·발전시켜야할 것과 부정할 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역사해석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²¹⁾

3. 甲午改革

북한 역사학계는 갑오개혁도 1958년 以前까지는 조선침략에 편리하도록 일본공사가 직접 ‘개혁안’을 제출하여 실시를 강요한 타율적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1954년판 「조선력사」에서는 1894년 6월에 수립된 김홍집·박영효의 연립정권

19) 인용된 김일성의 연설은 다음과 같다.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은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에 대한 중요성은 있지만 로동계급의 정도를 받지 못하면 계급적원썬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못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정신도 약합니다.”

20) 「전사 13」, pp. 350~351.

21) 하원호,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발생·발전,”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p. 111.

을 ‘친일파개화당’이나 ‘괴뢰정부’라 부르고 “일본침략자들이 근대국가를 창설한다는 미명아래 조선인민을 속이고 자신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편리하도록 각종 내정에 변경을 가하였다” 하여 갑오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점에서는 1958년판 「조선통사」나 리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도 혁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이었고 그 본질은 “일본의 조선침략의 길을 닦아주는 사업의 하나”였다고 함으로써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피력되었다. 그러나 이 책들은 “개혁안의 대부분이 1894년 갑오농민전쟁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조선인민들의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당시 조선사회의 발전방향과 조선인민의 지향이 일치되었으므로 형식상 부르조아적 상층개혁의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갑오개혁에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양면적인 평가는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 이르러 보다 논리적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에서 “갑오개혁은 갑신정변에 이은 두번째의 위로부터의 부르조아개혁으로 이는 농민대중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화사상의 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체의 미약함, 불안정으로 개혁이 충분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사」는 바로 이같은 인식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사 13」의 서술내용을 통하여 갑오개혁에 대한 북한학계

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우선 갑오개혁은 “봉건지배계급출신의 혁신관료들에 의하여 단행된 근대적인 상층개혁”으로 정의되고 있다.²²⁾

따라서 군국기무처를 기본으로 한 혁신정권도 근대적 개혁을 목적으로 한 진보적 정권이었다고 한다.²³⁾ 이 혁신정권이 단행한 개혁조치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반제·반봉건 투쟁에 쫓겨난 농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근대적 부르주아개혁으로서, 이의 근대적 성격은 봉건적 관료기구들이 근대적 유형의 국가로 개편되었고, 각종 봉건적 차별제도들을 청산함으로써 사회생활의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경제분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많은 본질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부르주아지’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자본가 계급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지지라는 자체의 확고한 계급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점, 외세가 침입한 조건에서 개혁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부르주아혁명이나 근대적개혁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민대중과 동맹하여야 함”에도 농민군과 동맹하지 못한 점 등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성은 이후 갑오개혁을 철

22) 위의 책, p. 355.

23) 위의 책, p. 369.

24) 위의 책, pp. 382~384.

저하게 수행할 수 없게 한 내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그리고 이 제한성 때문에 갑오개혁도 농민대중의 요구를 적지 않게 반영하였지만 당시 농민들의 요구에서 근본문제인 토지문제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내용도 담지 못하여 농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못함으로써 근대적 개혁으로서의 미숙성과 불철저성을 드러냈으며, 내외의 반대세력으로 인해 급진적으로 단행된 결과 충분한 준비하에 철저히 진행될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진다고 하였다.²⁶⁾ 결국 갑오개혁은 “조선의 근대화를 원치않는” 일본이 개입함으로써 군국기무처가 해산되어 좌절되었으나, 그 개혁내용은 “그 후 부르조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권>운동에서 계승발전되었고 애국문화운동과 반일정치단체운동에 고무적인 힘으로 되어” 이후의 반일투쟁과 근대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갑오개혁에 대한 북한학계의 총괄적인 평가이다.²⁷⁾

4. 獨立協會運動

북한학계는 독립협회운동을 ‘부르조아민권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학계에 따르면 민권운동이란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제도가 발생하는 시기에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부르조아지의 정치적권리의 확장을 목표로 하여 벌어지는 운

25) 위의 책, pp. 369~371.

26) 위의 책, p. 384.

27) 위의 책, p. 388, 391.

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갑오농민전쟁과 1895~1896년 반일의병투쟁의 고무적 영향밑에 19세기말 반침략반봉건투쟁의 새로운 형태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이 ‘민권운동’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는 他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실적면에서 볼 때 「력사과학」에 실린 갑신정변 관계논문이 12편, 갑오개혁이 4편인데 반해 독립협회운동이나 만민공동회운동은 단 1편이라는 사실에서도 북한학계의 연구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이 직접적인 권력교체나 개혁실시를 수행한 ‘부르조아개혁운동’의 전형으로서 주목받은 반면, 독립협회운동이나 만민공동회운동은 개혁요구를 정부의 정책에 건의·반영시킬 수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탓으로 생각된다.²⁹⁾

1949년판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도 “설립당시의 독립협회는 정치단체라기보다 상층관료의 사교장이었는데 차츰 서민이 참가하게 되면서 진보적인 정치운동단체로서의 발전을 수반했으며, 외세의존사상의 배제와 황제중심정치의 강화를 강조했다”고 하여 역사적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28) 「전사 14」, p. 39.

29) 오미일, 「갑신정변, 갑오개혁」, pp. 107~108; 「전사 14」에서도 ‘부르조아민권운동’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20여 쪽에 불과하다.

1958년판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독립협회가 19세기말 반침략·반봉건운동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지만 “미국선교사, 고문의 지시하에 조직되었던 친미단체로서 친미세력을 확대강화하고 친미파의 정권쟁탈을 위한 도구의 하나로서 봉사했다”고 비판했다.

여타 운동에 대한 북한학계의 시각이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독립협회에 관한 서술은 이 시기까지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서 독립협회운동은 ‘부르조아민권운동’으로서 별도로 서술되지 않고 ‘초기의 애국운동’편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는 북한학계가 여전히 독립협회운동에 그다지 역사적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전사 14」는 독립협회운동이 “종전처럼 몇몇 혁신관리들의 개혁운동으로써는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할수 없다고 인정하고 인민대중의 투쟁에 편승하여 제국주의침략을 저지시키며 부르조아지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함으로써 나라를 근대화하려는”³⁰⁾ ‘애국적 지식인’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과는 달리 광범한 군중의 참가밑에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각과 투쟁기세를 높여주고 부르조아적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사상을 전파하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³¹⁾ 이런 서술경향은 대체로 1970년대 이후

30) 「전사 14」, p. 39.

31) 위의 책, p. 39, 62.

에 등장하는데, 이는 독립협회운동을 以前까지의 ‘상층 부르쵸아 개혁운동’보다 발전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도의 산물이다.³²⁾

5. ‘반일의병투쟁’

이 운동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도 1960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일의병투쟁’에 대해서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는 식민지화 과정에서의 ‘민족해방투쟁’과 아직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방위투쟁’의 성격을 띤 ‘부르쵸아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의병투쟁이 “19세기후반 이후의 부르쵸아민족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장기적이며 광범한 민족적력량이 동원되었고 투쟁의 규모가 더욱 확대된 민족운동이며 인민적혁명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적이며 광범한 민족적력량이 동원”되었음에도 실패로 끝났던 이유는 첫째, 선진계급의 지도가 없었고, 둘째, 토지혁명과 같은 농민의 계급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반제·반봉건투쟁이었으면서도 반봉건투쟁의 내용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셋째, 의병부대가 군사조직상의 일련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넷째, 국제정세가 매우 불리한 조건속에서 투쟁이 진행된 데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투쟁의 큰 역사적 의의는 ‘부르쵸아민족운동’을 전민족적 규모

32) 하원호, “부르쵸아민족운동의 발생·발전,” p. 120.

의 반제·반봉건투쟁으로 고양시켰으며, 당시 ‘애국계몽문화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운동의 발전에 자극과 영향을 주어 반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촉진시켰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은 「전사」에서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전사 14」는 ‘반일의병투쟁’의 양상과 그 성격변화를 3시기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첫째 시기는 1895년에서 1896년까지로 의병투쟁의 발생기인데 이 초기의 의병투쟁은 일제의 침략이 점점 거세어지면서 ‘갑오농민전쟁’ 이후에도 분산되어 활동하던 농민무장대가 모체가 된 의병대에 의해 진행되었고, ‘민비학살만행’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의병투쟁은 의병장으로 나섰던 유생들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시기의 활빈당 등 농민무장대에 고무적인 영향을 준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³³⁾ 두번째 시기는 “일제가 로일전쟁을 도발한 후 우리 나라의 국권을 보다 로골적으로 유린”하기 시작함으로써 1904년부터 의병투쟁이 재발한 시기이고³⁴⁾ 세번째 시기는 1905년 ‘을사 5조약’의 체결됨으로써 의병투쟁이 급격히 확대된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농민·노동자·지식인·학생 등의 각계각층이 투쟁에 참가하였고 투쟁목표도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는 초기의 보수적 구호를 넘어 ‘을사 5조약’의

33) 「전사 14」, pp. 24~38.

34) 위의 책, pp. 92~99.

폐기를 주장하는 등 독립을 지키려는 목적을 뚜렷이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³⁵⁾ 또한 ‘을사 5조약’의 체결로 급격히 확대된 의병투쟁은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고 군대해산이 있게 되자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사 14」는 1907년 이후의 의병투쟁이 ‘인민대중’의 광범한 참가 밑에 진행되고 그 성격에서도 새로운 특징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반침략적 성격과 함께 반봉건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을 들고 있다. 반봉건적 성격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의병투쟁이 봉건적 수탈을 거부하고 신분제에 반대했으며 근대적 교육운동을 지지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생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평민세력이 현저히 강화된 것도 새로운 변화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병투쟁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에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계속된 한편, 1910년경부터는 독립군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³⁶⁾

‘반일의병투쟁’의 역사적 의의와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전사 14」의 설명은 「조선근대혁명운동사」와 대동소이하다. 역사적 의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서로 융합되지 못한 투쟁조류로서 흘러내려온 위정척사운동과 부르조아적개혁운동이 서로 결합되려는 매듭을 지어

35) 위의 책, pp. 122~127.

36) 위의 책, pp. 214~219.

놓음으로써 민족운동의 통일적 발전에서 새로운 계기를 열어 놓았다”는 데서 찾고 있으며, 실패원인으로는, 의병투쟁에 대한 선진계급의 지도가 없어 의병운동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보장되지 못한 점, 무장장비·식량·장기적 항전에 필요한 기지의 결여 등 군사활동상의 많은 제약을 안고 있는 점, 미영제 국주의를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이 의병 투쟁에 대한 일제의 탄압을 지원한 점, 국내통치계급이 지지는 커녕 침략자와 결탁하여 의병을 탄압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⁷⁾

6. ‘애국문화운동’

남한에서 ‘애국계몽운동’으로 지칭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애국문화운동’으로 부르고 있다. 이 운동에 대해 49년판 「조선 민족해방투쟁사」는 ‘애국문화계몽’이란 명칭하에 언론·교육운동, 학회 및 사립학교 설립운동, 조선연구열의 발흥, 국문보급운동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인데, 이 가운데 특이 점은 “애국문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한편 개별적으로는 일제침략자와 매국도배에 대해 격분하여 그들을 암살하는 개인적인 애국테러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애국문화계몽운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애국테러운동’을 “대중과 괴리된 개인본위의 행동”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으로 보인다.³⁸⁾

37) 위의 책, pp. 221~222.

38) 오미일, “갑신정변, 갑오개혁,” p. 115.

1958년판 「조선통사(하)」는 이같은 나열적 서술에서 벗어나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성격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9세기말 20세기초의 문화계몽운동은 국내외의 적들-외래 자본주의 침략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국내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반제반봉건투쟁과 자유, 평등, 민권, 문명, 개화 등을 표방하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는 선진사상을 반영한 애국적이며 계몽적인 내용을 안받침한 새로운 내용과 아울러 봉건문화로부터 현대문화로 이행하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한 부르조아민주주의 문화계몽운동이었다..... 계몽사상가들은 현실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데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힘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향하였다..... 이러한 것은 조선에서 자본주의발전이 미약한 것에 기인하나 애국적 문화계몽사상운동은 인민대중을 적극적인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성이 부족하였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일의병투쟁과 같은 실천적 투쟁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을 해방투쟁의 강력한 역량으로 결속하지도 못하였다.³⁹⁾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학계는 ‘애국문화계몽운동’을 ‘부르조아민족운동’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시기의 반침략·반봉건투쟁인 의병투쟁과 비교하면서 그 한계로 대중을 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성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운동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도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

39) 위의 논문, p. 115에서 재인용.

화되었다.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도 ‘애국문화계몽운동’을 “대두하는 민족부르조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제요구를 반영하여 전개된 반침략반봉건적운동이었다”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 말의 독립협회운동과 20세기 초의 애국계몽운동을 ‘19세기말~20세기초의 애국문화계몽운동’이란 節 속에 함께 묶어 독립협회운동을 초기의 ‘애국문화계몽운동’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시작된 ‘애국문화계몽운동’이 1905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애국문화계몽운동’의 한계성으로 ‘민족부르조아’의 정치적·경제적 제약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 운동지도세력이 지방주의적으로 분열되어 반일의병투쟁과 연대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다. 부연하면, 그 지도사상이 ‘전투적인 부르조아유물론’으로까지 성숙하지 못해 일제와 봉건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또 운동의 지도층이 활동영역을 계몽에 한정시켜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이끄는 조직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세력 자체가 통일적 세력으로 결속되지 않아 지방주의적 분열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들은 종전의 역사서에서의 서술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서의 서술이 종전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운동이 실학사상과 1880년대 김옥균의 ‘부르조아개혁운동’ 및 신문화 운동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뿐, 1905년의 러시아혁명이 ‘애국문화계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지 않는 점이다. 이는 이 때만 하더라도 이미

역사서술에 있어서의 주체성이 강조된 때문이다.

「전사」의 서술시각도 대체로 동일하다. 「전사」는 운동의 명칭을 ‘애국문화운동’으로 통일하고, 「전사 14」에서 1905년 이후의 운동과정을 ‘애국문화운동의 양양,’ 1907년 ‘정미 7조약’ 이후를 ‘애국문화운동의 확대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사 15」에서 한일합방 이후의 운동과정을 단순히 ‘애국문화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애국문화운동’이 “주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한 조류로서 인민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계몽을 그 활동의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⁴⁰⁾면서 각종의 언론·출판활동, 학회 및 사립학교 설립운동, 근대화 계몽운동을 시기적으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08년에서 1909년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민족주의 세력이 대한협회·신민회 등을 중심으로 한 애국적인 조류와 타협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두 조류로 분열된다고 하였다. 이는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양자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에서 차별성을 보이며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시기에 가서 더욱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고 한다.⁴¹⁾

‘애국문화운동’의 본질적 결함과 제한성에 대해서는 이 운동이 ‘부르조아민족주의’에 기초함으로써 애국정신과 선진지식을 보급하는 활동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중을 혁명적인 투쟁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운동 상층 자체가

40) 「전사 14」, p. 132.

41) 위의 책, pp. 235~237.

통일적인 역량으로 결속되지 못한 데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해 ‘애국문화운동’은 처음부터 ‘반일의 병투쟁’과 합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애국문화운동’이 ‘반일의 병투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기본조류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반일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한 것이 “조선인민의 반일항쟁을 끝내 실패로 돌아가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자, “이 시기 우리 나라 부르조아민족운동의 가장 큰 약점의 하나”였다는 것이다.⁴³⁾

그리고 한일합방 이전과 이후의 ‘애국문화운동’은 특성상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이가 합방 이전의 ‘애국문화운동’이 문화 계몽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면 합방 이후의 운동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요 구성부분의 하나로 전환된 것, 합방 이전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주로 합법적인 형태로 벌어졌다면 합방 이후의 운동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 때로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벌어진 것, 합방 이전의 운동이 교육운동, 반일출판활동, 국문운동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전개하였다면 합방 이후의 운동은 교육운동을 주로 전개한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⁴⁾

42) 위의 책, pp. 254~255.

43) 위의 책, p. 255.

44) 「전사 15」, p. 86.

7. '3·1인민봉기'와 '부르쥬아민족운동의 몰락'

북한학계는 1910년대의 항일독립운동을 3·1운동의 배경으로 그리고 1920년대의 '민족해방투쟁'의 준비작업으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전사 15」는 1910년대의 항일독립운동을 '반일의병운동, 독립군운동'과 '반일정치운동,' '애국문화운동'으로 계열화하여 설명하면서 이것과는 별도로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언급하고 있다.⁴⁵⁾

'반일의병운동·독립군운동'으로서는 수안·곡산지방의 채응언과 평산지방의 김정환의 활동 및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에서의 유인석·이진룡·조맹선·홍범도 등 의병장 출신의 활동을, '반일정치운동'으로서는 독립의군부·대한광복단·조선국권회복단·기성빨단·산직계·송죽회 등의 국내비밀결사의 활동과 광복회·권업회·중광단·학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국외의 반일정치단체의 활동을, '애국문화운동'으로서는 서당교육·사립학교 교육·노동야학 등의 교육운동과 애국언론출판활동 및 국문운동을 들고 있다.

일제 초기의 이 모든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북한학계는 모두 '부르쥬아민족주의'기치 밑에 이루어진 애국적인 투쟁이었으며 '반일민족해방운동'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⁴⁶⁾ 그러나 이와 아울러 이 모든 운

45) 위의 책, 제2장.

46) 위의 책, p. 58.

동은 운동을 주도한 상층의 계급적·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해 통일적인 강령과 전략전술에 의해 지도되지 못하고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띠고 진행된 본질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고도 비판되고 있다.⁴⁷⁾ 하지만 이 무렵에 다행히도 이런 약점투성이의 운동에 비하여 미숙하고 초기적인 형태의 것이었지만 민족적·사회적 해방을 지향하는 새로운 투쟁조류가 싹트고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노동자·농민의 투쟁이라는 것이다.⁴⁸⁾

이와 같이 북한학계는 이 시대의 과제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본질적 약점들을 시급히 극복하고 조선민족 자체의 힘을 옹기 조직동원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이것이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의 ‘조선국민회’ 조직으로 해결의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⁹⁾ 이는 북한학계가 김형직의 활동을 ‘부르조아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과의 연결고리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3·1 운동에 대해서 북한학계는 1958년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까지 ‘3·1운동’ 또는 ‘3·1독립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1961년의 「조선근대혁명운동사」부터 ‘3·1인민봉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3·1운동과정에서 33인의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한 역할을 거부하고 3·1운동

47) 위의 책, p. 85.

48) 위의 책, p. 102.

49) 위의 책, p. 86.

을 ‘인민들에 의한 봉기’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전사 15」의 제3장은 ‘1919년 3·1인민봉기’라는 표제하에 84쪽에 걸쳐 3·1운동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3·1운동의 배경으로는 1960년대 중반까지 강조되어 왔던 러시아혁명의 영향이 삭제된 대신에 “거족적인 반일항쟁기운의 성숙”이 강조되고 있다. 즉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며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조선인민의 가슴 속에 쌓인 민족적원한과 울분이 3·1인민봉기를 폭발시켰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3·1운동의 발단으로는 평양에서의 대중적인 독립만세 시위투쟁을 들고, 이것이 서울에서의 시위보다 앞섰다고 한다. 또한 이것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씨앗을 뿌리시고 반일독립운동의 믿음직한 거점의 하나로 꾸려놓으신 평양숭실학교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다”고 하여⁵⁰⁾ 김형직과 숭실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런 설명은 1920년대 이후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서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김형직과 평양의 강조는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출현과 연관이 있고 또 수령의 영도와의 관련되는 문제인 것이다.⁵¹⁾

49) 위의 책, p. 86.

50) 위의 책, p. 120.

51) 윤해동, “3·1운동과 그 전후의 부르조아민족운동,”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 인식 비교강의」, p. 177.

3·1운동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북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철도연선의 郡들로부터 산간지대의 郡으로 번지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말하고 있다. 3월초에는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와 황해도가 중심이 되어 벌어졌으며 3월 중순에야 중부지방 및 남부지방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것이다.⁵²⁾ 이러한 3·1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과 아버지인 김형직의 역할이다.⁵³⁾

그러나 이런 3·1운동도 일제의 야만적인 탄압과 주체적 역량의 부족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끝났으며 그 여파도 이듬해 봄에는 가라앉고 말았다는 것이다.⁵⁴⁾

3·1운동의 실패가 남긴 역사적 교훈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첫째, 탁월한 수령의 영도, 혁명적인 계급과 혁명적인 당의 지도가 없이는 어떤 혁명운동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부르조아민주주의자들’이 더 이상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세력으로 될 수 없으며 ‘부르조아민주주의’가 ‘민족해방운동’의 사상적 기치가 될 수 없다는 것, 셋째,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혁명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를

52) 「전사 15」, pp. 130~131.

53) 예를 들면 “3월3일 만경대일대의 인민들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자이며 열렬한 반일혁명투사이신 강진석선생님의 지도밑에... 평양으로 힘차게 전진하였다.이 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여덟살되시는 어린신 몸으로 거족적인 반일봉기대렬에 참가하시여 보통문까지 가시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경대의 시위투쟁과 김형직이 지도한 ‘조선국민회’ 및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반일봉기가 3·1운동의 확대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의 책, p. 136.

54) 위의 책, p. 183.

철저히 배격하며 주체적인 혁명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 넷째, 무장한 敵과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등이다.⁵⁵⁾ 3·1운동에 대한 연구 초기부터 당과 무력의 부재는 3·1운동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지만 주체사관의 확립과 더불어 수령의 영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덧붙여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북한의 3·1운동에 대한 인식의 특징은 3·1운동이 “전인민적인 민족해방운동이었다”는 것과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최후단계를 3·1운동으로 설정하면서도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형직과 강진석의 역할 및 서북지방의 활동을 강조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한편 북한학계는 3·1운동을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최후단계로 설정해왔기 때문에 3·1운동 이후의 ‘부르조아민족운동’에 대한 언급은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쇠퇴와 몰락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여 왔다. 따라서 「전사 15」의 제4장도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전면적인 쇠퇴몰락’이라는 제목하에 독립군 및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과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이 어떻게 몰락해 가며 “부르조아민족주의자 상층을 포섭하려는 일체의 정책”에 의해 ‘민족개량주의’가 어떤 식으로 대두하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먼저 홍범도·안무·최진동·서일 등이 간도지방을 중심으로

55) 위의 책, pp. 188~195.

전개한 독립군운동이 와해되기 시작한 이유를 3·1운동 후에 ‘부르쥬아민족주의’가 극도로 반동화되어 감에 따라 “자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족주의군대로서의 독립군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었다”는 것과 독립군부대 사이에 반목과 질시가 난무하고 세력싸움이 전면적으로 격화되어 그 활동들이 분산된 데서 찾고 있다.⁵⁶⁾

그리고 상해임시정부는 ‘부르쥬아민족운동’ 상층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치적 야욕을 위한 파벌적 속성과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민수탈을 위한 책동이었다고 비판되고 있다.⁵⁷⁾

사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예로는 구미 열강에의 독립청원, 미국의 위임통치 요구, 파리강화회의에의 대표과전, 임시정부의 직속기관으로서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것, ‘미국회의원동양시찰단’에 대한 환대, 워싱턴회의 및 국제연맹에 대한 진정 등을 들고 있으며⁵⁸⁾ 민족수탈을 위한 책동으로는 ‘운동자금’이란 명분하에 ‘벼슬 임명증명서’인 ‘사령장’을 발급하여 매관매직하고 ‘공채’를 발급하여 모은 자금을 부패타락한 개인생활에 탕진했으며 각종 ‘명령’과 ‘방첩’을 남발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⁵⁹⁾

56) 위의 책, pp. 203~207.

57) 위의 책, pp. 217~224. 상해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은 “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해외에서의 매국배족운동”이라는 제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58) 위의 책, pp. 218~222.

59) 위의 책, pp. 222~223.

뿐만 아니라 1920년대에 일어난 ‘자급자족운동,’ ‘물산장려운동,’ ‘교육진흥운동’ 등은 ‘민족개량주의’의 대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산계급출신인 민족운동 지도자들의 정치적 동요와 그들에 대한 일제의 매수정책의 산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혁명과 반혁명사이에서 언제나 동요하는 립장에 서있는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계급적 본성에 말미암은 정치적 동요와 ‘문화통치’의 허울을 쓴 일제의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서 ‘자치’나 ‘실력양성’이니 ‘민족성의 개량’이니 하는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다.⁶⁰⁾

8. 1920年代 初期의 共產主義運動

북한학계는 1920년대에 들어와 ‘민족해방운동’의 계급적 성격과 내용이 크게 바뀐 것으로 파악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19세기 중엽 ‘부르조아민족운동’이 발생한 시초부터 3·1운동 이전까지는 ‘민족해방운동’이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영향하에 진행되었으나 3·1운동 이후는 ‘민족해방운동’이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맑스-레닌주의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⁶¹⁾

「전사 15」에 따르면 20년대에 들어 노동계급이 ‘민족해방운동’을 영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으로서 투쟁의 선두에 나서

60) 위의 책, pp. 207~215.

61) 위의 책, p. 225.

게 되는 전제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일제지배 초기인 1910년대에 비록 제한된 상황에서도 식민지산업의 발전에 의해 산업노동자의 수가 14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고⁶²⁾ 러시아혁명과 그 영향하에서 노동자의 계급적 각성이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일본자본이 일찍 침투한 운수 부문, 광업부문에 적지않은 노동단체가 출현하고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1910년대 말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노동계급이 일제와 직접 대치하여 압박을 받는 계급으로서 가장 반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⁶³⁾

이렇게 하여 1920년대에는 자연히 맑스-레닌주의가 ‘민족해방운동’의 지도사상으로 되었으며, 국내 각지에 맑스-레닌주의 소조들과 노동단체, 농민단체, 청년단체 등 대중단체들이 조직되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비롯한 대중투쟁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것이다.⁶⁴⁾ 그리고 이런 맑스-레닌주의의 보급과 노동운동의 성장에 기초하여 1925년에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사 15」는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해나가야 할 ‘조선공산당’이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종파분자들의 분열책동으

62) 위의 책, p. 42.

63) 위의 책, pp. 103~108.

64) 위의 책, p. 225.

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창건된지 불과 3년만인 1928년에 해산되었다고 한다.⁶⁵⁾

「전사 15」에 따르면 이렇듯 초기 공산주의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령도자가 없는데” 있었다. 따라서 “오직 탁월한 령도자, 혁명의 위대한 수령만이.... 혼란된 사태를 수습하여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옳은 궤도에 올려 세울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의 출현, 바로 이것이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 발전의 가장 절박한 요구였으며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절절한 념원이었다”⁶⁶⁾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학계의 논리는 20년대의 전반적인 반일투쟁의 발전과정에서 노동자, 농민의 폭력투쟁이 급격히 양양되어 무장투쟁으로 이행할 수있는 전제조건들이 성숙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논리의 귀착점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이론에 의거하여 김일성이 지도하는 ‘항일무장투쟁’이 당시의 정세로 보나 ‘인민’의 반일투쟁 경험에 비추어 보나 필연적인 요구였다는 것이다.

65) 위의 책, pp. 240~244.

66) 위의 책, p. 244.

第Ⅵ章 현대사 인식

1. ‘항일무장투쟁사’

해방 직후부터 북한의 역사학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은 ‘민족해방운동사’, 특히 ‘항일무장투쟁사’ 연구이다. 이는 북한학계가 한국전쟁 이전에 이미 여기에 관한 여러 편의 傳記와 논문을 발간한 데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연구업적으로서 해방 직후를 대표하는 것은 1949년에 나온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이다.

전체 7개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가운데,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제6장 “일제의 대륙침략하에서의 반일무장투쟁”이다. 이 제6장을 집필한 사람은 최창익이다. 여기서 최창익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일제의 쏠기간을 통하여 ‘민족해방투쟁’의 주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속해 있던 ‘조선독립동맹’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다. 이것은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과 자신의 ‘독립동맹’활동 모두에 혁명전통을 부여한 그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해방 직후의 북한 역사학계가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고 있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최창익의 인식은 한국전쟁 이후에

1) 정창현, “항일무장투쟁사 연구,”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p. 247.

김일성 유일체계가 확립되어 가면서 전면적으로 비판을 받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52년 1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당 사상사업과 관련하여 종파주의의 극복,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사업작풍 퇴치, 우리 역사 특히 ‘민족해방투쟁사’와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강조했고 1955년에도 이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강조는 1956년에 발생한 소위 ‘8월종파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어 역사학 분야에서도 교조주의와 종파주의를 퇴치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상사업이 전개되었는데, 이 때 주비판대상이 된 사람이 최창익, 리청원, 김상도 등이다.

당시 역사학분야에서 이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김석형이다. 그는 박헌영과 최창익을 추종하는 일단의 역사가들이 김일성에 의하여 조직되고 지도된 ‘항일무장투쟁’을 과소평가했다고 비판하면서 백두산일대를 근거지로 한 ‘항일무장투쟁’이 ‘민족해방투쟁’의 주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조주의 및 수정주의와의 투쟁은 쏘의사학계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나온 첫 작품이 1958년에 출간된 리나영의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이다.

리나영은 그 서문에서 “최창익 등 반당분파분자들이 분파적목적으로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형성된 참된 혁명적전통을 외곡, 과소평가하고 말살하려 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종파

분자들이 ‘민족해방투쟁사’ 연구에 끼친 해독을 제거하기 위해 집필했음을 밝히고 있다.

전체 10개 章으로 되어있는 이 책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서술하는 데 책 전체분량의 1/3정도를 할애한 반면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무렵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이 이미 유일·배타적인 혁명전통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나영의 서술체계는 이후의 모든 ‘항일무장투쟁사’ 서술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가 나온 같은 해에 과학원 역사연구소가 발간한 「조선통사(하)」의 ‘항일무장투쟁’ 부분의 서술도 리나영의 책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 북한은 1956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당 역사 연구소를 설치하여 빨치산투쟁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1958년 4월에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혁명전통에 관한 자료수집 사업과 그 편집, 출판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 발간과 연구에 기초하여 북한 역사학계는 1961년 조선노동당 제4차 당대회를 기념하여 「조선근대혁명운동사」를 발간한다.

이 책은 1860년대부터 1919년의 3·1운동까지의 5개 章을 전면 ‘부르조아민족운동의 발생발전’으로 묶고, 20년대부터 해방까지의 5개 章을 후편 ‘맑스-레닌주의 기치하의 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발전’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개과정을 “東滿혁명근거지를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의 전개,” “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의 3단계로 시기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의 ‘항일무장투쟁사’ 서술에 보이는 시기구분의 원형이 되었다.

「조선근대혁명운동사」를 내용상으로 보면,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동을 ‘요녕구회의,’ ‘남호두회의,’ ‘소할바령회의’ 등 소위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주요 회의’와 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소할바령회의’ 이후에는 일제의 토벌이 극심해짐에 따라 소부대·정치공작소조에 의한 습격·정찰, 정치학습·군사 훈련을 통한 역량보존, 간부육성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조선근대혁명운동사」가 나온 이후의 ‘항일무장투쟁사’ 연구는 대체로 이 체제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위에서 말한 각 시기별로 ‘항일무장투쟁’의 세부적인 활동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만 1960년대 말부터 주체사상이 북한사회 전반의 유일사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항일무장투쟁사’의 내용과 의의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재평가되는 점만 다를 뿐이다.

1970년대의 ‘항일무장투쟁사’ 연구에 대해서 북한학계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군사전략과 전술들, 주체의 영군술과 전법들, 주요 작전들과 전투자료들이 수집되어 새롭게 체계화되었으며, 항일혁명전쟁에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카륜회의, 명월구회의, 왕재

산회의, 요녕구회의, 남호두회의, 소할바령회의를 비롯한 주요 회의자료들이 발굴되어 그 내용과 의의들이 응당한 지위에서 평가되었다. 특히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연구가 널리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²⁾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1979년에 출간된 10권의 「항일무장투쟁사」로 집약되고 「전사」 16·17·18·19·20·21·22권의 ‘항일무장투쟁사’로 종합·체계화 된다.

「전사 16」은 김일성이 혁명활동을 개시했다고 하는 1926년부터 1931년 12월의 소위 ‘명월구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의 ‘항일무장투쟁준비시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사 17」은 1931년 12월부터 1933년 봄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김일성이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 데 대한 전략전술적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인민의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이 개시”된 이래 이 기간 동안 “혁명적인 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었으며.... 두만강연안의 광활한 지역에 자체의 공고한 군사적근거지, 후방기지로서의 유격구와 반유격구 및 활동거점이 창설되어....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무장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준비가 믿음직하게 마련되었다”고 주장하

2)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과학이 걸은 자랑찬 40년,” 「력사과학」, 1988년 3호.

고 있다.³⁾

「전사 18」은 1933년 봄의 소위 ‘유격구방위투쟁’으로부터 1936년 2월의 ‘남호두회의’ 직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 18권의 〈머릿말〉에 따르면 이 책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 연안일대에 창설된 유격구에 의거하여 매일과 같이 감행되는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와 전면적인 봉쇄를 짓부시고 조선혁명의 책원지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근거지인민들의 영웅적인방위투쟁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운동과 혁명운동의 전진을 악랄하게 저애한 각종 기회주의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분쇄하고 무장투쟁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이 시기 전개된 반간첩투쟁 및 적군와해사업, 항일무장투쟁과 배합된 국내인민들의 반일반전투쟁과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들을 체계화하고 개괄하는데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다.⁴⁾

「전사 19」는 1936년 2월의 ‘남호두회의’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진공작전에서 승리를 이룩”했다고 하는 ‘간삼봉전투’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항일혁명전쟁의 새로운 전략적기지인 백두산근거지가 창설되었으며 그에 의거하여 반일민

3) 「전사 17」, pp. 6~7.

4) 「전사 18」, p. 5.

족통일전선운동과 당 창건준비사업이 전국적범위에서 힘차게 추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이 시기에 “일제 침략자들의 대규모적인 <동기토벌>이 격파되고 력사적인 국내진공작전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았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전사 20」은 소위 1937년 8월의 ‘초수탄군정간부회의’로부터 1940년 8월의 ‘소할바령회의’ 前까지의 ‘항일무장투쟁’을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김일성은 “1937년 8월 장백현 초수탄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중일전쟁발발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했고, 이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압록강, 두만강 연안의 국경일대와 남북만의 넓은 지역에서 적배후교란작전을 벌려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는 것이다.⁶⁾

「전사 21」은 “1940년 8월부터 1943년 9월까지의 항일무장투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조선혁명인민군’은 1940년 8월의 ‘소할바령회의’에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 대부대작전을 중단하고 소부대를 단위로 군사적 활동을 하는 한편 군중에 대한 정치공작을 통해 대중조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조국해방의 결정적시기에.... 전인민적항쟁을 일

5) 「전사 19」, p. 6.

6) 「전사 20」, p. 5.

으킬수 있는 대중적지반이 튼튼히 마련되어갔다”고 서술하고 있다.⁷⁾

「전사 22」는 1943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에 걸친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와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한 투쟁력사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1943년 9월 15일 김일성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에 대비해 이행해야 할 투쟁과업을 제시했고, 이 과업을 충실히 수행한 ‘조선인민혁명군’은 마침내 1945년 8월 9일 일제에 대한 최후공격작전을 감행한 끝에 20년에 걸친 영웅적 항일혁명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전사」에 수록된 이같은 ‘항일무장투쟁사’에 대해 북한학계는 “김일성동지께서 시대의 지도사상과 조선혁명의 진로를 제시하시기 위하여 벌리신 비범한 사상이론 활동과 실천투쟁 내용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창시가 자주시대의 개척에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있게 밝혔다”⁸⁾고 자평하고 있다.

2. ‘민주건설사’

「전사」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해방 5년사를 ‘민주건설사’라는 편명하에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전

7) 「전사 21」, p. 5.

8)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투쟁과 창조의 력사총서 -〈조선전사〉 16~33권 출판에 즈음하여-,” 「력사과학」, 1982년 4호 p. 22.

사」를 비롯한 모든 북한의 역사서에서의 해방 5년사 서술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⁹⁾

첫째, '수령·당·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인 통일체'를 역사진행의 주체로 놓고 서술하며, 특히 혁명에 있어서 '지도자와 대중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수령의 영도에 많은 강조점을 둔다. 실제 북한의 해방 5년사 서술에서 뚜렷이 강조되는 것은 '수령'의 지도에 의한 '인민대중'의 힘으로 진행된 혁명과 건설의 과정이다.

둘째, 해방 5년간의 '혁명과 건설과정'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독창성의 기초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전통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1946년에 수행되었다는 '민주개혁'의 경우 그 경험을 "일제시대 유격근거지 내에서의 민주개혁"에서 찾고 있으며, 이는 소비에트와는 다른 성격의 정권이라고 주장하는 '인민정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새로운 혁명단계로 넘어간다고든가 또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할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내포하고 있던 필연적인 요구에 의하여 그런 정책들이 실현될 수밖에 없었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은 해방 5년간에 있었다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의 과도기에로의 이행,' '민주기지의 창설' 등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서술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9) 박영진, "해방3년사에 대한 인식,"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pp. 291~296.

넷째, 해방 5년사의 내용에서 남한에 대한 서술이 반드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나타난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상징하면서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북한에서의 혁명과정은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의 예는 “혁명을 수행하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된 지역에서 혁명과 건설의 과정을 먼저 수행함으로써.... 미국의 음흉한 대조선전략을 파탄시키고 국토분단의 위기를 막으며 통일적인 자주독립적인 건립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라 해방 이후 5년간의 역사서술에서 남한의 제반상황에 대한 서술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 역사학계의 해방 5년사에 대한 서술이 시종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북한내의 정치·사상적 변화에 따라 해방 5년사의 서술도 변화를 보여왔다.

1949년에 나온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경우 해방 이후의 역사를 蘇聯人인 F. 샤브시나가 서술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소련인이 썼기 때문에 서술이 대체로 소련에 의한 해방, 북한의 혁명과 건설과정에 대한 소련의 지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소련의 역할 등을 찬양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은 일제하에서 민족해방운동을 벌인 뚜렷한 세력이 부재”했다고 하고 또 김일성에 대한 서술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58년에 출간된 「조선통사(하)」는 1949년에서 1958년 사이의 제반반공파주의투쟁과 관련하여 반공파투쟁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고 전반적으로 해방 5년사에 대한 서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지만 소련에 대한 서술에서는 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 점은 해방 5년사에 대한 서술이 “조선은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경향은 1950년대 말의 북한의 對蘇관계 악화와 국내적으로는 ‘주체 확립’ 및 ‘혁명전통’이 더욱 강화되면서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즉 1964년에 나온 「조선로동당력사교재」에서는 소련에 대한 서술이 거의 삭제되고 북한주민이 주체가 된 혁명과 건설의 과정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역사서술에서 주체사관이 강조되는 1960년대말부터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1979년에 출간된 「조선로동당력사」의 해방 5년사 서술에서는 以前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경향이 뚜렷히 발견된다.¹⁰⁾

우선 ‘혁명적 수령관’이 체계화됨에 따라 수령과 당,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과정에서의 주체로 되어 있다. 1964년의 「조선로동당력사교재」까지는 북한주민 자체만을 주로 강조했으나, 이 시기에 오면 수령에 의한 현명한 영도가 이전보다 매우 강조된다.

10) 위의 논문, pp. 298~299.

둘째로 혁명전통이 매우 강조된다. 「조선로동당력사교재」까지는 단순히 하나의 사실로 서술되던 것이 이 시기에 이르면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경험을 사상, 이론, 방법의 무기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이룩하였다고 서술된다.

1980년대에 들어와 해방 5년사에 대한 연구는 「조선전사」 33권 중 2권으로 종합되어 나타난다. 여기서는 당시의 혁명과 건설과정이 주체사상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해방 5년사를 ‘민주건설사’라는 제목하에 서술하고 있는 「전사」 23, 24권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사 23」은 해방후 1947년 2월까지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적인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에 따라 “인민정권을 무기로 하여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일제에 의해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정비하고 민족간부 양성의 토대를 닦으며 민주수도건설을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에는 “제반 민주개혁이 빛나게 수행됨으로써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수립되고 강력한 혁명적기지가 창설되었으며 민주주의완전자주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¹¹⁾

「전사 24」는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된 때로부터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에서 혁명이 “1947년초부터 새로운 발전단

11) 「전사 23」, p. 6.

계, 사회주의혁명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면서 “과도기 첫 시기의 혁명과업” 즉 정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뒤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인민경제의 부흥발전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조선인민군’의 창군,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민족문화의 건설’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 두 권의 내용 중 주목되는 점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에 관해서는 ‘주체적인 해방’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선의 해방은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 조직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승리가 가져다준 위대한 결실”¹²⁾ 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해방 직후에 나온 역사서에서 언급되던 소련군의 북한진주가 삭제된 것이다. 이는 일제하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이 조국을 해방시킨 주역이라고 파악하는 주체사관의 소산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초지일관 ‘현대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있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미군정을 일제를 대신한 ‘식민지통치자’로 인식하고 남한에서 미국이 노린 목적은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고....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강점하고 아세아침략과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는데”¹³⁾ 있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1946년 2월부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 의해서 수

12) 위의 책, p. 7.

13) 위의 책, p. 17.

행된 소위 ‘민주개혁’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띠며,¹⁴⁾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북한은 1946년 2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정권으로서의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한 뒤, 이 기관을 중심으로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세금제도의 개혁 등을 시행하고 노동법령의 제정, 남녀평등권의 실시, 민주교육제도의 수립, 사법제도의 민주화 등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민주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사회·경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을 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생활 분야에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처지도 개선되어 1947년에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성격을 가지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고 한다. 곧 ‘민주개혁’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위한 토대이자 사회주의로의 첫 과도기로 들어서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 14)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론’은 일제하의 조선이 식민지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는 것과 함께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그 기본임무가 있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혁명은 ‘부르조아혁명’이나 ‘사회주의혁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내용을 가진 혁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선이 해방된 뒤에도 이런 과제는 남아 있으나 38선을 중심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혁명이 유리한 지역에서 먼저 혁명을 수행하고 이 곳을 혁명의 ‘책원지’로 하여 쏘조선휘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기지노선’이다.
- 15) 아직 개인농경지와 도시 수공업경리로 구성된 소상품경제형태와 도시의 자본주의적 개인상공업과 농촌의 부농경리에 국한된 소규모의 자본주의적 경제형태는 남아있다. 「전사 23」, pp. 254~257; 「전사 24」, pp. 9~11.

북한은 해방 직후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당성을 가진 것이었다고 서술한 후 그 결과물로서의 정권수립을 강조함으로써 그들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1946년의 ‘민주개혁’, 1947년의 자립적인 경제건설의 기초마련, 그리고 정치적으로 남북한 연석회의 개최를 통한 형식상의 통일적인 의견수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의 남북한 동시실시, 제반 ‘민주법령의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48년 8월25일에 실시되었다는 ‘남북한총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이것이 쏘조선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통일적 중앙정부’라는 것이다.

반면에 남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을 ‘현대제국주의’라고 비난하면서 그들에 의해 남한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예속”된 ‘신식민지적인 국가체계’가 들어섰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승만정권을 ‘괴뢰정권’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한이 비난하는 초점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남한의 대중투쟁을 미국과 남한정권이 무력적으로 탄압하고 정부수립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 것이다.¹⁶⁾ 특히 후자에 대해서 당시의 유엔이 ‘미국의 거수기’에 불과했고 한국의 문제에 “조선의 대표가 참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요컨대 북한의 결론은 남한에서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한

16) 「전사 24」, pp. 509~518.

반도가 분단된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비호하에 있던 “친일과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모리배”에 있다는 것이다.

3. ‘조국해방전쟁사’

「전사」 33권 가운데 3권이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역사서는 한국전쟁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총 3권 1,248쪽 분량의 ‘조국해방전쟁사’는 그 1권인 「전사 25」가 336쪽으로서 북한이 소위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시기’로 보는 한국전쟁의 발발부터 1950년 9월 15까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쟁 직전의 상황을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선전쟁도발준비’라는 1개 章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戰勢가 가장 유리했던 ‘전쟁 제1계단’을 6개 章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사 25」는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남반부 령토의 90% 이상과 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고 해방한 지역에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는 등 “빛나는 승리를 쟁취”했다고 주장한다.

2권인 「전사 26」은 368쪽으로서 소위 ‘조국해방전쟁 제2, 3계단시기,’ 즉 50년 9월부터 51년 5월까지의 戰況을 개괄하고 있다. 제2시기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반격에 나서 북한군이 크게 밀리던 시기로 이 단계를 「전사 26」은 전

17) 위의 책, p. 141.

세를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략적 후퇴를 단행하고 후퇴한 지역에서는 인민유격대들이 조직되어 敵後에서 투쟁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3시기는 압록강연안까지 밀린 북한군이 재반격으로 38선 이북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시기이다. 「전사 26」은 이 시기까지의 전황을 “락동강계선에 나간 인민군주력부대들을 <포위섬멸>하고 1950년 겨울前으로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강점하려던 미제침략자들의 모험적인 <총공세>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고 놈들은 전쟁력사상 일찌기 맛보지 못한 최대의 참패를 당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산산히 깨여지고 말았다”¹⁸⁾고 기술하고 있다. 서술체제상으로 보면 ‘적의 모험적인 침략기도를 분쇄하며 조선인민군의주력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되는 ‘전쟁 제2계단’이 2개 章, ‘전전선에서 반공격으로 이전’한 뒤 37~38도선 계선에서 소모전을 벌이던 ‘전쟁 제3계단’이 4개 章을 이루고 있다.

3권인 「전사 27」은 544쪽으로 ‘전쟁 제4계단의 력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사 27」은 “전쟁 제4계단에 들어와서 전선은 상대적으로 고착되고 조선인민군 부대들은 적극적인 진지방어에로 이전”하였으며, “이시기의 전략적방침은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을 벌려 이미 차지한 계선을 견지하고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대의 전투

18) 「전사 26」, p. 8.

력을 한층 강화하고 후방을 더욱 공고화 함으로써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는것이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쟁후반의 2년 3개월의 기간을 취급하고 있는 이 책은 결국 “미제침략자들이.... 우리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여지없이 분쇄되었으며 결국 정전협정에 조인하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말았다. 이렇게 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한 영웅적인민으로 되었으며 세계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한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⁹⁾

한편 남한과 관련해서는 1권 제7장에서 ‘해방된 남반부 지역’에서의 ‘제반 민주개혁’이 서술되고 있다.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을 통한 ‘남조선해방’이 사실상 좌절된 시기를 다룬 3권에서는 전서 남한경제 및 ‘남한민중의 참상’과 ‘반전반미구국투쟁’에 34쪽을 할애하고 있다.

이제 「전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북한의 한국전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다음의 글에서 분명하다.

조선전쟁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미제는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19) 「전사 27」, pp. 8~9.

....미제는 조선의 통일을 막으며 붕괴직전에 놓인 리승만과 퇴정부를 구출하기 위하여서는 전쟁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1950년 6월25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도발하게 되었으며 바로 우리 나라에서 저들의 강도적인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십자군원정>을 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⁰⁾

그렇다면 미국이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전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미제는 악명높은 세계제패계획을 당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이 가장 세차게 벌어지고있던 극동에서부터 실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특히 그 돌파구를 조선에서 뚫어보려고 획책하였다. 그것은 조선이 차지하는 군사지리적위치의 중요성과 함께 당시에 이미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한 우리나라가 아세아에서 앞장서 견고있었던 정치적 요인과도 관련되었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함으로써 그 거대한 영향력을 막으며 이미 승리한 중국혁명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제가 세계제패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을 먼저 조선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주되는 요인이었다.²¹⁾

이렇게 하여 “남조선강점 직후부터 조선에서의 침략전쟁 준비를 시작한 미국”은 남한을 대규모로 무장시킨 다음 1949년 봄에는 한반도에서 ‘북벌계획’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20) 「전사 25」, pp. 7~8.

21) 위의 책, p. 76.

미군과 남한군은 同年 2,617회에 달하는 무장침습을 통해 戰端을 구하고자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러자 미국은 1950년에 새로운 도발계획을 수립하고 남한 뿐 아니라 일본 및 미국에서도 전쟁준비를 서둘러 그 해 여름에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강요된 전쟁”²²⁾에 대해 “조선인민군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섬으로써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되었다”²³⁾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이 어떻게 ‘미제의 침략전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선 북한의 주장대로 ‘북침’을 전제할 때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는 미국이 1년 이상 준비했다는 ‘불의의 침략’을 어떻게 그토록 빨리 물리치고 반격을 가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도 명쾌하다.

미제는 이 방대한 무력이면 조선인민군을 능히 일격에 격파하고 전조선을 손쉽게 점령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산이었다. 수적 및 군사기술적 우세로써 침략전쟁을 해온데 버릇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군의 정치도덕적 및 전략기술적 우세를 보지 못하였다.²⁴⁾

22) 위의 책, p. 76.

23) 위의 책, p. 72.

24) 위의 책, p. 86.

즉 미국은 방대한 무력과 군사·기술적 우세로 조선인민을 쉽게 굴복시켜 쏘조선을 강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파산된지 오랜 부르주아 군사리론에 기초한.... 비과학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김일성이 제시한 군사·전략적 방침은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과 전쟁승리의 요인들, 조성된 군사정치정세, 적아간의 역량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한 ‘탁월한 전략적방침’이자 ‘가장 정당한 방침’이었다는 것이다.²⁵⁾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숭고한 사명과 혁명정신, 장병들간의 동지적우애와 자각적인 군사규률, 인민들과의 혈연적인 연계등” “정치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진 인민군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군이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은 필연적”²⁶⁾이었던 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인민군은 ‘불의의 침략’을 받고 ‘반격을 개시’한지 불과 2개월만에 “남반부 영토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²⁷⁾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며 전조선을 강점하려는 침략목적을 기어이 달성하려는”²⁸⁾ 미국이 “5만여명의 대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약 1,000대의 비

25) 위의 책, p. 85.

26) 위의 책, p. 89.

27) 위의 책, p. 269.

28) 「전사 26」, pp. 9~10.

행기를 동원하여²⁹⁾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낙동강전선에서 ‘총공세’에 나섬으로써 戰勢는 反轉된다. 이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다.

현재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전략적방침은 적들의 진공속도를 최대한으로 지연 시키면서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주력부대들을 구출하고 새로운 후비부대들을 편성하여 강력한 반공격집단을 형성하며 계획적인 후퇴를 조직하는것입니다.³⁰⁾

이렇게 하여 1950년 10월 하순 무렵에는 戰況이 다시 反轉되어 ‘조선인민군’이 재차 반격을 개시한다. 그런데 이런 戰況 反轉의 이유에 대한 설명은 1970년대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예컨대 1958년판 「조선통사(하)」가 중국군의 “조선전선 참전은 적아의 역량대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³¹⁾고 서술하고 있는 반면 「전사」는 “무엇보다도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준비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³²⁾는 ‘주체적 요인’에다 우선순위를 둔다. 물론 「전사」가 중국군 참전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중국군의 참전은 “조선인민군이 이미 반공격준비를 끝낸 후”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가 준엄한 시련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적에 대한 반공격

29) 위의 책, p. 11.

30) 위의 책, p. 18.

31) 「조선통사(하)」, 1958, p. 420.

32) 위의 책, p. 143.

준비를 끝낸 시기에 또한 형제적중국인민의 아들 딸로 조직된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선에 참전하게 되었다”³³⁾는 것이다. 이 역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의 산물이다.

반격준비를 마친 ‘조선인민군’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원아래 마침내 반공격에 나서 5차에 걸친 작전을 펼친 기간이 1951년 5월까지의 ‘전쟁 제3계단’이다. 이 시기에 전선은 38도선 계선에서 고착된다. 이에 따라 인민군은 “이미 차지한 계선을 견지하고 적을 끊임없이 타격소멸하는 한편 시간을 쟁취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이행한다.³⁴⁾ 그리고 “전쟁 1년간에 조선전선에서 심대한 군사정치적 패배를 당하고 헤여날수 없는 곤경에 빠지게된 미제침략자들”³⁵⁾이 제의한 정전담판이 개시된다. 이렇게 해서 길고도 지리한 2년여의 ‘전쟁 제4계단’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停戰의 최대 고비는 美大統領 당선자 아이젠하워가 1952년 12월부터 꾸민 ‘신공세’ 기도의 분쇄였다. 여기서의 ‘신공세’란 “미제억만장자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하여”³⁶⁾ 전선을 북위 40도선으로 밀어붙이는 확전을 꾀해 보고, 안되면 군사적 압력으로 양보를 받아내어 ‘영예로운 정

33) 위의 책, p. 143.

34) 「전사 27」, p. 14.

35) 위의 책, pp. 21~22.

36) 위의 책, p. 274.

전'을 실현해 보려는 것이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이 기도는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된 '조선로동당'의 영도아래 '분쇄'되고 만다. 그리하여 "미제는 싸우면 싸울수록 강력해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이로써 "조선전선의 좁은 지역에 최신장비로 무장한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 군대들과 남조선피뢰군 및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며 수많은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탕진하면서 세계전쟁력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수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쓴.... 미제침략자들은.... 철통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에 의하여 침략전쟁력사에서 처음으로 패전하였으며 가장 참혹한 군사, 정치, 도덕적 패배를 당하였다"고 한다.³⁹⁾

'조국해방전쟁사'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 끝을 맺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이라는 개념이 매우 '주체적'인 것처럼 '승리의 역사적 의의'도 매우 주체적이다. 북한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할 때 그것이 '북침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미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도발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⁴⁰⁾ 정전협정에 조

37) 위의 책, p. 275.

38) 위의 책, p. 507.

39) 위의 책, p. 537.

40) 위의 책, p. 509.

인했 승리한 전쟁인 셈이다.⁴¹⁾ 그리고 ‘승리한 전쟁’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도 이런 관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전사」가 정리하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⁴²⁾

첫째, 미제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조국을 수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보위했으며 공화국과 인민민주주의제도의 무궁무진한 생활력, 인민의 불패의 힘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둘째, 전쟁의 시련을 통하여 전체인민이 김일성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되었으며 주체적 혁명역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고귀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셋째,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음으로써 세계 인민들의 반제반미투쟁의 새 시기를 열어놓고 세계 혁명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4. ‘사회주의건설사’

북한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1953년부터이다. 북한은 停戰後 戰後復舊計劃을 수립·시행하면서 동시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중심으로 1947년부터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주의혁명을 급속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41) 강성철, “한국전쟁연구,”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 p. 349.

42) 「전사 27」, pp. 527~544.

에서 지난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10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금후의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그 총체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사회주의건설사’는 혁명단계상 1947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⁴³⁾ 이 때문에 「전사」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를 ‘민주건설사’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를 ‘조국해방전쟁사’로, 53년 이후 현재까지를⁴⁴⁾ ‘사회주의건설사’로 명명하고 있다.

일단 사회주의혁명에 성공한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주의건설은 단순한 경제건설 이상의 많은 과제들을 포함한다. 혁명 초기에 당과 정권을 수립하는 문제외에 정치지도력의 구축, 경제건설, 계급해소,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사상과 문화·교육정책의 시행 등이 그 과제이고 군사·외교 등도 사회주의건설의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사’를 다루고 있는 「전사」의 권 28·29·30·31·32·33은 각각 내용의 대부분을 內治에 할애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에 대한 서술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썸주화투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재일조선인운동 및 해외동포들의 투쟁”에도 각기 1개의 章을 할애해 설

43) 정대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사,”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I」, p. 381.

44) 「조선전사 33」이 82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열린 1980년까지만 다루고 있다.

명하고 있다.

「전사 28」은 “전후 복구건설시기(1953. 7~1956. 12)에....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사회주의적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사회주의기초 건설을 완성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한 투쟁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다. 이 책은 1, 2章에서 “전반적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단계(1953. 7~1953. 12)인 첫째단계”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章에서는 “3개년인 민경제복구발전계획을 수행하는 단계(1954. 1~1956. 12)인 둘째단계”의 성과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계획의 완수로 “자립적인 민족경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⁴⁵⁾

「전사 29」는 “5개년인민경제계획(1957~1961년)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룩한 성과에 대한 이 책의 평가에 따르면 “5개년계획시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이룩함으로써 자금과 자재, 로력 등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경제의 자립적토대, 사회주의적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 놓았다”는 것이다.⁴⁶⁾

「전사 30」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로부터 1966년 10월 조

45) 「전사 28」, 제8장 참조.

46) 「전사 29」, p. 8.

선로동당 대표사회가 열리기전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1961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시기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인 7개년(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환경을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킨 자랑찬 력사”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⁷⁾

「전사 31」에는 “1966년 10월 조선로동당 대표사회로부터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1970. 11)가 열린 시기까지” 북한이 이룩했다는 업적이 서술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수행으로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등이 기술되어 있다.

「전사 32」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로부터 1977년에 이르는 6개년계획 수행시기의 력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의 주내용은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강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발포로 국가사회제도

47) 「전사 30」, p. 8. ()안은 필자주.

의 공고화,” “3대혁명소조운동의 조직,”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방침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심화발전,” “인민경제발전6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 등이다.

「전사 33」은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선 1978년부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까지의 력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시기에 우리 인민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고 있다.⁴⁸⁾

48) 「전사 33」, p. 7.

第Ⅶ章 結 論

권력은 항상 역사해석을 장악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그러하다. 정통과 이단은 권력이 결정하며 권력투쟁에서의 승자는 역사해석권을 독점한다. 북한정권도 그 예외가 아니다.

사실 북한의 학문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동원되어 왔다. 특히 혁명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선전하며 대중을 동원하는 데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역사학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이 때문에 북한의 역사학은 항상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의 역사학은 단순한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정치사상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연구는 역사학계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 당 사상사업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연구를 직접 당이 주도하고 있고 역사해석도 당의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결정된다. 「조선전사」는 북한 역사학의 이같은 성격을 대표하는 북한의 가장 공식적인 역사서이다.

원시사 및 고대사에 관한 「전사」의 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리 민족의 유구성, 독자성, 단일성에 대한 강조와 고조선 중심의 역사인식이다. 유구성에 대한 강조는 연대의 상향조정으로 나타나고 독자성은 민족의 본토기원설과 우리 문화에 대한 외부 영향의 부정으로 나타나며 단일성은 민족의 單血性起源論에 대한

집착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고조선 중심의 역사서술은 그 서술분량의 평면적 대비에서나 전반적인 논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국시대사 서술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고구려에 편향된 인식과 연구이다. 이 때문에 「전사」의 삼국사 서술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전사」속의 고구려사는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주체적이며 사대주의가 없었던 역사로 서술된 반면, 백제·신라사는 철저히 계급적 시각을 기초로 서술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신라사는 반민족의 역사로 간주되고 있다. 이런 고구려중심의 역사인식은 발해 및 '후기신라사'의 서술에서 발해 중심의 서술으로 이어진다. 북한의 이러한 서술태도는 은연중 역사의 정통이 고조선 - 고구려 - 발해 - 고려 - 조선 - 북한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분단사학의 지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실제 북한에서의 삼국사 연구는 고구려사 일색인데, 이는 비록 북한학계가 백제·신라의 유물·유적자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구려만이 자주적이고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국가였다는 치우친 역사인식 때문이다.

「전사」속의 모든 시대사 서술에서 똑같이 보이는 경향이지만 특히 고려사와 '리조사' 서술의 중점은 인민들의 반봉건 투쟁과 반침략투쟁에 있다. 이는 「전사」의 서술방향이 그 발간사에서도 밝혔듯이 “인류발생으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체계화”¹⁾하기

1) 「전사 1」, p. 4.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근세사로 취급하고 있는 기간은 불과 60여 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전사」가 이 기간을 3권에 걸쳐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북한이 근세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세사의 인식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건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검토했는데, 북한은 근세사를 ‘민족해방’을 위한 ‘부르조아민족운동’의 역사로 보고 있다. 북한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이 운동의 필연적인 실패와 그것을 대체할 공산주의 운동의 역할이다. 즉 ‘부르조아민족운동’은 그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어 있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운동이 ‘민족해방’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민족해방’에서 김일성의 영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전사」의 18권 가운데 ‘항일무장투쟁사’가 무려 7권에 달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대사는 김일성 중심의 역사이다. 이점은 「전사」에서 김일성의 교시가 등장하는 회數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즉 「전사」의 각 권에는 김일성의 교시가 인용되어 있는데, 현대 以前을 서술한 15권의 경우 김일성의 교시가 평균 20회 나타나나 ‘항일무장투쟁사’의 경우는 그 인용 회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며 23권부터 33권까지로 한정하더라도 그 회수는 평균 122회에 이른다.

한편 「전사」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징의 하나는

서술상의 감정적 표현인데, 이는 반침략투쟁·반봉건투쟁이 강조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두드러진다. 이 서술표현의 문제는 모든 역사를 ‘현재’와 직결시켜 현재를 위한 역사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즉 이는 역사철학적 문제이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이며 역사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됨이 없이는 서술표현상의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서술표현 방식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음은 사실일 것이다.

「전사」의 서술에서 한 가지 더 특징적인 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문화면에 대한 많은 배려이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전사」의 거의 모든 권이 문화에 서술분량의 30%를 할애하고 있어 관심의 정도를 엿볼 수 있게 하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기술과 과학,” “말과 글,” “철학사상,” “교육,” “문학,” “미술,” “음악과 무용,” “연극,” “의·식·주·민속놀이 등의 생활풍습”이 기술되어 있어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 특히 말과 글 및 의·식·주·민속놀이 등의 생활풍습을 역사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제일 처음에 기술과 과학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역사의 연구방법론에서나 시대구분에서나 한국사 전체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남북한간에는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역사해석의 차이는 남북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역사인식의 차이보다 대립이 더 큰 문제²⁾이다.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왜 다르게 나타났고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

분단 50년간 남북한 사이에 역사자료 및 전문학자간의 교류가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이루어진 남북한의 역사연구가 이 질성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의 극복은 남북한 사학계 공통의 과제이다. 이 과제의 해결은 남북 어느 한 쪽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양자간의 진지한 만남과 공동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민족통합은 서로를 수렴하려는 노력 속에서 더 가까운 실체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민족통합은 사실 이데올로기의 조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 이데올로기의 조정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가장 적은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역사학의 교류만큼 적절한 것은 달리없다. 남북간에 흩어진 역사자료들을 서로 교환하고 남북의 연구성과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사의 생생한 현장을 답사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이런 구체적 교류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남북간의 정치적 타결에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분야 단체들이 제

2) 강만길,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창작과 비평』, 1989년 봄, p. 299.

의하는 구체적 교류안이 제의를 위한 제의가 되지 않고, 실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시 정치적 관계의 진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 부문의 남북교류 제의는 정치적 문제가 타결된 후 뒤따를 전체적 교류의 속성화를 위한 사전준비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남북한 역사학계의 교류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의 제의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 곽복희 역. 「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청년사, 1990.
- 김원룡. 「한국 고고학개설」. 제3판. 서울: 일조각, 1986.
- 김일성. 「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 .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 「김일성저작집 1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김일성종합대학 력사연구소 편. 「조선의 명인(하)」. 평양: 조선청년사, 1963.
- 김정배 엮음.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서울: 일송정, 1988.

-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박일범.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북한문제조사연구소.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 서울: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983.
- 북한연구소 편. 「조선사 비판」. 서울: 북한연구소, 1978.
- _____.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개요」.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김옥균」. 서울: 역사비평사, 1990.
- _____. 「력사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_____. 「조선근대혁명운동사」. 서울: 한마당, 1988.
- _____. 「조선통사(상)」.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1989.
-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인식 I」. 서울: 한길사, 1990.
- _____. 「북한의 한국사인식 II」. 서울: 한길사, 1990.
-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9.

전영률·김창호·강석희. 「조선통사(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 비교강의(근현대편)」. 서울: 일송정, 1989.

진단학회 편. 「북한의 고대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1.

2. 論 文

강만길.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창작과 비평」. 1989년 봄호.

김남식. “주체사관은 유물사관의 발전적 계승이다.” 「역사비평」. 계간 14호(1991 가을).

김석형. “8·15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6호.

리청원.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그 력사적 의미.” 「력사제문제」. 1948년 3호.

박인근. “론평: ‘갑오경장의 력사적 전제조건’에 대한 몇가지 의견.” 「력사과학」. 1964년 3호.

박태균.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한길사 간, 「한국사 23」. 서울:한길사, 1994.

배항섭. “왜 남북한 근현대 시기구분 큰 차이있다.” 「역사비평」. 계간 12호(1991 봄).

오길보. “갑오농민전쟁과 동학.” 「력사과학」. 1959년 5호.

이광린. “북한의 역사학.” 「동아연구」. 제16집 (1988).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력사과학」. 1988년 3호.

조 민. “북한학계의 동학농민평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쟁점」. 서울: 집문당, 1994.

조동걸 외. “좌담: 북한에서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 「역사비평」. 계간 3호 (1988 겨울).

한창균. “선사시대의 존재양태와 거래의 기원문제.” 「역사비평」. 계간 12호(1991 봄).

Yong-ho, Choe. “History in North Korea: Its Role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 5, no. 1 (April 1976).

3. 其 他

“창간 10주년 기념사.” 「력사과학」. 1965년 1호.

“조선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총서 <조선전사>— <조선전사> 1~15권 출판에 즈음하여—.” 「력사과학」. 1981년 1호.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과 창조적 력사총서—<조선전사> 16~33권 출판에 즈음하여—.” 「력사과학」. 1982년 4호.

「력사제문제」. 제5집 (1949).

〈부 록〉

「조선전사」의 目次

제 1 권

제 1 장 원시무리시기

제 1 절 원시무리시기의 자연환경

- 검은모루유적을 통하여 본 하부갱신
- 세의 자연환경
- 중부갱신세의 자연환경

제 2 절 원시무리시기의 사람

- 검은모루유적시기의 사람
- 〈력포사람〉과 〈덕천사람〉

제 3 절 원시무리시기의 로동도구

- 구석기시대 전기의 로동도구
- 구석기시대 중기의 로동도구
- 불의 발견

제 4 절 원시무리의 집단생활

- 원인의 원시무리
- 고인의 원시무리

제 2 장 초기 모계씨족사회

제 1 절 신인의 출현과 모계씨족사회의 발생

- 〈승리산사람〉, 신인의 모습
- 씨족사회의 형성과 모계씨족제도의 발생

제 2 절 생산활동의 확대, 원시문화의 발생

- 구석기시대 후기의 로동도와 생산활동
- 원시예술과 원시신앙의 발생
- 중석기시대, 활과 화살의 발명

제 3 장 모계씨족사회의 발전

제 1 절 조선옛류형사람의 형성

제 2 절 로동도구의 개선

- 신석기시대의 시작
- 로동도구의 용도에 따르는 세분화와 생산활동의 확대
- 우물갓춤새의 변천

제 3 절 원시농업 및 짐짐승 기르기

- 팽이농사
- 보습농사의 시작
- 짐짐승기르기

제 4 절 짐승사냥과 물고기잡기

- 짐승사냥
- 물고기잡기

제 5 절 집의 짜임새

- 신석기시대 전기의 집자리와 그것을 통하여 본 집의 짜임새
- 신석기시대 후기의 집자리와 그것을 통하여 본 집의 짜임새

제 6 절 원시적 수공업생산과 원시문화의 발전

- 신석기시대의 원시적 수공업생산
- 생활풍습과 조형예술

제 7 절 모계씨족제도의 발전

제 4 장 부계씨족사회

제 1 절 부계씨족사회의 형성

- 청동기시대의 시작, 문화의 계승성
- 부계씨족사회의 형성
- 부계씨족사회의 유적들과 그년대

제 2 절 경제생활

- 야금의 시작과 로동도구의 개선
- 농업
- 집짐승기르기
- 짐승사냥
- 물고기잡이
- 교역

제 3 절 생활풍습

- 거주생활
- 식생활
- 실낱이와 옷
- 치레거리
- 원시예술
- 원시신앙과 종교

제 4 절 문화갓춤새의 여러 유형들

- 우리나라 서북지방 및 료동지방
- 압록강 중상류 및 송화강류역
- 두만강류역과 동해북부연안지방
- 우리나라 남부지방

제 5 절 원시공동체의 붕괴

- 부 록 -

조선사람의 기원과 인종적 특징

1. 조선사람의 인종적 특징
 - 조선사람의 체질인류학적 특징
 - 조선사람이발의 인종적 특징
 - 조선사람의 지문과 혈형
2. 조선사람의 기원상 특징
 - 조선옛류형사람의 형성과 그의 인류학적 구성
 - 조선사람의 인류학적 단일성

제 2 권

〈고조선사〉

제 1 장 고조선국가의 성립

제 1 절 계급의 발생과 국가의 성립

- 주민
- 계급의 발생과 국가의 성립

제 2 절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반영한 단군신화. 〈기자〉가 고조선에 왔다는 설에 대한 비판

-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반영한 단군신화
- 〈기자〉가 고조선에 왔다는 설에 대한 비판

제 2 장 기원전 1000년기전반기의 사회경제형편

제 1 절 생산력의 발전과 경제형태

제 2 절 노예소유자적 생산관계

제 3 장 기원전 1000년기후반기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과 노예소유자적
경리의 확대

제 1 절 철기의 보급. 야금업의 발전

제 2 절 농업 및 수공업의 발전

제 3 절 상업과 무역의 발전

제 4 절 노예소유자적 경리의 확대

제 4 장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통치체제

제 1 절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통치체제

제 2 절 <범금8조>와 군사조직

- <범금8조>

- 군사조직

제 5 장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영역

제 1 절 고조선의 서쪽과 북쪽경계선

제 2 절 고조선의 남변과 그 중심지

- 고조선의 남변

- 고조선의 중심지

제 6 장 기원전 2세기초의 만의 정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고조선 인
민들의 투쟁

제 1 절 기원전 2세기초의 만의 정변

제 2 절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한 고조선인민들의 투쟁

<부여사>

제 1 장 부여국의 성립과 그 영역

제 1 절 부여국의 성립

제 2 절 부여의 영역

제 2 장 부여의 통치기구

제 1 절 중앙 및 지방통치기구

제 2 절 군대, 법, 감옥

제 3 장 생산력의 발전과 경제형태

제 1 절 생산력의 발전

제 2 절 경제형태

제 4 장 고구려에 의한 부여의 통합

제 1 절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

제 2 절 1-5세기 부여의 형편

－ 후한과의 관계

－ 위, 진, 전연과의 관계

제 3 절 고구려에 의한 부여의 통합

〈진국사〉

제 1 장 진국의 성립과 그 영역

제 1 절 진국의 성립

－ 주민

－ 진국의 성립

제 2 절 진국의 영역

－ 진국의 북변

－ 진국의 중심지

제 2 장 진국의 통치제도

제 1 절 삼한과 소국들의 구성

제 2 절 진국의 통치제도

－ 국왕과 지방통치자들

- 통치체제
- 군대

제 3 장 생산력발전과 경제제도

제 1 절 생산력의 발전

- 농업의 발전
- 수공업의 발전
- 상업의 발전

제 2 절 경제제도

제 4 장 진국사람들의 왜땅으로의 진출

제 5 장 진국의 종말과 그 후 소국들의 형편

제 1 절 진국의 종말

제 2 절 진국종말후 소국들의 형편

<고대의 문화>

과학, 기술

말과 글

철학사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풍습

제 3 권

제 1 장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

제 1 절 기원전 2-1세기 혼강 및 압록강 중류일대의 주민과 생산력의 발전

- 주민
- 생산력의 발전

제 2 절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

- 고구려건국전설
- 고구려건국과정과 그 년대
- 첫 수도와 국내성으로의 수도옮김

제 2 장 봉건적 제관계의 발전

제 1 절 주변소국들의 통합

- 소국들의 통합
- 통합한 소국들의 후국, 성읍으로의 편성

제 2 절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 계급신분관계

-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 계급신분관계

제 3 절 봉건통치체제의 편성

제 4 절 한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

- 한나라침략세력을 룡동지방으로 물리치기 위한 투쟁
- 룡동지방에 설치한 후한의 군, 현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
- 국내에 침입한 후한침략군을 격멸하기 위한 투쟁

제 3 장 중앙집권과 국방력의 강화

제 1 절 중앙집권의 강화

제 2 절 봉건적 수탈체제의 강화와 인민들의 생활형편

- 봉건적 수탈체제의 강화
- 인민들의 생활형편

제 3 절 공손세력과 위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

- 공손세력의 침입과 그 격퇴
- 위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투쟁

제 4 절 무장력의 강화, 국방체제의 확립

- 3세기 후반기 고구려의 서변과 서북지방의 요충지-신성
- 생산력의 발전과 무장장비의 강화
- 국방체제의 확립과 상무적 기풍

제 4 장 룡동회복, 영토의 확장

제 1 절 룡동회복과 전연세력과의 투쟁

- 룡동지방에 설치되었던 진나라 군, 현 세력의 격퇴
- 연나라 묘용황의 침입과 그 격퇴

제 2 절 유주지역에로의 진출. 주, 군, 현의 설치

- 4세기후반기 고구려서쪽정세의 급속한 변화
- 유주지역에로의 진출과 주, 군, 현의 설치

제 3 절 성방어체제의 수립과 서쪽지방의 중심지 건설

- 성방어체제의 수립
- 서부지방의 중심지건설

제 4 절 남방진출

제 5 절 비려, 식신, 동부여정벌

- 비려정벌
- 식신(숙신)정벌
- 동부여정벌

제 5 장 평양으로의 수도옮김과 수도건설

제 1 절 평양으로의 수도옮김

- 평양성건설
- 평양으로의 수도옮김과 그 의의

제 2 절 수도건설

- 안학궁의 건설
- 대성산성의 건설과 위성방어체계의 형성
- 동명왕릉의 옮김
- 절간건설

제 6 장 고구려국가의 강성

제 1 절 봉건통치제도의 강화

- 중앙통치기구의 정비
- 지방통치체계의 정비
- 법의 제정과 그 정비

제 2 절 남쪽으로의 영토확장과 백제, 신라와의 관계

- 남쪽으로의 영토확장
- 백제, 신라와의 관계

제 3 절 대외관계의 발전

- 중국남북조나라들과의 관계
-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땅에로의 진출

제 4 절 새 수도 평양성건설

제 7 장 수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6세기말 고구려의 대외정세. 598년 수나라의 제1차침입의 격퇴

- 6세기말 고구려의 대외정세

- 598년 수나라침략자들의 제1차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 제 2 절 612년 수나라의 제2차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 고구려침략을 위한 수나라통치배들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준비
 - 료동성전투의 빛나는 승리
 - 살수에서의 큰 승리
- 제 3 절 613-614년 수나라의 제3, 4차 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 613년 수나라침략자들의 제3차침입과 그 격퇴
 - 614년 수나라침략자들의 제4차침입과 그 격퇴
- 제 4 절 고구려-수전쟁에서 고구려인민의 승리의 요인과 그 역사적의의
- 제 8 장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7세기전반기 고구려의 국내외정세
 - 642년 무장정변과 당나라통치배들에 대한 강경한 태도
 - 고구려침략을 위한 당나라통치배들의 전쟁준비 책동의 로골화
 - 제 2 절 645-648년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고구려인민의 빛나는 승리
 - 645년 당나라침략군의 침입과 료동성방어전투
 - 안시성전투의 빛나는 승리
 - 647-648년 당나라침략자들을 격퇴한 투쟁
 - 제 3 절 662년 평양성방어전투에서의 고구려군의 승리
 - 료동지역에 침입한 당나라군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 평양성방어전투에서의 승리
 - 제 4 절 고구려봉건국가의 종말. 당나라강점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 고구려봉건국가의 종말
 - 당나라강점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고구려유민들의 투쟁

제 9 장 문화

제 1 절 과학과 기술

- 기상천문학
- 의학
- 금속가공기술
- 건축기술

제 2 절 철학사상

제 3 절 말과 글

제 4 절 문학

제 5 절 미술

- 그림
- 공예
- 건축
- 조각

제 6 절 음악과 무용, 교예

- 음악
- 무용
- 교예

제 7 절 생활풍습

서북지방에 있는 고구려에 의하여 통합된 소국들의 유적, 유물

제 4 권

제 1 장 백제봉건국가의 성립

제 1 절 기원전후시기 한강하류지방에서의 생산력의 발전

제 2 절 백제봉건국가의 성립

제 2 장 생산의 장성과 교통운수 및 상업의 발전

제 1 절 농업생산의 장성

제 2 절 수공업, 교통운수, 상업의 발전

- 수공업의 발전
- 교통운수와 상업의 발전

제 3 장 봉건적 계급신분관계와 통치제도의 확립

제 1 절 봉건적 계급신분관계

- 봉건적토지소유관계의 확대
- 계급신분관계

제 2 절 봉건적 통치제도의 확립

- 통치기구
- 계층적인 봉건적 관료질서

제 4 장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그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 2 절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5 장 백제의 고구려 및 신라와의 관계

제 1 절 백제인민들의 고구려 및 신라에로의 래왕과 문화교류

제 2 절 령토확장을 위한 백제봉건통치배들의 정복전쟁. 국력의 약화

- 령토확장을 위한 백제봉건통치배들의 정복전쟁
- 한강하류지역의 상실. 백제봉건국가의 약화

제 6 장 백제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

제 1 절 북규슈의 백제계통후국. 그의 고국과의 관계

- 백제계통이주민들의 복귀슈어로의 진출

- 〈고마후국〉

- 〈고마후국〉의 고국과의 관계

제 2 절 야마도왕정에서 백제계통이주민들의 활동

제 7 장 당나라침략자들과 그와 연합한 신라군의 침공을 반대한 백제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7세기중엽 백제의 안팎의 형편

제 2 절 당나라침략자들과 그와 연합한 신라군의 침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8 장 문화

제 1 절 과학과 기술

- 기술

- 과학

제 2 절 말과 글

제 3 절 철학사상

제 4 절 문학

제 5 절 미술

- 건축

- 공예

- 조각

- 그림

제 6 절 음악과 무용

제 7 절 생활풍습

〈전기신라사〉

제 1 장 신라봉건국가의 성립

제 1 절 신라봉건국가의 성립

제 2 절 건국설화. 신라사초기의 년대들에 대한 검토

- 건국설화
- 신라사초기의 일부 년대들에 대한 검토

제 2 장 중앙집권적 통치제도의 확립

제 1 절 중앙집권적 통치기구의 정비, 강화

- 중앙집권적통치기구의 정비
- 중앙 및 지방 통치기구의 확대 강화

제 2 절 골품체제에 의한 계층적인 봉건적 관료질서의 편성

제 3 절 봉건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

- 국호, 왕호의 고착과 년호의 제정
- 불교의 전파와 〈화랑〉제도의 창설

제 3 장 신라의 고구려, 백제와의 관계와 대외관계

제 1 절 고구려 및 백제와의 관계

제 2 절 신라봉건통치배들이 도발한 빈번한 정복전쟁과 그 후과

제 3 절 중국대륙의 여러나라들 및 〈왜〉와의 관계

- 중국대륙의 여러나라들과의 관계
- 〈왜〉와의 관계

제 4 장 경제의 발전

제 1 절 농업생산의 발전

제 2 절 수공업의 발전

제 3 절 교통운수 및 상업의 발전

제 5 장 봉건적 착취와 압박의 강화. 그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봉건적 계급신분관계의 편성

제 2 절 봉건적 착취와 압박의 강화

제 3 절 봉건적 착취와 압박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6 장 당나라강점군을 몰아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백제, 고구려 침공. 당나라침략자들의
이 지역 강점

제 2 절 당나라강점군을 몰아내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 당나라강점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개시. <고구려국>의 재건. 신라의 <고구려국>세력과의 연합(668년말-670년 여름)
- 신라인민들의 백제유민들과의 단합에 의한 반침략투쟁의 전개. 백제 지역으로부터의 당나라침략군의 구축(670년 여름-672년초)
- 당나라침략군의 연속적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672년 여름-673년)
- 당나라침략군에 대한 일대 섬멸전. 압록강 이남지역에서 침략군의 완전 구축(674-676년)

제 7 장 문화

제 1 절 과학과 기술

- 과학
- 기술

제 2 절 말과 글

제 3 절 철학사상

제 4 절 문학

제 5 절 미술

- 건축
- 공예
- 조각

제 6 절 음악과 무용

제 7 절 생활풍습

〈가 야〉

가야국의 성립

가야의 영역

통치기구

봉건적 계층제와 계급신분관계

생산력의 발전. 봉건적 착취의 강화

백제, 신라와의 관계

가야사람들의 일본렬도로의 진출

제 5 권

〈발 해 사〉

제 1 장 발해국의 창건

제 1 절 국가회복을 위한 고구려유민들의 줄기찬 투쟁

- 옛영토에 남아있던 고구려유민들의 투쟁
- 남쪽 신라로 간 고구려유민들의 투쟁

제 2 절 고구려유민들의 발해국 창건

- 696년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료서지방 고구려인들과 말갈

인, 거란인들의 폭동

- 698년 고구려유민들의 발해국 창건

제 3 절 발해국의 종족구성

제 2 장 발해국의 발전

제 1 절 발해국의 초기발전

- 발해국초기의 국토개척과 생산의 발전
- 발해국초기의 대외관계와 국력의 강화

제 2 절 발해국의 룡성. 그 영역

- 8세기중엽-9세기초 국력의 가일층의 강화. 이 시기의 대외관계
- 9세기초중엽이후 발해국의 룡성
- 발해국의 영역

제 3 장 발해국의 국가제도

제 1 절 발해의 통치기구

- 국왕
- 3성6부
- 그밖의 중앙관청들
- 지방행정기구

제 2 절 발해의 군대제도

- 중앙군대제도
- 지방군대제도

제 3 절 봉건적 계층제도

- 벼슬등급(위계)제도
- 훈급제도
- 작위제도

－ 복장제도

제 4 절 봉건적 착취제도와 경제생활

－ 봉건적 착취제도

－ 경제생활

제 4 장 발해국의 종말

제 1 절 10세기초엽 발해국의 사회경제적 형편

제 2 절 거란의 침입으로 인한 발해국의 멸망

－ 거란침략세력의 급격한 강화

－ 거란의 침입과 인민들의 반침략 투쟁. 발해국의 멸망

제 5 장 국가회복을 위한 발해유민들의 투쟁. 발해를 계승한 소국들

제 1 절 정안국과 오사성발해국

제 2 절 홍료국

제 3 절 대발해국

제 6 장 발해의 문화

제 1 절 유적

제 2 절 문학

제 3 절 음악과 무용

제 4 절 공예와 조각

<후 기 신 라 사>

제 1 장 봉건적중앙집권체제의 정비, 강화

제 1 절 중앙통치기구의 확대, 재편성

제 2 절 지방통치기구의 정비, 강화

제 3 절 군사제도의 재편성

제 4 절 골품체제 - 계급신분관계의 변화와 그 재편성

제 2 장 봉건적관계의 발전. 인민과 토지에 대한 봉건국가의 장악, 지배의 강화

제 1 절 봉건적 토지소유의 발전

제 2 절 인민과 토지에 대한 봉건국가의 장악, 지배의 강화

- 인민들에 대한 지배체제의 강화
- 토지에 대한 지배체제의 강화. 정전제도와 식읍, 녹읍제도

제 3 절 봉건국가의 수탈형태들

제 3 장 후기신라의 경제발전. 봉건통치계급내부의 정권싸움

제 1 절 농업, 수공업 및 상업의 발전

- 농업생산의 장성
- 수공업의 발전
- 국내상업의 발전
- 후기신라의 수도

제 2 절 배무이수공업의 발전과 바다에로의 적극적인 진출. 청해진의 설치

- 배무이수공업의 발전과 바다에로의 적극적인 진출
- 청해진의 설치

제 3 절 대토지사유의 발전. 봉건적 착취의 강화

제 4 절 봉건통치계급내부에서의 권력다툼. 집권체제의 문란

제 4 장 9세기 농민전쟁

제 1 절 9세기전반기의 농민폭동

제 2 절 9세기후반기의 농민전쟁

- 농민전쟁의 개시
- 각지 농민군의 투쟁
- 지방토호세력들의 진출

제 3 절 9세기 농민전쟁의 역사적의의

- 농민전쟁참가자들의 계급적 구성과 농민투쟁의 제한성
- 농민전쟁의 역사적의의

제 5 장 후기신라의 후삼국에로의 분렬과 그 멸망

제 1 절 후기신라의 후삼국에로의 분렬

- 후백제의 출현
- 태봉국의 출현
- 〈성우두머리〉, 〈장군들의 할거〉

제 2 절 후삼국사이의 전쟁. 인민들의 생활처지

- 후삼국사이의 전쟁
- 태봉국에서의 왕건의 정변
- 후삼국시기 인민들의 처지

제 3 절 신라왕조의 멸망

제 6 장 후기신라와 발해 및 당나라, 일본과의 관계

제 1 절 후기신라와 발해와의 관계

제 2 절 후기신라와 당나라 및 그밖의 아세아 나라들과의 관계

제 3 절 후기신라와 일본과의 관계

제 7 장 문화

제 1 절 기술과 과학

- 기술
- 과학

제 2 절 철학사상

제 3 절 말과 글

- 후기신라에서의 우리 말과 그 발전
- 서사체계와 그 발전

제 4 절 문학

제 5 절 미술

- 건축
- 조각
- 공예
- 그림

제 6 절 음악과 무용

- 음악
- 무용

제 6 권

제 1 장 고려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

제 1 절 고려봉건국가의 성립

제 2 절 고려에 의한 후삼국의 통일

제 2 장 서북지방의 장악, 후삼국통일후 생산의 장성, 인민들의 처지

제 1 절 서경건설과 서북지방의 장악

제 2 절 발해유민의 포섭

제 3 절 후삼국통일후 생산의 장성

제 4 절 후삼국통일후 인민들의 처지

제 3 장 고려초기 봉건통치체제의 재편성

- 제 1 절 중앙과 지방 통치체제의 확립, 왕권의 강화
- 제 2 절 군사제도의 확립
- 제 3 절 토지제도의 개편

제 4 장 거란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

- 제 1 절 거란의 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고려의 대외활동
- 제 2 절 거란의 제1차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
- 제 3 절 거란의 재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준비의 강화
- 제 4 절 거란의 제2차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고려인민의 투쟁
- 제 5 절 제3차거란침략군의 섬멸, 반거란전쟁의 빛나는 승리

제 5 장 전후 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한 생산의 장성, 천리장성의 축조

- 제 1 절 농업생산의 장성
- 제 2 절 수공업의 발전
- 제 3 절 상업의 발전
- 제 4 절 개경 라성과 천리장성의 축조

제 6 장 11세기 대외관계의 발전

- 제 1 절 거란의 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대외활동
- 제 2 절 녀진인들을 복속시키기 위한 대외활동
- 제 3 절 송나라 및 일본과의 관계
- 제 4 절 대외무역의 발전

제 7 장 봉건적통치체제의 완비,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중앙통치기구의 완비

제 2 절 지방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배의 강화

제 3 절 군사제도의 완비

제 4 절 전시과제도의 개정

제 5 절 봉건적 억압과 착취의 강화, 인민대중의 비참한 처지

제 6 절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8 장 12세기초 나라의 동북지방과 압록강요새를 되찾기 위한 고려인민
의 투쟁

제 1 절 11세기말~12세기초 고려의 국내형편과 동북지방정세

제 2 절 녀진침략세력을 물리치고 동북지방을 되찾기 위한 고려인민들
의 투쟁

제 3 절 금나라침략세력을 막기 위한 방비대책, 압록강요새의 장악

제 9 장 12세기 봉건통치계급안에서의 권력다툼의 격화,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 억압과 착취의 가일층의 강화

제 1 절 12세기전반기 봉건통치배들의 권력다툼의 격화, 1135~1136년
묘청의 정변과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한 서경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

제 2 절 봉건통치배들의 부패타락, 1170년 무신 정변과 무신정권의 출현

제 3 절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 억압과 착취의 가일층의 강화

제 10 장 12세기후반기~13세기초의 전국적인 대농민전쟁

제 1 절 1174~1179년 서북농민군의 투쟁

제 2 절 1176~1177년 서남지방 농민군의 투쟁

제 3 절 12세기 80년대 각지 농민들의 투쟁

제 4 절 12세기 90년대 농민군과 노비들의 투쟁

제 5 절 13세기초 농민군의 투쟁

제 6 절 12세기 후반기부터 13세기초에 걸쳐 벌어진 전국적대농민전쟁
의 역사적의의

제 11 장 10~12세기의 문화

제 1 절 기술과 과학

제 2 절 말과 글

제 3 절 철학사상

제 4 절 교육

제 5 절 문학

제 6 절 미술

제 7 절 음악과 무용

제 7 권

제 1 장 13세기 봉건몽골침략자를 반대한 고려인민의 투쟁

제 1 절 13세기초 국내외정세와 고려-몽골관계의 시작

제 2 절 1231년 몽골군의 제1차침략을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투쟁

제 3 절 몽골침략자들의 내정간섭의 분쇄, 강화도에로의 수도옮김

제 4 절 1232~1253년 봉건몽골군의 계속되는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5 절 봉건몽골의 제6차침략의 분쇄, 고려-몽골 사이의 국교수립

제 6 절 안팎의 억압자들을 반대한 삼별초의 투쟁

제 2 장 13세기말엽~14세기 경제발전과 친리장성이북 지방에로의 인민들
의 진출

제 1 절 13세기말엽~14세기의 경제발전

제 2 절 천리장성너머에로의 인민들의 진출

제 3 장 봉건통치제도의 문란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 1 절 봉건적관료통치제도의 문란

제 2 절 봉건적<농장>의 출현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 4 장 13세기후반기~14세기 봉건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고려사회의 봉건적관계의 발전

제 1 절 13세기후반기~14세기 봉건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2 절 13~14세기 고려사회의 봉건적관계의 발전

제 5 장 13세기후반기~14세기전반기 고려-원관계, 원나라 침략세력의 구축

제 1 절 13세기후반기~14세기전반기의 고려-원관계

제 2 절 14세기중엽 대륙정세, 원침략세력의 구축

제 6 장 14세기후반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며 국토완정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홍두적의 침입과 그 격멸

제 2 절 1370년대 고려군의 료동원정

제 3 절 14세기후반기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

제 7 장 1388년 고려정부의 료동출병, 고려왕조의 종말

제 1 절 1388년 고려정부의 료동출병

제 2 절 이성계의 정권장악과 고려왕조의 종말

제 8 장 13~14세기의 문화

제 1 절 기술과 과학

- 제 2 절 말과 글
- 제 3 절 철학사상
- 제 4 절 문학
- 제 5 절 음악과 무용
- 제 6 절 연극
- 제 7 절 미술
- 제 8 절 생활풍습

제 8 권

제 1 장 15세기 중앙집권적통치체제의 재편성

- 제 1 절 수도 한양의 건설
- 제 2 절 토지와 인민에 대한 봉건적 지배의 강화
- 제 3 절 국왕의 전제적권력의 강화, 통치기구의 재편성
- 제 4 절 관료층의 계층적편성, 관직제도

제 2 장 4군 6진의 설치와 1419년 쑤시마원정

- 제 1 절 국방력의 강화
- 제 2 절 4군 6진의 설치
- 제 3 절 녀진에 대한 포섭정책과 그들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 제 4 절 1419년 쑤시마원정, 그후의 대일관계
- 제 5 절 명나라의 부당한 압력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제 3 장 소작관계의 확대, 봉건적착취제도의 편성

- 제 1 절 소작관계의 확대, 계급신분관계의 편성
- 제 2 절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 4 장 봉건적억압착취를 반대한 각지 농민들의 투쟁

제 1 절 서울방화폭동과 대성산농민폭동

제 2 절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

제 3 절 15세기후반기 전라도, 황해도 인민들의 폭동

제 5 장 경지면적의 확대, 수공업의 재편성과 광산 개발의 진척

제 1 절 농업생산의 발전

제 2 절 수공업의 발전

제 3 절 광업과 제련, 제철, 제강업의 발전

제 4 절 수산업과 목축업

제 6 장 새로운 도로와 수로의 개척, 장시의 출현과 대외무역의 확대

제 1 절 역참망의 확대와 새로운 도로의 건설, 조운의 발전

제 2 절 상업의 발전과 장시의 출현

제 3 절 대외무역의 확대

제 7 장 문화

제 1 절 과학, 기술

제 2 절 훈민정음의 창제와 우리 말

제 3 절 철학사상

제 4 절 문학

제 5 절 미술

제 9 권

제 1 장 생산의 발전과 대내외상업의 장성

제 1 절 농업생산의 발전

- 제 2 절 수공업의 발전
- 제 3 절 광업의 발전
- 제 4 절 장(항시)의 확대와 상인층의 증가
- 제 5 절 대외무역

- 제 2 장 대토지사유의 장성과 계급신분적대립의 더한층의 격화
 - 제 1 절 대토지사유의 장성, 지배계급안에서 대립의 격화
 - 제 2 절 계급신분적대립의 더한층의 격화

- 제 3 장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 제 1 절 봉건적착취의 강화
 - 제 2 절 가혹한 억압과 교활한 무마정책

- 제 4 장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인민들의 류리, 봉건통치배들을 규탄하며 처단하기 위한 산발적인 투쟁
 - 제 2 절 16세기전반기 농민무장대의 투쟁
 - 제 3 절 1550년대말~1560년대초 립격정농민 무장대의 투쟁

- 제 5 장 왜적과 녀진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왜적의 침입과 그 격퇴
 - 제 2 절 녀진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

- 제 6 장 16세기말의 국내외형편
 - 제 1 절 국내형편
 - 제 2 절 대외정세

- 제 7 장 1592~1598년 일본침략자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임진조국전쟁
 - 제 1 절 일본침략자들의 침략전쟁도발, 조선인민의 임진조국전쟁 개시,

수군의 연속적인 승리와 애국적인민들의 의병투쟁

제 2 절 전면적인 반격전의 전개, 남해안으로의 일본침략군의 구축

제 3 절 휴전기간의 국내형편, 적의 재침략기도와 국방강화대책

제 4 절 일본침략군의 재차침공을 물리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임진
조국전쟁의 종국적승리

제 8 장 문화

제 1 절 기술과 과학

제 2 절 말과 글

제 3 절 교육 및 과거 제도

제 4 절 철학사상

제 5 절 문학

제 6 절 미술

제 7 절 음악과 무용

제 8 절 풍습

제 10 권

제 1 장 17세기전반기의 국내외정세

제 1 절 임진조국전쟁이후의 국내정세

제 2 절 17세기전반기의 대외정세와 대외관계

제 2 장 외래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1627년 후금(청나라)의 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의병투쟁

제 2 절 1636년 청나라침략을 반대한 인민들의 의병투쟁

제 3 절 전후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기세의 양양, 령해의 섬들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 3 장 봉건지주적토지소유의 확대와 착취형태에서의 변화

제 1 절 공방전과 아문둔전의 발생과 그 팽창, 지주들에 의한 토지점령

제 2 절 봉건적토지경영형태에서의 새로운 변화

제 3 절 봉건적신역제에서의 변화

제 4 절 대동법의 실시

제 4 장 17세기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 2 절 17세기 봉건적억압착취를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제 5 장 사회적생산의 장성

제 1 절 농업의 발전

제 2 절 수공업의 발전

제 6 장 금속화폐의 주조와 유통, 대내외상업의 발전

제 1 절 금속화폐의 주조와 유통

제 2 절 대내외상업의 발전

제 7 장 문화

제 1 절 실학

제 2 절 과학과 기술

제 3 절 말과 글

제 4 절 철학사상

제 5 절 문학

제 6 절 미술

제 11 권

제 1 장 사회적생산의 발전

제 1 절 농업생산의 발전

제 2 절 수공업의 발전

제 3 절 광업과 수산업의 발전

제 2 장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제 1 절 상품화폐류통의 장성

제 2 절 대외무역의 발전

제 3 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제 3 장 봉건통치체제의 문란, 봉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리조정부의 시책

제 1 절 봉건통치배들의 가일층의 부패타락, 봉건 통치질서의 문란

제 2 절 무너져가는 봉건제도와 통치질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봉건정부의 시책

제 4 장 봉건적 토지소유관계 및 신분관계에서의 변화, 계급적대립의 첨예화

제 1 절 토지상품화의 장성과 봉건적토지소유 관계에서의 변화

제 2 절 신분관계에서의 변화, 계급적대립의 첨예화

제 5 장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제 1 절 봉건적지대수탈형태에서의 변화, 지대착취량의 증대

제 2 절 3정에 의한 착취의 강화

제 3 절 공물, 진상 및 부역을 통한 착취

제 4 절 봉건적억압의 강화

- 제 6 장 봉건통치배들의 학정과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18세기전반기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제 2 절 18세기후반기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 제 3 절 신분적천대와 노공착취를 반대한 노비들의 투쟁, 공노비〈해방〉
 - 제 4 절 18세기 봉건통치배들의 학정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의 특징과 그 의의
 - 제 5 절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한 투쟁

제 7 장 문화

- 제 1 절 실학
- 제 2 절 과학과 기술
- 제 3 절 말과 글, 언어학
- 제 4 절 철학사상
- 제 5 절 문학
- 제 6 절 미술

제 12 권

- 제 1 장 1811~1812년 평안도농민전쟁
 - 제 1 절 평안도농민전쟁전야의 국내정세와 농민전쟁의 준비
 - 제 2 절 농민전쟁의 개시, 청천강이북지역의 점령
 - 제 3 절 송림에서 정부군과의 격전, 정주성방어전투
 - 제 4 절 평안도농민전쟁의 성격과 특징, 의의
 - 제 5 절 1833년 서울빈민들의 쌀폭동, 각 계층 인민들의 반봉건투쟁
- 제 2 장 사회적생산과 상품화폐관계의 장성
 - 제 1 절 사회적생산의 장성

제 2 절 교통운수의 발전

제 3 절 19세기초중엽 상품화폐경제의 더한층의 발전, 상업자본의 장성

제 4 절 상품화폐관계의 농촌에로의 침투, 본건적 신분제도의 분해

제 3 장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

제 1 절 광업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

제 2 절 제철 및 철가공업과 낫그릇제조업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장성

제 3 절 인삼재배업에서의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제 4 장 봉건통치질서의 문란, 서방자본주의의 침입

제 1 절 봉건통치질서의 문란

제 2 절 국가재정의 고갈, 나라의 방비력의 약화

제 3 절 자본주의렬강의 종교침략과 <이양선>침입

제 5 장 봉건적 착취와 억압의 강화, 계급적대립의 첨예화

제 1 절 3정착취의 강화

제 2 절 3정이외의 착취와 억압의 강화, 계급적 대립의 첨예화

제 6 장 1862년 전국 농민들의 대중적폭동

제 1 절 진주농민폭동

제 2 절 삼남 각지의 농민폭동의 양양

제 3 절 농민봉기의 재개

제 4 절 1862년 농민폭동의 의의와 교훈

제 7 장 문화

제 1 절 실학사상

제 2 절 과학과 기술

제 3 절 말과 글, 언어학

제 4 절 철학사상

제 5 절 문학

제 6 절 연극

제 7 절 음악과 무용

제 8 절 미술

제 9 절 생활풍습

제 13 권

제 1 장 19세기 60~70년대 국내외정세와 사회정치관계의 급격한 변동

제 1 절 19세기 60~70년대 우리 나라에 대한 자본주의렬강의 침략음모

제 2 절 19세기중엽 우리 나라의 형편과 대원군의 봉건적<개혁>

제 3 절 봉건적지배사상으로서의 유교교리의 쇠퇴와 부르조아사상조류로서의 개화사상의 발생

제 2 장 구미렬강 및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그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 1 절 1866년 미국해적선 <샤만>호의 침입과 그 격침, 프랑스침략자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 2 절 미국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입, 1871년 대규모적무력침공과 그 격퇴

제 3 절 사대투항주의적민비일당의 정권장악, <강화도조약>의 체결

제 4 절 개항을 반대하는 애국적인민들과 위정척사론자들의 투쟁

제 3 장 1882년(임오)군인폭동

제 1 절 민가일당의 집권후 나라의 방위력의 약화, 폭동전야의 서울군

인들의 처지와 동향

제 2 절 1882년(임오)군인폭동

제 4 장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 사회계급관계에서의 변화

제 1 절 상업의 발전, 시장권의 확대와 국내시장의 형성

제 2 절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

제 3 절 신분계급관계에서의 변화

제 5 장 1884년부르조아혁명

제 1 절 개화파의 형성, 국내시장을 보호하며 국정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개화파에 의한 국가기구의 개편과 부르조아적개혁활동

제 3 절 1884년 부르조아혁명 - 갑신정변

제 6 장 수구파반동정권의 매국배족적책동과 외래침략의 강화, 그를 반대 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수구파반동정권의 매국배족적책동과 외래침략의 강화

제 2 절 외래침략과 수구파반동정권의 매국배족책동을 반대한 인민들의 투쟁, 혁신관료들의 개혁운동시도

제 7 장 1894년(갑오)농민전쟁

제 1 절 고부농민폭동과 농민전쟁의 시작

제 2 절 농민군의 전주점령,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한 내외반동들의 결탁

제 3 절 전주<화외>와 농민군의 개혁강령, 집강소의 설치, 그의 시책

제 4 절 농민전쟁의 재발, 일제침략자를 반대한 농민군의 투쟁

제 5 절 일제침략군과 정부군의 연합세력을 반대한 농민군의 공주대격 전, 농민전쟁의 역사적의의

제 8 장 1894년(갑오)부르쵸아개혁

제 1 절 갑오개혁당시의 안팎의 정세

제 2 절 혁신정권의 수립

제 3 절 부르쵸아개혁

제 4 절 일제침략자들의 침략책동의 가일층의 강화, 갑오개혁의 파탄,
그 역사적교훈

제 9 장 문화

제 1 절 말과 글, 언어학

제 2 절 철학사상

제 3 절 문학

제 14 권

제 1 장 갑오농민전쟁후 반침략반봉건투쟁의 강화

제 1 절 갑오농민전쟁후 나라의 식민지화 위기의 첨예화

제 2 절 반일의병투쟁의 시작

제 3 절 부르쵸아〈민권〉운동

제 4 절 〈활빈당〉무장대의 투쟁

제 5 절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지배들을 반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

제 2 장 로일전쟁도발후 우리 나라에 식민지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

제의 책동, 그를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 1 절 우리 나라에 식민지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

제 2 절 반일의병투쟁의 재발

제 3 절 일제의 토지략탈, 노예매매행위와 〈일진회〉를 반대한 투쟁

제 3 장 <을사5조약>의 강압적체결과 반일구국투쟁의 양양

제 1 절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강압적체결. 리조봉건국가의 실제적인 붕괴

제 2 절 반일의병투쟁의 급격한 확대

제 3 절 애국문화운동의 양양

제 4 절 국채보상운동. 일제와 그 주구를 반대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

제 4 장 일제의 강점을 반대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 1 절 일제의 침략에 의한 리조봉건국가의 종말. 각 계급과 계층들의 처지

제 2 절 서울시민들의 봉기와 애국적군인들의 폭동

제 3 절 반일의병투쟁의 전국적규모에로의 확대발전

제 4 절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적지식인들의 정치투쟁의 적극화

제 5 절 애국문화운동의 확대발전

제 6 절 침략의 원흉과 매국역적들에 대한 애국청년들의 습격처단

제 5 장 문화

제 1 절 기술과 과학

제 2 절 말과 글, 언어학

제 3 절 철학사상

제 4 절 문학

제 5 절 음악

제 6 절 생활풍습

제 15 권

제 1 장 강점 첫시기 일제의 야만적무단통치 실시. 조선인민의 정치적무

권리와 생활처지의 가일층의 악화

제 1 절 야만적무단통치체제의 수립. 일제의 야수적폭압과 조선인민의 정치적무권리

제 2 절 일제의 식민지경제체제 수립과 경제적 략탈의 강화. 조선인민의 생활처지의 가일층의 악화

제 2 장 일제강점초기의 반일독립운동. 생존의 권리를 위한 노동자, 농민의 투쟁

제 1 절 반일의병운동. 독립군운동의 준비

제 2 절 반일정치운동

제 3 절 애국문화운동

제 4 절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

제 3 장 1919년 3. 1인민봉기

제 1 절 3. 1인민봉기의 폭발

제 2 절 3. 1인민봉기의 확대발전,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의 전환

제 3 절 3. 1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일제와 미제의 책동. 3. 1봉기의 실패

제 4 절 3. 1인민봉기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

제 4 장 부르췌아민족운동의 전면적인 쇠퇴몰락

제 1 절 독립군과 독립운동단체들의 활동. 그 내부에서의 대립과 반목의 격화

제 2 절 부르췌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매국배족 책동

제 5 장 1920년대전반기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장성.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그 제한성

제 1 절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장성

제 2 절 초기공산주의운동과 그 제한성

제 6 장 문화

제 1 절 말과 글

제 2 절 문학

제 3 절 연극

제 4 절 음악과 무용

제 5 절 미술

제 16 권

제 1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개시전야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

제 1 절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제 2 절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

제 2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 동맹 결성. 새
세대의 공산주의혁명력량 육성

제 1 절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 타도제국주
의동맹 결성

제 2 절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며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
성시키기 위한 투쟁

제 3 절 부르쵸아민족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력량의 통일단결
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

제 3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창시

- 제 4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방침 제시. 역사적인 카툰회의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툰회의소집. 역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 제시
- 제 2 절 카툰회의의 역사적의의
- 제 5 장 조선혁명군 결성. 항일무장투쟁준비를 위한 조선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
- 제 1 절 조선혁명군 결성
- 제 2 절 조선혁명군 소조의 국내진출. 북부조선일대에서의 령활한 정치군사활동
- 제 3 절 만주의 넓은 지역에서 벌린 조선혁명군소조들의 정치군사활동
- 제 6 장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더욱 다그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략적구상
- 제 2 절 혁명적조직로선 제시. 1931년 봄 명월구회의
- 제 3 절 두만강연안일대에서 혁명적조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항일무장투쟁의 준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투쟁
- 제 7 장 항일무장투쟁준비시기의 혁명적인 문화와 예술
- 제 1 절 혁명적문화예술
- 제 2 절 혁명적출판물
- 제 3 절 혁명적교육

제 17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략적방침 제시. 명월구회의

제 1 절 혁명정세의 급격한 변화. 항일무장투쟁 개시를 위한 절호의 기회 조성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명월구회의 소집. 력사적인 연설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에서 천명하신 항일혁명전쟁의 전략적방침

제 2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제 1 절 반일인민유격대창건준비사업의 적극적추진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

제 3 절 반일인민유격대의 성격과 사명. 그 창건의 력사적의의

제 3 장 반일인민유격대 주력부대의 남북만진출.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전략적지도의 강화

제 1 절 반일인민유격대 주력부대의 남만진출

제 2 절 반일인민유격대 주력부대의 북만진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전략적지도의 강화

제 4 장 두만강연안유격구 창설

제 1 절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창설방침

제 2 절 두만강연안농촌지역의 혁명화를 위한 투쟁

제 3 절 유격구창설을 위한 군사행동.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대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 창설

제 5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에로 진출. 무장투쟁을 국내에
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 제시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서 진출.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 제시. 왕재산회의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진출과 왕재산회의의 역사적의의

제 6 장 반유격구 창설과 유격활동거점 설치

제 1 절 두만강연안유격구주변에 반유격구 창설

제 2 절 적통치구역에 유격활동거점 설치

제 7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유격구에
서 인민혁명정부의 수립과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

제 1 절 두만강연안유격구에서 인민혁명정부의 수립

제 2 절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서 제반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

제 8 장 두만강연안유격구에서 전인민적방위체계의 수립. 근거지의 군사
적공고화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두만강연안유격구에 전인민적방위
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 제시

제 2 절 반일인민유격대의 확대강화

제 3 절 두만강연안유격구에서 전민무장화의 실현

제 4 절 두만강연안유격구의 요새화

제 9 장 무장투쟁의 물질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유격구에서 식량과 무기생산을 위한 투쟁

제 2 절 반유격구와 적통치구역 인민들의 지원투쟁

제 3 절 적의 군수물자를 빼앗기 위한 투쟁

제 10 장 조선공산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 부대와 두만강연안유격 근거지를 중심으로 당 조직의 확대강화. 당조직지도체계의 확립

제 2 절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꾸리기 위한 투쟁

제 3 절 종파주의와 기회주의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제 11 장 항일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투쟁.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강화

제 1 절 대중조직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제대책

제 2 절 노동자, 농민을 결속하기 위한 투쟁. 로농동맹의 강화

제 3 절 각계각층 군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

제 18 권

제 1 장 유격구에 대한 일제의 <초토화>작전을 격파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유격구방위를 위한 군사 전략전술적 방침

제 2 절 1993년 봄 유격구에 대한 적의 <토벌>공세의 격파

제 3 절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사활동규모의 확대. 적에 대한 타격의 강화. 동녕현성전투

제 4 절 1993년말~1994년초 적의 <동기토벌>을 물리치기 위한 소왕청 방어전투를 비롯한 유격구역들에서의 영웅적방위투쟁

제 2 장 유격구에 대한 일제의 <위공>작전을 격파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일제의 <위공>작전기도

- 제 2 절 반일인민유격대의 조선인민혁명군으로의 개편
- 제 3 절 1934년 춘기공세. 유격구주변에 분산 배치된 적에 대한 집중타격
- 제 4 절 왕청현동북부 및 안도지구에서의 적극적군사활동. 라자구전투
- 제 5 절 일제의 <위공>작전을 격파하기 위한 투쟁의 빛나는 승리. 제1차북만원정

- 제 3 장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혁명대오를 와해하려는 일제의 책동. 반<민생단>투쟁에서의 좌경적 편향과 그 후과
 - 제 2 절 혁명대렬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다홍왜회의
 - 제 3 절 반<민생단>투쟁에서 발로된 좌경적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

- 제 4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갈데 대한 전략적방침제시. 두만강연안유격구의 해산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전략적방침제시. 요영구회의
 - 제 2 절 두만강연안유격구의 해산

- 제 5 장 조선인민혁명군의 광활한 지대에로의 진출. 제2차북만원정
 -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북만원정준비. 료후산전투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북만원정
 -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국내 및 남만 진출

- 제 6 장 두만강연안일대에서의 반간첩투쟁과 적군와해사업
 - 제 1 절 두만강연안유격근거지에서의 반간첩투쟁
 - 제 2 절 두만강연안일대에서의 적군와해사업

제 7 장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 전개된 인민대중의 반일투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과 대중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방침. 인민들속에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항일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일제의 파쇼적폭압과 략탈정책을 반대한 인민대중의 투쟁

제 8 장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여러 나라 공산주의자들 및 혁명적 인민들과의 연대성강화

제 2 절 중국일반부대와의 연합전선형성

제 19 권

제 1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 반적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전략적방침 제시. 남호두회의

제 1 절 1930년대중엽의 국제국내정세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위한 전략적 방침 제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 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제 2 장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 조국광복 회창건 준비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

제 2 절 조국광복회창건준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제 3 장 조국광복회 창건.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 조국광복회10대강령

제 1 절 조국광복회의 창건. 동강회의

- 제 2 절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규약
- 제 3 절 조국광복회창건의 역사적의의
- 제 4 장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백두산주변 국경지대로의 진출. 항일
혁명전쟁의 새로운 전략적 기지-백두산근거지 창설
 -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백두산주변 국경지대로의 진출
 - 제 2 절 백두산 대산림지대에 밀영망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
 - 제 3 절 백두산주변지역에서 인민들을 조직화하고 적의 통치기능을 마
비시키기 위한 투쟁
- 제 5 장 백두산서남부일대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의 확대강화
 - 제 1 절 적의 대규모적인 동기<토벌>의 격파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무송지구으로의 이동
- 제 6 장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의 확대강화. 생산유격대의 조직
 -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의 확대. 소년중대의 조직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강화
 - 제 3 절 생산유격대 조직과 그의 적극적인 활동
- 제 7 장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 역사적인 보천보전투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국내진공작전방침 제시. 서강회의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국내진공작전준비
 -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
 - 제 4 절 국내진공작전승리의 역사적의의
- 제 8 장 전국적범위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침 제시

제 2 절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대중정치사업

제 3 절 전국적범위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의 확대강화. 반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의 통일단결

제 9 장 전국적범위에서 조선공산당창건준비사업의 적극적추진

제 1 절 당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 통일적인 당조직지도체계의
확립

제 2 절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 주체형의 공
산주의 대오의 확대 강화

제 3 절 당창건의 사상리론적기초 확립.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

제 20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일전쟁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전술
적방침 제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적배후교란작전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가 도발한 중일전쟁에 대처하
여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 제시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압록강연안국경일대에서의 적배후
교란작전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압록강, 두만강연안과 남북만일대에
서의 적배후교란작전

제 2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
들의 임무> 발표. 조선인민혁명군의 동기군정학습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
들의 임무> 발표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마당거우에서의 동기군정학습
- 제 3 장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압록강연안에서의 군사정치활동의 강화
-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압록강연안으로의 진격. 1938년 춘기공세
- 제 2 절 일제의 대륙침략전쟁확대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배후타격전
- 제 4 장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시켜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적 방침 제시. 남패자회의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압록강연안으로의 집중행군
-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분산활동.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한 영웅적투쟁
- 제 4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집결. 고난의 행군의 위대한 승리
- 제 5 장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조국진군. 무산지구진공작전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진군방침 제시. 북대정자회의
- 제 2 절 1939년 춘기반격전. 조국진군준비를 위한 투쟁
-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무산지구진공작전
- 제 6 장 올기강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동북부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군사정치활동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백두산동북부에서의 군사정치활동 방침 제시. 큰콜회의
- 제 2 절 올기강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동북부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활동

제 3 절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7 장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부대선회작전방침 제시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돈화지구에서의 행군. 룡과송, 자신
즈 전투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두만강연안에서의 진출. 대마록구, 흥기하 전투

제 8 장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최종격파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최종적으로 격파하기 위한 전략전술적과업 제시

제 2 절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을 최종적으로 격파하기 위한
투쟁

제 9 장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의 새로운
양양

제 1 절 항일무장투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

제 2 절 일제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

제 10 장 국제혁명력량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중국인민과의 반일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소련을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여러 나라 로동계급 및 식민지피압박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
하기 위한 투쟁

제 21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방침 제시. 소할바령회의

제 1 절 제2차 세계대전의 확대. 국제국내정세의 급격한 변화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할바령회의에서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방침 제시

제 2 장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에로의 이행. 립시비밀근거지창설.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의 소부대, 소조들의 활동

제 1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소부대활동에로의 이행. 립시비밀근거지창설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소조들의 백두산 동북부일대에서의 활동

제 3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혁명에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투쟁.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의 정치군사활동의 적극화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하며 소부대활동을 적극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 제시. 력사적인 1941년 6월 30일 연설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와 정치공작소조들의 대중정치사업의 강화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의 령활한 전투활동

제 4 절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정치공작소조들의 적극적인 정찰활동

제 4 장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군정훈련

제 1 절 군정훈련준비. 조선인민혁명군의 정규화체제로의 개편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학습

제 3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훈련

제 5 장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반일민족통일
전선운동의 강화발전

제 1 절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광범한 반일대중을 더욱 튼튼히 결속하기 위한 투쟁. 반일민족
통일전선운동의 강화발전

제 6 장 민족의 태양이시며 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일
반전투쟁의 강화

제 1 절 민족의 태양이시며 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

제 2 절 인민대중의 반일반전투쟁의 강화

제 22 권

제 1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더
욱 철저히 갖추데 대한 투쟁과업 제시

제 1 절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혁명정세의 성숙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와의 최후결전준비를 더욱 철
저히 갖추데 대한 투쟁과업 제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
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제 2 장 전인민적항쟁준비사업의 적극적추진

제 1 절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벌릴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기
위한 투쟁

제 2 절 인민대중속에서 반일투쟁의 급격한 양양

제 3 절 무장봉기조직들의 출현, 각계각층 인민들속에서 무장폭동태세

의 강화

제 3 장 최후결전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최후결전을 앞두고 정치적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최후결전에 대처한 군사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투쟁

제 4 장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 수립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최후공격작전개시. 적의 국경요새구역 돌파. 청진이북지역에서 일제침략군을 격멸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일제의 군사적저항과 식민지통치기구를 철저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

제 5 장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문화

제 1 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문학과 예술

제 2 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출판물

제 3 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혁명적교육

제 4 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말과 글

제 5 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보건

제 6 절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체육

제 7 절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과 문화

제 6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요인과 역사적의의

제 1 절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요인

제 2 절 항일무장투쟁승리의 역사적의의

제 23 권

제 1 장 조국의 해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인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 제시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 해방직후의 국내외정세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 제시

제 3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
회.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총결기

제 2 장 주체형의 당, 공산당의 창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형의 당, 공산당 창건방침 제시

제 2 절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창설.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

제 3 절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강화를 위한 투쟁

제 3 장 애국적민주력량의 결속. 근로단체들의 조직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선의 결성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국적민주력량을 묶어세울데 대
한 방침 제시

제 2 절 근로대중을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

제 3 절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결성

제 4 장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창립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적인 인민정권건설방침 제시

제 2 절 지방인민위원회의 출현과 행정10국의 조직

제 3 절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창립. 20개조정강

제 5 장 민주주의적개혁의 실시

제 1 절 토지개혁

- 제 2 절 중요산업의 국유화
- 제 3 절 세금제도의 개혁
- 제 4 절 노동법령의 발표
- 제 5 절 남녀평등권의 실시
- 제 6 절 민주교육제도의 수립
- 제 7 절 사법의 민주화
- 제 8 절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수립

- 제 6 장 민족간부대렬을 꾸리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간부대렬을 꾸릴데 대한 방침 제시
 - 제 2 절 민족간부양성기지의 축성
 - 제 3 절 오랜 인테리들이 새 조국 건설사업에 적극 참가

- 제 7 장 평양을 새 조선의 민주수도로 꾸리기 위한 투쟁, 보통강개수공사
 - 제 1 절 평양을 혁명의 중심지로, 민주수도로 꾸리기 위한 투쟁
 - 제 2 절 보통강개수공사

- 제 8 장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제시
 - 제 2 절 산업의 정리복구. 생산의 개시
 - 제 3 절 해방된 조선의 첫봄을 증산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 제 4 절 운수 및 채신의 정비복구
 - 제 5 절 자주적인 은행 및 화폐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
 - 제 6 절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인민적상업의 창설

- 제 9 장 근로대중의 통일적당, 노동당의 창립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근로대중의 통일적당, 노동당 창립방침 제시
- 제 2 절 근로대중의 통일적당, 노동당의 창립
- 제 3 절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제 10 장 건국사상총동원운동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건국사상 총동원운동방침 제시
- 제 2 절 새 조선의 민족적기풍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
- 제 3 절 새 민주조선 건설에 건국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

제 11 장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남조선에서의 민주력량의 급속한 진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 정책
- 제 2 절 남조선에서 대중적반미구국투쟁의 폭발과 10월인민항쟁

제 24 권

제 1 장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의 이행. 북조선인민위원회수립

- 제 1 절 북반부에서 사회주의혁명단계에로의 이행
-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건설방침제시. 력사적인 첫 민주선거
- 제 3 절 첫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인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

제 2 장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과도기 첫시기 우리 당 경제정책의 기초
- 제 2 절 1947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

- 제 3 절 1948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
- 제 3 장 조선인민혁명군의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의 강화발전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정규적혁명무력건설방침 제시. 현대적정규무력건설을 위한 투쟁
 - 제 2 절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선인민군으로의 강화발전
- 제 4 장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방침 제시
 - 제 2 절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
 - 제 3 절 4월남북련석회의와 구국대책의 수립
 - 제 4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공화국정부정강
- 제 5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당단체들의 사업의 개선강화, 사회단체들 역할의 제고
 - 제 2 절 지방정권기관의 강화, 각급 지방주권기관 선거
- 제 6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력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수행
 - 제 1 절 2개년인민경제계획의 중심과업
 - 제 2 절 공업의 자립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투쟁
 - 제 3 절 농촌경리와 립업, 수산업의 가일층의 발전
 - 제 4 절 교통운수 및 체신부문의 새로운 발전
 - 제 5 절 해방후 북반부민중기지의 경제토대 강화. 근로자들의 물질생활의 향상

제 7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의 강화

제 2 절 군수산업기지의 축성

제 3 절 인민군원호사업의 강화, 조국부위후원회 결성

제 8 장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 추진

제 1 절 합작사를 조직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자본주의적상공업에 대한 리용, 제한

제 3 절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준비

제 9 장 민주주의적민족문화건설을 위한 투쟁

제 1 절 민주교육의 발전

제 2 절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제 3 절 민주주의적민족문화예술의 발전

제 4 절 말과 글의 발전

제 5 절 혁명적출판보도물의 건설

제 6 절 인민체육의 발전

제 7 절 민주보건제도의 공고발전

제 8 절 민주주의적생활양식을 세우기 위한 투쟁

제 10 장 미제의 단독정부조작책동과 식민지파썸통치를 짓부시기 위한 남
조선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5.10망국단독선거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대중적 파업투쟁과
려수군인폭동

제 11 장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

기 위한 투쟁

제 1 절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장침습의 분쇄 · 은파산전투

제 2 절 남북조선 로동당의 합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과 평화통일선언서 채택

제 3 절 평화적조국통일방책실현을 위한 투쟁

제12장 국제민주력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기본방침 제시

제 2 절 국제민주력량과의 연대성과 형성.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폭로배격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국제민주진영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강화발전. 미제의 새전쟁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제25권

제 1 장 미제의 극동침략정책과 조서전쟁도발준비

제 1 절 제2차세계대전후 국제정치세력배치에서의 변화. 미제의 극동침략정책

제 2 절 미제의 범죄적인 조선침략전쟁도발준비

제 3 절 미제의 전쟁도발의 최종적완성.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추진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제 2 장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력침공,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전략적방침 제시

제 1 절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력침공, 조국해방전쟁의 개시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정방침 제시

제 3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의 모든 사업을 전시체제로 개편

제 3 장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서울해방 및 적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

제 1 절 조선인민군 반공격으로 이행, 서울해방 및 남조선피괴군 주력의 괴멸(제1차작전. 1950. 6. 25~6. 29)

제 2 절 전면적무력침공을 <합법화>하기 위한 미제의 범죄적책동

제 3 절 한강도하와 적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 미제침략군지상부대 선견대의 소멸(제2차작전. 1950. 6. 30~7. 6)

제 4 장 전선선에서의 맹렬한 타격전. 대전해방작전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50년 7월 8일방송연설에서 전체 조선인민에게 미제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칠것을 호소.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기 위한 제 대책

제 2 절 전선선에서의 적에 대한 맹렬한 타격. 대전해방작전의 빛나는 승리(제3차작전. 1950. 7. 7~7. 20)

제 3 절 전쟁 첫시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전쟁가담책동

제 5 장 전시생산, 전선원호를 위한 후방인민들의 영웅적투쟁

제 1 절 전선탄원운동

제 2 절 전시생산, 전선원호를 위한 투쟁

제 6 장 공화국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락동강계선에서의 영웅적투쟁

제 1 절 공화국남반부 넓은 지역의 해방. 조선인민군부대들의 락동강계선으로의 진출(제4차작전. 1950. 7. 21~8. 20)

제 2 절 락동강계선에서의 인민군부대들의 영웅적인투쟁(제5차작전. 1950. 8. 31~9. 15)

제 7 장 해방된 남반부지역에서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의 조직과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 남반부인민들의 적극적인 전선원호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해방된 남반부지역에 인
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할데 대한 방침

제 2 절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의 복구

제 3 절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의 실시. 인민들의 생활안정
을 위한 제대책

제 4 절 남반부인민들의 전선원호와 경제복구를 위한 투쟁

제 26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제2단계의 전략적방침
제시, 적의 모험적인 침략기도를 분쇄하며 조선인민군의 주력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 강력한 예비부대의 편성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 제2단계의 전략적방침 제시

제 2 절 인천, 서울 지구 및 랑동강계선에서의 인민군부대들의 영웅적
투쟁

제 3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하며
적에게 새로운 결정적타격을 주기 위하여 모든 력량을 준비할
것을 호소, 력사적인 1950년 10월 11일 방송연설

제 4 절 38도선계선과 그 이북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제 5 절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보존 및 그의 확대강화, 강력한 예비부대
의 편성, 인민군대안에 당단체와 정치기구의 조직

제 6 절 전체 인민을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대중정치 사업
의 강화, 전시생산, 전선원호사업을 강화하며 국가재산을 소개
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 2 장 제2전선부대들의 적후투쟁의 개시, 적강점지역에서의 인민유격대들의 조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후 투쟁방침 제시

제 2 절 제2전선부대들에 의한 적후투쟁의 개시, 적강점지역에서 인민유격대와 청소년 근위대들의 조직

제 3 절 일시적강점지역에서의 미제침략자들의 만행

제 3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제3단계의 전략적방침 제시, 전전선에서 반공격에로의 이전, 적후에서 제2전선부대들과 인민유격대들의 영웅적투쟁, 적유생력량의 대량적소멸과 38도선 이남에로의 적 구축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 제3단계의 전략적방침 제시

제 2 절 청천강이북지역에서의 강력한 반타격과 전선동부에서의 완강한 방어(제1차 작전, 1950. 10. 25~11. 24)

제 3 절 제2전선부대들에 의한 적후투쟁의 확대강화

제 4 절 적강점지역에서의 인민유격대들의 영웅적투쟁

제 5 절 적후인민들의 지하활동, 청소년 근위대들의 용감한 투쟁

제 6 절 전국의 근본적전환, 적의 일시적강점밑에 있던 공화국북반부지역의 해방(제2차작전, 1950. 11. 25~12. 24)

제 4 장 당, 국가 및 군사 규률을 강화하며 군사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 38도선계선에서의 적방어 돌파와 37도선계선으로의 적 구축

제 1 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의

제 2 절 당, 국가 및 군사 규률의 강화, 군사분야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

제 3 절 제2전선부대들의 적 중심으로의 진출, 37도선계선예로의 적 구축(제3차작전, 1950. 12. 25~1951. 1. 24)

제 5 장 후방의 복구정비와 인민생활안정을 위한 투쟁, 전시생산, 전선원호사업의 강화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후방을 복구정비할데 대한 방침 제시

제 2 절 후방의 정치사상적공고화를 위한 투쟁, 해방된 지역에서 당조직 및 정권기관의 복구정비

제 3 절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당과 국가의 조치

제 4 절 파괴된 인민경제의 복구정비, 전시생산, 전선원호사업의 강화

제 6 장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대량적소멸, 해안방어의 강화

제 1 절 끊임없는 소모전에 의한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대량적소멸(제4차작전, 1951. 1. 25~4. 21)

제 2 절 해안방어의 강화

제 3 절 전전선에서의 적에 대한 강력한 선제타격, 적의 유생력량과 전투기술기재의 대량 소멸(제5차 1, 2작전. 1951. 4. 22~5. 22)

제 27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 제시, 적극적인 진지방어예로의 이전, 조선정전담판의 개시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 제4계단의 전략적방침 제시, 적극적인 진지 방어예로의 이전

제 2 절 정치군사적공경에 처한 미제의 정전담판 제의, 정전담판의 개시

제 2 장 1951년 하기 및 추기 방어작전

제 1 절 1951년 하기방어작전(1951. 8. 18~9. 22)

제 2 절 1951년 추기방어작전, 영웅적인 1211고지방어전투(1951. 9. 29~11. 12)

제 3 절 정전담판에서 미제의 부당한 군사분계선 설정야망과 내정간섭 기도의 분쇄

제 3 장 당과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당대렬의 확대강화와 인민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

제 1 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당과 대중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현재단계에 있어서의 지방 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

제 4 장 인민군대의 질적강화를 위한 투쟁, 1952년 인민군대의 적극적인 군사행동의 강화

제 1 절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 강화를 위한 투쟁, 모범 중대운동의 전면적 전개

제 2 절 적극적인 군사행동의 강화

제 3 절 미제의 정전담판지연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적의 〈김화공세〉격파

제 5 장 미제의 야수적인 살륙만행,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침략전쟁 가담책동의로골화

제 1 절 미제침략자들의 세군전만행과 공화국복반부 전지역에 대한 무차별폭격, 야만적인 포로학살만행

제 2 절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침략전쟁

제 6 장 후방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전시생산, 전선원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민들의영웅적투쟁

제 1 절 후방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전시인민경제계획을 넘쳐완수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인민생활의 전반적안정

제 4 절 후방가족 및 전재민들에 대한 사회적원호사업의 강화

제 5 절 전선지구인민들속에서 전선원호사업의 강화, 전선원호미헌납운
동의 앙양제 7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전후복구건설구상, 전후복구건
설과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전후복구건설구상

제 2 절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

제 3 절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준비사업의 추진

제 8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투쟁, 미제의 <신공세>기도의 분쇄, 조선인민군
의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제 1 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
를 위한 투쟁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군대를 강
화하자>. 적의 <신공세>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적에 대한 세차례의 강력한 타격

제 9 장 전시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전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 사업의 성과적추진
- 제 2 절 과학과 기술의 발전
- 제 3 절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발전
- 제 4 절 말과 글
- 제 5 절 전시출판보도사업
- 제 6 절 보건과 체육
- 제 7 절 전시 일상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

- 제 10 장 남조선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의 심각화와 그를 수습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 남조선인민들의 반전반미구국투쟁
 - 제 1 절 남조선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의 심각화와 그를 수습하기 위한 미제의 발악적책동
 - 제 2 절 <반제구국투쟁동맹>의 조직과 남조선 인민들의 반제반미구국투쟁

- 제 11 장 공화국정부의 전시대외정책,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강화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시대외 활동방침 제시
 - 제 2 절 미제의 침략책동과 야수적만행을 폭로규탄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대외활동
 - 제 3 절 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 제 12 장 정전협정의 체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 제 1 절 정전협정의체결,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 제 2 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요인
 - 제 3 절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의의

제 28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인민경제복구 건설을 위한 혁명적인 로선 제시

제 1 절 전후의 정치정세와 경제형편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제 3 절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

제 2 장 전반적인민경제복구건설의 준비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

제 1 절 전반적복구건설을 위한 준비단계의 기본과업과 그 수행에로의 이행

제 2 절 중요산업부문들과 운수, 체신 및 농촌경리의 복구를 위한 투쟁, 준비단계과업의 성과적수행

제 3 장 3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인민경제의 전면적복구건설과 인민생활의 안정향상

제 1 절 3개년인민 경제계획의 주요과업과 그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

제 2 절 공업의 급속한 복구발전

제 3 절 농촌경리의 복구와 농업생산의 장성

제 4 절 교통운수 및 체신의 복구발전

제 5 절 도시와 공장지대의 복구재건

제 6 절 인민생활의 안정향상

제 4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4월테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발표하신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복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 제시
- 제 3 절 농업협동화운동의 개시와 경험적단계, 농업 협동조합의 조직과 그 우월성의 발양
- 제 4 절 농업협동화운동의 대중적단계, 농업협동화에서의 결정적승리
- 제 5 절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성과적 추진
- 제 5 장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강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의 새로운 전환
- 제 1 절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강화,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
- 제 2 절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
- 제 6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기초 건설의 완성을 위한 강령적과업 제시. 당의 통일단결과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완성을 위한 강령적 과업 제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 제 2 절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8월 전원회의
- 제 3 절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지방주권기관 선거

제 7 장 교육, 과학과 기술 및 인민보건사업의 복구발전

제 1 절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의 실시. 기술인재 양성체계의 정비

제 2 절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제 3 절 인민보건사업의 복구발전

제 8 장 3개년인민경제계획의 빛나는 완수, 자립적민족경제 토대의 기본적인 축성, 국방력의 강화

제 1 절 3개년계획의 빛나는 총화

제 2 절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9 장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

제 1 절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투쟁

제 2 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제 10 장 정전직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군사기지화 정책의 강화, 남조선혁명운동의 새로운 발전

제 1 절 정전직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군사기지화정책의 강화

제 2 절 정전직후 남조선혁명운동의 새로운 발전

제 1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주체적인 조선전환방침 제시. 재일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과 재일조선인운동의 획기적발전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인 운동의 주체적인 조선전환방침 제시

제 2 절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결성, 재일 조선인운동의 획기적인 발전

제 12 장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과 친선 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

제 1 절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대외활동

제 2 절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련계의 강화

제 29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기초 건설의 완성을 위한 5개년계획수행에로의 이행, 천리마운동의 개시

제 1 절 인민경제발전5개년계획의 기본과업

제 2 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 5개년계획의 첫째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 천리마운동의 개시

제 2 장 조선로동당의 강화, 당의 령도적역할의 제고, 인민정권의 프롤레타리아독재기능의 강화

제 1 절 1958년 3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의 통일단결의 강화

제 2 절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 인민정권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기능의 강화

제 3 장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

제 1 절 농업협동화의 완성

제 2 절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완성

제 3 절 사회주의제도의 수립

제 4 장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를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튼튼히 닦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한 획기적조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8년 9월전원회의
- 제 2 절 혁명적고조를 더욱 높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기 위한 투쟁
- 제 3 절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 100만정보의 관개면적확장을 위한 투쟁
- 제 4 절 기본건설의 공업화와 <평양속도>의 창조
- 제 5 장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의 강화, 천리마운동의 심화발전
 - 제 1 절 혁명전통교양과 공산주의교양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고전적로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 제 2 절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개시와 그 확대
- 제 6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창조, 5개년
계획의 빛나는 완수, 사회주의기초 건설의 완성, 나라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투쟁
 - 제 1 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
 - 제 2 절 완충기과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
 - 제 3 절 5개년계획의 빛나는 완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축성
 - 제 4 절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 제 7 장 문화혁명의 적극적추진
 - 제 1 절 중등의무교육제의 실시, 기술간부양성사업의 강화와 근로자들
의 문화기술수준의 제고
 - 제 2 절 과학과 기술의 발전
 - 제 3 절 문학예술의 발전
 - 제 4 절 조선말의 발전, 문화어의 형성
 - 제 5 절 출판보도사업의 발전
 - 제 6 절 인민보건사업의 발전

제 7 절 체육사업의 발전

제 8 장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투쟁

제 1 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동포애적인 조치

제 2 절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방안

제 9 장 남조선에서의 사회, 경제, 문화의 전면적파탄. 4월인민봉기와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의 새로운 심화

제 1 절 남조선에서의 사회, 경제, 문화의 전면적파탄

제 2 절 4월인민봉기와 이승만괴뢰정권의 붕괴

제 3 절 4월인민봉기 이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의 양상

제 10 장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을 실현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옹호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재일 조선공민들의 투쟁

제 1 절 재일 조선공민들의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과 그 빛나는 실현

제 2 절 민주주의적민족권리옹호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재일 조선공민들의 투쟁

제 11 장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칙적단결을 위한 투쟁. 반제민족해방력량과 평화애호인민들과의 련대성의 강화

제 1 절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한 사회주의 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해방운동을 지지성원하기 위한 투쟁.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제 30 권

제 1 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 제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제 1 절 1960년대초 국내외정세

제 2 절 사회주의의 전면적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 제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제 2 장 7개년인민경제계획 첫해과업의 빛나는 완수. 여섯개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

제 1 절 7개년인민경제계획 첫해과업의 빛나는 완수

제 2 절 여섯개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

제 3 장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의 확립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로운 사회주의적경제관리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 제시

제 2 절 공업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확립

제 3 절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의 확립

제 4 장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 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제 2 절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3 절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제 4 절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

제 5 장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적극적추진

제 1 절 농촌문제의 중국적해결을 위한 위대한 강령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제 2 절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제 3 절 농촌에 대한 지원 강화, 농업현물세제의 완전한 폐지

제 4 절 농촌경리에 대한 국가적지도의 강화. 분조관리제의 실시

제 6 장 새 환경에 맞게 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강일층의 확대발전

제 1 절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이며 당사업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

제 3 절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

제 4 절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가일층의 확대발전

제 7 장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투쟁.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실시. 7개년계획의 하반기과업수행에로의 이행.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

제 1 절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실시

제 3 절 7개년계획의 하반기과업수행에로의 이행. 인민생활의 급속한 향상

제 8 장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

- 제 1 절 9년제기술의무교육준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기술인재양성사업의 급속한 발전
- 제 2 절 혁명적문학예술의 개화발전
- 제 9 장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쇼애국투쟁의 강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남조선에서 미제에 의한 군사파쇼독재 정권의 조작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강화
- 제 2 절 주체형의 혁명적당 창건을 위한 투쟁
- 제 3 절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군사파쇼통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 제 4 절 범죄적 <한일회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 3봉기와 8월투쟁
- 제 10 장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 조선 동포들의 투쟁
- 제 1 절 총련조직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 <모범분회>창조운동
- 제 2 절 공화국공민의 영예와 민주주의적민족 권리를 옹호하기위한 투쟁
- 제 3 절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재일 조선공민들의 투쟁.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의 강화
- 제 11 장 대외관계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나라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외관계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 제시
-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나라들을 친선방문.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을 옹호하며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한 투쟁
- 제 3 절 새로 독립한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관계의 발전

제 4 절 미제의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평화를 유지
하기 위한 투쟁.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 대한 지지성원의 강화

제 31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획기
적발전을 위한 혁명로선 제시

제 1 절 1960대중엽 국내, 국제 정세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의 획
기적발전을 위한 혁명로선 제시

제 2 장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
화 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자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
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사회주
의의 완전승리와 중국적 승리에 관한 독창적리론

제 3 절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

제 3 장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
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발단

제 2 절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의 전국에로의 확대. 경제, 국방
건설에서의 새로운 양양

제 3 절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가일층의 심화발전. 사회주의건설에서 혁
명적대고조를 계속 견지하기 위한 투쟁

제 4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 발표.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 정부의 10대정강 발표

제 2 절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 국가, 경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제고

제 5 장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완수하며 7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

제 1 절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

제 3 절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마지막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투쟁. 지방산업공장들의 대대적인 건설

제 6 장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성과적수행. 사회주의공업 국가에로의 전변

제 1 절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전변

제 2 절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

제 3 절 인민생활의 획기적인 향상

제 7 장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개화발전

제 1 절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 및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의 발전

제 2 절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제 3 절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발전

제 4 절 사회주의민족어 건설

제 5 절 출판보도사업의 발전

제 6 절 예방사업의 강화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생산의 증대

제 7 절 체육의 대중화와 체육기술의 발전

제 8 절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확립하며 낡은 생활관습을 없애기 위한 투쟁

제 8 장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과소민주화투쟁의 양양, 통일혁명당의 창건

제 1 절 남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준비의 로골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에 의한 2중 식민지화과정의 촉진

제 2 절 6. 8부정〈선거〉와 〈3선개헌〉반대투쟁

제 3 절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폭력적진출의 강화

제 4 절 통일혁명당 창건

제 5 절 미제의 식민지략탈정책을 반대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제 6 절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 대한 지지 성원,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폭로 분쇄하기 위한 북반부인민들의 투쟁

제 9 장 위대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총련의 조직 사상적공고화,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

제 1 절 위대한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한 총련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투쟁

제 2 절 공화국공민권과 귀국의 배길을 지키기 위한 투쟁.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사업과 민족문화예술의 가일층의 발전

제 3 절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 총련의 적극적인 대외활동

제 10 장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위한 투쟁. 국제적인 반제반미공동투쟁의 강화

제 1 절 반제반미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신흥세력나라 및 국제민주단체들과의 반제반미공동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우리 나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

제 32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며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길데 대한 웅대한 강령 제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제 1 절 1960년 대말~1970년대초의 국내외정세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다그칠데 대한 새로운 투쟁 로선과 방침 제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제 3 절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

제 2 장 6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기위한 투쟁. 첫 두해 과업의 성과적수행

제 1 절 <100일전투>. 새 기록, 새 기준량의 창조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퍼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 공작기계생산에서의 일대 비약

제 3 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생산

의 전면적양양

제 4 절 생산과 건설의 계속적인 양양. 6개년 계획의 성과적추진

제 3 장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돛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한 온 겨레의 충성의 열정

제 1 절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돛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경축

제 3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 벌어진 전인민적인 사적지건설사업

제 4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발포. 국가사회제도의 가일층의 공고화

제 1 절 최고인민회의의 및 지방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역사적인 최고인민회의의 제5기 제1차회의

제 2 절 <조선민주주의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3 절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

제 5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3대혁명소조운동을 조직령도.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강력한 추진

제 1 절 3대혁명소조운동의 발단과 그 확대발전

제 2 절 사상혁명의 적극적추진.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의 확립

제 3 절 기술혁명수행에서 본보기의 창조. 3대기술 혁명의 전면적추진

제 4 절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의 제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

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

제 6 장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 제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심화발전

제 1 절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

제 2 절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투쟁.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의 강화

제 3 절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

제 7 장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 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 대건설방침 제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

제 2 절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차게 벌어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의 속도전,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

제 3 절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의 성과적점령

제 4 절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

제 5 절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단과 그 확대발전

제 6 절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완충의 해 과업의 성과적수행

제 8 장 사회주의문화건설의 성과적추진

제 1 절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100만 인테리대군의 마련

제 2 절 과학과 기술의 발전

제 3 절 조선어의 발전

제 4 절 출판보도사업에서의 새로운 혁명적전환,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

- 제 5 절 치료예방사업의 가일층의 발전, 농촌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
사업의 강화
- 제 6 절 체육의 대중화와 국방체육의 발전
- 제 9 장 자위적국방력의 강화와 인민생활의 향상, 6개년계획 수행의 자랑
찬 총화,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빛나는 승리
- 제 1 절 자위적국방력의 가일층의 강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그
저지파탄
- 제 2 절 인민생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쟁, 세금제도의 철폐,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의 향상
- 제 10 장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새 국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조선>조작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폭넓은 남북협상방침 제시,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개시
-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3대원칙 제시. 7. 4남
북공동성명발표
- 제 3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과 그
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 제 11 장 남조선인민들의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
- 제 1 절 <유신> 독재체제의 수립과 남조선사회의 가일층의 파쇼화, 남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위기의 심각화
- 제 2 절 남조선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 통일혁명당의 지도
적역할의 제고

- 제 3 절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의 심화발전,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
- 제 4 절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운동의 확대발전
- 제 5 절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
- 제 12 장 총련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재일 조선인운동을 비롯한 해외교포운동의 심화발전
- 제 1 절 총련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 총련대렬의 통일 단결의 강화
- 제 2 절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 민족교육과 문예, 체육의 발전
- 제 3 절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애국운동의 강화. 대외활동의 적극화
- 제 4 절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민단>계 및 구미지역 교포들의 투쟁
- 제 13 장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을 위한 투쟁,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 제 1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 자주성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의 발전
- 제 2 절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싸우는 인민들에 대한 지지성원. 신흥세력나라들과의 협조와 단결의 강화. 우리 나라의 뿔럭불가담운동 가입
- 제 3 절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국통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대외활동의 빛나는 승리

제 33 권

제 1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계획의 옹
대한 강령 제시

제 1 절 1970년대중엽 우리 나라의 국내외정세

제 2 절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제2차7개년계획의 주요과업

제 3 절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당과 국가의 제대책

제 2 장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로의 이행.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

제 1 절 새 전망계획의 첫 두해과제의 빛나는 수행. 공업생산의 급속한
장성

제 2 절 한랭전성의 영향을 이겨내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
900만톤 알곡고지의 점령

제 3 절 수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 수송능력의 급속한
증대

제 4 절 기본건설의 대대적인 전개. 기념비적 창조물들의 건설

제 5 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

제 3 장 3대혁명의 성과적추진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
의 조직전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

제 1 절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의 성과적추진

제 2 절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의 조직전개

제 3 절 부문법전들의 채택. 인민정권의 강화

제 4 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신 불멸의 주체철학

제 1 절 주체의 철학적세계관

제 2 절 주체의 사회력사관

제 3 절 주체의 인생관

제 5 장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

제 1 절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

제 2 절 문학예술에서의 일대 혁명적전환. 주체예술의 대전성

제 3 절 사회주의보건사업의 가일층의 발전. 인민보건법의 채택

제 6 장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의 앙양. 조국의 자주적평화통

일을 실현하기 위한 북과 남의 접촉과 대화의 마련

제 1 절 <유신>독재체제의 전면적위기, 군사 파쇼도당의 발악적책동

제 2 절 파쇼적<유신>독재체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강화, 10월민주
항쟁

제 3 절 <10월사건>후 반파쇼민주화운동의 급격한 발전, 영웅적광주인
민봉기

제 4 절 북과 남의 접촉과 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

제 7 장 총련의 주체사상화의 촉진.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총련과 해외동포들의 투쟁

제 1 절 총련의 주체사상화의 촉진.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굳건히 지
키기 위한 투쟁

제 2 절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
당기기 위한 총련과 해외동포들의 투쟁

제 8 장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주체사상보급운동
의 심화발전

제 1 절 반제자주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제 2 절 우리 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운동의 강화. 우린 나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

제 3 절 주체사상보급운동의 심화발전

제 9 장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추제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영광스러운 대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제 1 절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 충성의 <100일전투>

제 2 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완전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강령적과업 제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제 3 절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가지는 력사적의의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 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6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政勢認識: 對南觀·對外觀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北韓 住民의 價値意識 變化研究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
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律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中心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 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金正日政權의 變化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9)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
TIONAL UNIFICATION(1993)

〈資 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조선전사」解題

研究報告書 94-2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